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창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0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4 호

대장경 한글화 남-북 합작 제의

北 사회과학硏, 조선족인사 통해 밝혀
교계 '환영' … 통일원 성사 가능성 '시사'

북한이 팔만대장경 한글번역 및 전산화작업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우리측에 제안해 불교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 조선족 인사를 통해 '팔만대장경 번역본 합작개발제안서'(사본)를 입수한 중앙일보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에 이같은 북측의 제안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경연구소는 북한측 번역작업이 일정수준 성과가 있다고 보고 23일 총림스님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측의 사정과 진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경연구소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합작개발제안서는 팔만대장경 번역작업의 공동추진과 팔만대장경 등 고문헌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협력이 주요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사회과학원은 93년부터 민족고전연구소장 김승림을 팀장으로 김일성종합대 · 김형직사범대 · 외국문출판사 등의 학자 · 번역가 1백여명을 동원, 번역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 전체 5천4백여만자 중 1천만자의 번역이 완료됐으며 곧 1차분인 1천5백만자의 작업이 끝날 예정이다. 최근 경제난으로 연구성과물을 활용하거나 전산화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측의 첨단기술과 자본을 공동활용하자는 것이 북측의 입장.

장경연구소는 현재 2000년 '전자 팔만대장경' 간행을 목표로 번역 · 교열 · 컴퓨터 입력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8만개의 경판을 CD롬에 넣는 전산화작업 및 인터넷 개설을 추진, 국민적 관심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는 불교연구 및 남북문화의 이질감 극복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동국대 역경원(원장 월운스님)은 "성사만 된다면 대장경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원도 "아직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해당기관이 북한주민접촉 승인서를 제출하고 추진한다면 남북한 문화교류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기석 기자〉



◇국보 제296호로 지정된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괘불탱 7점 첫 국보지정

칠장사 · 안심사 소장품 등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화를 비롯 괘불 7점이 9월19일 사상 최초로 국보로 지정됐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괘불탱화들은 17세기를 전후해 제작된 것으로, 구도와 채색 및 도상적인 특징들이 조선후기 불화를 대표한다. 특히 12m 안팎의 대형불화로 국외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고 제작연대와 제작자, 각종 시주자 등이 화기(畵記)에 나타나 있어 불교회화사 및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장사 오불회괘불탱(제296호 · 1628년作) △안심사 영산회괘불탱(제297호 · 1658년作) △갑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탱(제298호 · 1650년作)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제299호 · 1644년作) △장곡사 미륵괘불탱(제300호 · 1673년作)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제301호 · 1653년作) △장곡사 영산회괘불탱(제302호 · 1722년作)

전사법 시행령 11일부터 유효

전통사찰 경내에서 전통다원의 운영과 교육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이 가능토록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유효하게 된다.

25일 조계종 총무원은 9월19일 차관회의를 거쳐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 11일부터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본지137호 3면기사 참조〉

南동포애적 자비행 北 조불련 감사전문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지선스님)의 옥수수 전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불교도연맹은 북송 옥수수 운송을 맡은 중국 현지의 보리수 무역회사를 통해 "식량을 보내준 남한 불자들의 동포애적 자비행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화를 해온 것.

한편 불교추진위원회가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기탁한 옥수수 2천톤이 9월15일 전달, 완료됐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이 순 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상식에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는 흔히 용기가 생기기보다는 허탈감에 빠지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1년 전에야 故 김동수 대불련 지부장의 모교인 조선대학교 교정에 그의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새벽 2시까지 마쳤다. 그날 참회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나서야 새로운 불심을 갖고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빛고을 광주 침잠의 날은…

또한 광주 관음사의 중창불사를 하게 되면서 나는 가까스로 또 하나의 발원을 했다. 그동안 광주지역 현대 불교의 요람이었던 광주 관음사가 광주 도심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터라 광주의 아픔을 씻고 산 자들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53불과 삼천불을 모시는 '참회의 도량'을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만 산 자와 죽은 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본래의 청정한 모습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전 · 노 두 前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었으나 아직 진실한 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들 떠들썩하다. 모 일간지의 시론에서는 '광주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함을 본다. 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막상 그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당사자는 누구나 말을 잃는 셈이 아니던가. 확실한 것은 빛고을 광주는 그 어떠한 어둠도 한가닥 빛에 의해 다 사라지길 기대한다. 광주의 빛을 잃고 어둠의 세계에 침잠할 수는 없지 않은가.(광주 이신경정신과 원장)

구독료납부 온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현대불교 이번주부터 24면으로 지면확대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10월15일)을 앞두고 이번 호(10월1일자 · 144호)부터 지면을 24면으로 확대합니다. 전국의 스님들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지금까지의 20면과 타블로이드 부록 4면(법공양)을 합쳐 24면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보도기능의 강화와 신선한 기획의 신설로 대폭 새로워졌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기획

김종서박사의 역작 '불교와 교육'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모 학교 사회가 모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의 가르침에서 2세교육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생생을 교육에 종사해온 교육개혁위원장 김종서박사의 역작을 2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5면〉

생활불교용어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는 불교용어들이 많습니다. 이 중 원래의 뜻과는 달리 왜곡, 비하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생활불교용어를 알기쉽고 바르게 풀이합니다. 〈15면〉

건강 365일 〈19면〉 **우리절 불사** 〈6면〉

강화되는 면

교계소식 교계의 다양한 뉴스를 전하는 종합기사면이 1면 더 늘어납니다. 〈2면〉

길을 묻는 이에게 신행상담으로 인기리에 연재돼온 '길을 묻는 이에게'란이 법공양페이지와 합쳐 매주 2개면으로 대폭 확대됩니다.〈17~18면〉

국제소식 해외불교계의 동향을 비롯 학술 문화 정보화등 각 방면의 불교관련 정보를 학술면에서 보도합니다.〈9면〉

신행소식 신행생활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각종 법회 행사안내 신행단체 인사 정보 등을 꼼꼼히 챙겨 여러분의 '신행수첩'이 되어드립니다. 〈6면〉

달라지는 면

'불자세상보기' '열린마당' 집중편집으로 활발한 토론마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20~21면〉

불자세상보기, 이렇게 들었다. 세상풍, 생활정보, 시론, 열린마당

나와 경전 〈13면〉 **게시판** 〈6면〉

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대정부 성명 2면
불교어린이 정보센터 탄생 23면
불교TV '새벽예불' 불자감동 22면
장승, 한민족 회로애락 '생생' 11면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불법구현을 위하여 …
PCS 016으로 『부다피아 포교기금』을 만들어 갑니다.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하십시오.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 수익 사업이란?
통일포교기금,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으로 가입하시면 통화료의 5%가 기금으로 적립되며, 이 기금은 향후 전문단체를 통하여 사용됩니다.
"함께 나누는 세상, 하나되는 세상, 불국토 세상,
이것이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이룩하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아산·평택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소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PCS 016
100년 기술이 PCS 016에 모아집니다

사 설

첫 범종교예술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KBS가 후원하는 '97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간 음악이나 미술의 장르별 종교간 교류는 있어 왔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종교가 참여한 범 종교예술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 속담에도 합한 두 사람이 흩어진 열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있고 또 마음이 맞으면 부처님도 부러워한다는 속담도 있다. 이런 속담의 진정한 뜻이 바로 화동하여 잘 화합하고 알맞게 어울리고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협의하여 마음과 힘을 모아 종교심을 함께 실현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한 종교국가가 아니다.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믿는 다원주의적 종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다원적인 종교를 수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흔히 종교간 갈등이 심하여 서로 자기의 종교 이외에는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를 흔히 보아온 터에 '97 대한민국종교예술제'는 신선한 희망을 준다.

종교와 예술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어느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는 등의 세속적인 가름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나 예술이 지향하는 목표가 모두 우주에 인간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함께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대한 종교나 모든 예술은 이 세상이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가 없는 사회보다 훨씬 아름다워야 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훨씬 아름다워야 한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술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마음이 풍요로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예술을 안다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도덕적이고 추하고 욕심이 많으며 비인간적이라면 어찌 그를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찌 그를 진정한 예술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종교와 예술은 우리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금이다. 종교와 예술은 우리들을 무한한 우주 속의 생명과 합일시켜 그 속의 자신들을 자각하게 만들어 준다.

이번 '97 대한민국종교예술제'는 그 행사 자체가 다원적 종교간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계기도 되고 종교와 예술이 지향하는 성숙한 목표를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기원해 본다. 예술을 사랑하고 사리를 알며 종교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가 세상의 어디에서 살던 어떤 형태의 종교를 믿던 모두가 하나인 또다른 종교의 교인이란 것을 실감하는 계기도 되기를 바란다. 비록 그 지향하는 방편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진리는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못지 않게 다른 종교의 특성과 정체성을 존중할 필요를 배워야 한다. 이번의 종교예술행사가 일회성으로 마치지 말고 해마다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상호의 존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서로 다른 종교집단이 많이 모일수록 자칫 주장이 경직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울 수도 있으나 이점은 특히 유의하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속가의 유행어처럼 서로 양보하고 서로 권한다면 이 또한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 지울 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누가 더 이름이 앞서고 누가 이익을 더 많이 가졌다는 등의 속된 탐닉을 배제할 수 있다면 이번 종교예술제는 명실상부한 화합과 조화와 협동의 근본을 실천한 본보기 예술제가 될 것이다.

전통문화수호 대정부 성명

조계종총무원장 입장료 폐지·농지법개정등 3개항 촉구

조계종이 국·도립공원입장료 폐지와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강도높게 주장하며 정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에 대한 정부의 공원입장료 분리징수로 조계종과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2일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의 골자는 △국·도립 공원의 입장료 폐지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전통사찰의 문화환경 종교환경 보호와 유지를 위해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은 허용돼야 한다 △민족문화 보존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촉구한다 등이다.

이번 성명은 공원입장료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의 총체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성명과 관련 교계는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주무부처에서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계는 정부의 '무반응'을 비난하며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으로 공원관리 보존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농지법 개정과 민족문화 보존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함으로 공원의 입장료 폐지문제의 근원적 해결점을 찾으려는 조계종의 입장이 확고히 반영됐다는 평이다.

그간 공원 입장료 폐지를 강도높게 주장해 온 조계종이 '민족문화의 보호'라는 사찰의 기능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임연태 기자〉



◇법주사에 걸린 '공원입장료 폐지' 현수막.

총무원장성명 '지지'
교구본사 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회장 설조)은 22일 제주도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국립공원 입장료 철폐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구본사 주지모임은 회의에서 △사찰 임야의 국립공원지역 제외 △공원입장료 폐지 △22일 발표된 조계종 총무원장의 성명 적극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지모임은 종단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과 대책을 논의해 교구연합 결의대회와 전국규모의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법주사 단독 합동징수 공단, '위법' 주장 공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가 법주사에 대해 현재 행하고 있는 사찰측 단독합동징수 매표행위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속리산 사무소는 지난 20일 법주사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사찰측의 단독 매표는 자연공원법과 공단의 업무방해임을 강조하고 이에따른 법적책임이 사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법주사측은 현재 종단과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10월15일까지의 타협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 합동징수 단독매표를 할 계획이라며 공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8일부터 종정감사
조계종, 109개 사찰대상

조계종 97년도 정기 종무행정 감사가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종정감사의 대상은 교구본사와 특별분담금 납부사찰 등 모두 109개 사찰이다.

조계종 해외불교 파악나섰다

5개권역별 준비위원장 위촉…한국불교 세계화 '가속'

조계종이 해외사찰들의 관리와 해외포교 지원을 위한 해외 주요지역 불교실태파악 작업을 시작했다.

조계종은 5개권역을 선정 각 지역별 준비위원장 위촉장을 24일 수여했다. 지역별 준비위원장에는 미주지역 LA 관음사 도안스님, 유럽 및 아프리카지역 프랑스 길상사 회일스님, 일본 및 동남아 지역 일본 고려사 태연스님, 중앙및 서남아 지역 인도 녹야원 도용스님, 오세아니아 지역 호주 관음사 정오스님 등이다.

준비위원장에 위촉된 스님들은 각 지역에 대한 한국불교의 진출현황은 물론 각국 불교의 활동상황과 각종 정보를 년2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총무원에 보고하게 된다. 총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포교의 효율화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에 산재된 사찰들의 종단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위촉장 수여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제 종단이 해외 사찰들을 관리하고 포교업무를 지원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해외불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현지 사정에 맞는 포교전략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재양성과 활용을 통해 해외포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을 강조했다.

준비위원장들은 "그간 개인의 원력에 의해 진행되어 온 해외포교는 많은 한계를 느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종단의 지원과 법적인 보호아래 보다 폭넓은 포교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인사 판전보수 '내년 2월로'

해인사 판전(국보 제52호) 보수가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해인사와 문화재관리국간의 세부일정 및 계획에 관한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당초 올8월 보수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문화재관리국은 10월1일 해인사에 기술조사단을 파견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재관리국이나 해인사측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획대로 보수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판전 보수는 동결현상이 발생하는 겨울에는 공사가 불가능해 내년에나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인사는 공사에 대비해 육송연목을 건조중에 있으며, 판전기와로 쓸 특대와(特大瓦)를 준비중이다.

KAL 참사 영령 49재
조계사·괌 현지서

괌 KAL기 추락사고로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한 49재가 22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능관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49재에는 유가족 20여명과 대한항공 황조연 이사, 아가나주재 이정재영사등 30여명이 참석,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한편 23일 사고현장인 괌 니미츠 언덕에서도 49재가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조계종 총무국장 지현스님과 사회국장 일화스님이 종단을 대표해 참석, 희생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위덕大 군승후보지정 '새국면'

진각종 독자추진 실무작업
조계종 국방부 소관 반대표명

진각종이 위덕대 군승선발대학 지정문제에 대한 독자적 추진방침을 공식발표하고 나섬으로써 위덕대 군승후보지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진각종은 지난달 중순 열린 종단간부회의에서 조계종측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독자적 추진에 따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진각종은 빠른 시일내에 국방부와 조계종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법적문제로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진각종이 독자추진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위덕대 불교학과 학생의 군승임용을 막는 법적조항이 없다는 자신감 때문. 실제로 '장교요원선발규칙'의 병역법 제58조 3항에 '소속 종교단체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자격이 명시돼 있고, '군승 사관후보생 관리규정' 제8조 3항에는 '자격이 갖추어지는(4년제 대학을 말함) 불교대학의 후보생 및 요원도 본 규정에 의해 교육 및 관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는 등 조계종 승려라야만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위덕대를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일 뿐이며,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오고서도 이제와서 조계종이 반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지난해 9월 종무회의에서 결정된 반대입장을 국방부에 서면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이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군승이 부족한 상황에데다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위덕대의 군승후보선발 지정을 막는 것은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계여론이 더욱 확산될 경우 이 문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의미 알며 올리는 '새벽예불'

팔공산 은해사 9월 보살계 철야정진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온 세계가 법당 아닌 곳이 없으며 지혜와 자비 발원하는 자,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불의 길 열려 있습니다. 이슬을 녹이듯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녹여 줄 것입니다.

팔공산 은해사는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과 원효, 일연, 설총 삼성현(三聖賢)의 상주도량입니다. 은빛같이 온 산하를 뒤덮고, 법의 진리가 함께하여 바다물결이 충만한 듯 은해(銀海)의 불법(佛法)이 살아 숨쉽니다. 신라때 명산대찰의 하나이지만 유수천년에 먹구름 지나가고 작은 햇빛의 서운이 도래하여 산내 비구, 비구니 선방과 조계종 교학의 최고 학부인 승가대학원에서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보배이신 동곡 일타 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교계 대덕스님들을 3사 7증으로 모시어 보살계 설계의 대복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꼭 동참하시어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1년 9월

三 師
전계대화상 東谷日陀
갈마아사리 應然尙兆
교수아사리 如天無比

七 證
法融智霞 (승가대학총장)
靑庵法祖 (고운사 주지)
中和法陀 (은해사 주지)
抱山慧印 (약천사 주지)
包雲性眞 (청곡사 주지)
錦牙慧國 (남국 선원장)
一霞無空 (동화사 주지)

일 시
2541년 10월 11일 (음 9. 10) 토:15:00 ~
10월 12일 11:00 (1박 2일 철야정진법회)

장 소
팔공산 은해사 금강계단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보살계 동참금
2만원

문의전화
은해사 (0563)35-3318~9
서울 평불협 (02)735-5558~9
은해사 교구 각 말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 해 사 주지 中 和 法 陀 합장

취약지역 전법… '교세 전국화'

조계종, 인천·목포 전법거점 지정 '의의'

농어촌 포교의 새장 기대
스님 법사단 구성 순회법회
지역연합 교육기관 개설 추진

조계종 전법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는 9월22일 전법도량지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과 목포 두곳을 포교거점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시범사찰은 기능별로 많은 곳을 지정키 위해 1개월 동안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재심사 후 다수의 사찰을 지정키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당초 거점사찰 2곳, 시범사찰 5곳을 지정해 거점사찰에는 3천만원, 시범사찰에는 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조직위원회가 거점사찰 대신 거점지역으로 결정한 배경은 특정사찰을 거점사찰로 지정할 경우 자칫 같은 지역내에서 사찰간의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이 전통적으로 개신교세가 강한 지역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조계종의 영향력이 미미한 곳으로 평가돼 취약지역의 포교열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역인구 1백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만여명이 개신교 신자로, 불교인구의 5배를 상회한다. 특히 1백66개 사찰 가운데 조계종 사찰은 37개(공찰은 능인사 1곳)로 조계종세도 대단히 약한 곳이다. 이에따라 조직위는 해당 지역 조계종 사암이 연합회를 재구성, 지역연합의 교육기관 개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사암연합회를 구성 또는 재편성하고 포교전략에 따라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사실상 올해안에 불교대학 설립이나 본격적인 포교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목포의 경우 대둔사 송광사 백양사 등 3개 본사의 유기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 조직위원회 실무위원들은 거점사찰 2곳, 시범사찰 5곳을 지정을 염두에 두고, 지정 직후 현관식과 함께 종단내 중진 이상의 스님들로 법사단을 구성, 대대적인 순회법회를 개최해 전법분위기를 고취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직위원회가 '거점지역'으로 선회함에 따라 전법도량 추진계획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어 실무위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조계종은 율해를 전법의 해로 선포하고 전법도량 지정, 포교분위기 확산을 위해 순회법회 개최 등을 주요종책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포교원은 "울산불교문화교육원의 경우, 해당 사암연합회가 공동으로 문화원을 설립하고 윤번제로 회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있다"며 "거점지역 선정으로 오히려 지역불교의 단합과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전국 초·중·고 불자교사모임 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9월 19일 열린 서울·경인 교사불자회 창립법회.

전국 교사모임 교두보 될듯

서울·경인 교사불자회 19일 창립

조계종단 차원의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가 창립됐다.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을 비롯 서울·경인지역 교사 30여명은 19일 서울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각급학교의 불교학생회 활동지원 △학생들을 위한 포교자료 개발 및 간행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회장에 임완숙교사(이화여고)를 선출했다. 〈4면에 인터뷰〉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키로 하고, 중점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쪽지' 발간과 교사 대상의 불교강좌를 개설키로 했다.

포교원은 내년 1월 예정된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 수련회에 각지역 모임 추진위 대표들도 참석케 해 내년 상반기중 (가칭)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결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김천지역에 직지사교사불자회(회장 조농연) 광주·전남교사불자회(회장 김진택) 부산 불교교학생회 지도교사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어 전국모임 결성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은 또 내년 예산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결성과 이후 활동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지원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 교사불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추면 기존의 포교사와 별도로 '청소년 포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교사불자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 창립과 전국모임 결성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찰 및 청소년단체의 지도자 부족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종단 성과 대중체감 '미흡'

실천승가회, '개혁 3년 평가와…' 세미나


◇심익섭교수


◇김용철교수


◇유승무교수


◇김기언교수

11월로 출범 3주년을 맞는 조계종 개혁종단의 점수는 얼마일까. 또 종단의 인사·재정관리 현황과 과제는 무엇일까. 이같이 그동안 다루기 미묘했던 사안에 대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지선)가 개최한 '97 추계정진도량에서 도출해냈다.

9월30일부터 10월1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추계정진도량은 '종단개혁 3년에 대한 평가와 종무행정 발전전략'이 주제. 이날 토론에서는 종단개혁을 통해 출범한 현 조계종 총무원은 '개혁회의 5대지표의 제도화'를 과제로 출발했으나 종책의 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함으로써 구조적 측면과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열린행정 민주적 리더십 필요
종책심의기구 설치도 제안

'종단개혁 3년에 대한 정책평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승무교수(중앙승가대)는 이같은 평가와 함께 "현 총무원의 종책은 현안중심의 단기적 과제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종단개혁과제로 수렴되지 못한채 종단개혁과 단절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현 총무원은 종단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도개혁적 차원의 성과에도 사부대중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개혁성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혁종책의 미흡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책심의기구 설치 △종책집행 평가제도 마련 △종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제시했다.

종무행정 발전전략과 관련, '종단 인사정책의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발제한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는 "현 종단의 인사관리는 계율과 관습에 근거한 전통적 승가의 인사제도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소극적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현 종단인사정책의 문제점으로 △종단발전 목표와 부합하는 인사정책 미흡 △능력 중심주의 인사정책 결여 △단위사찰의 소임자 부족 △중앙과 교구 사이의 재가종무원 인사교류 미흡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교수는 "종무기관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중앙인사기관 설치, 종무원 양성전문 교육기관 설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종단 재무관리 시스템의 평가 및 전망'에서 김기언교수(경기대)는 "총무원 종무기관의 예산구조는 대부분이 정부예산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온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히 체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종단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지출을 매년 재평가,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익섭교수(동국대)는 '종단리더십 평가와 종무행정 발전의 기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현 종단의 경우 종교의 속성상 그동안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유효했다"고 평가하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정책을 통한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정은 기자

목어 山門

산문(山門)안은 성역이다.

산문안에 들어서면 불법승 삼보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산문은 산에 들고 나는 문이 아니라 스님들의 수행도량인 절문을 상징한다.

10월15일 산문은 과연 닫힐 것인가. 단풍소식이 점점 다가오면서 국민의 시선이 국립공원 산문으로 쏠리고 있다.

절은 수행처이지 관광지나 문화재 보호소가 아니다. 그런데도 사찰이 산문을 활짝 열어 성역을 공개하는 것은 민족정신이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국민도량으로 개방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이같은 대승적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사찰이 관람료를 받아 떼돈이라도 버는 줄 안다. 이번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람료분리징수 문제만해도 그렇다. 일부에선 '밥그릇 싸움'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으나 사찰측 입장은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의 사찰에는 선방도 있고 강원도 있다. 그곳 스님들이 주변의 번거로움과 소란스러움을 감내하면서 산문을 열어 놓는 것은 사찰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다. 관람료 수입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성보보존관리비로 턱없이 부족하다. 사찰매표소에서 함께 입장료를 받고있는 공원관리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하물며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계기로 행정지침을 어겨가며 분리징수에 나서다니 남의 밥그릇을 넘보는 소행 아닌가. 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걱정한다면 조계종 요구대로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관리는 다른 나라처럼 국비로 하면 된다.

빠르면 11월부터 서울대공원등 놀이동산의 입장료가 어른 3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사찰문화재 관람료 인상은 인상도 아니다. 거기다 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 국민은 부담없이 산과 절을 두루 볼 수 있다.

옛부터 절은 산을 보호관리했다. 명산과 명찰은 그래서 하나다. 국립공원안에는 사찰소유의 땅이 있다. 내집·내땅·성보를 '우리의 것'으로 내놓은 산문의 주인에게 상의도 없이 분리징수 강요라니….

조계종은 산문폐쇄의 명분을 뚜렷이 해야 한다. 시위용이 아님을 보여줘야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10월15일 산문폐쇄의 열쇠는 정부에게 달려있다. 불교계의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산문은 열리고 닫힐테니까.

"참회하는 삶 위한 바람(願) 정진(力)"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철야기도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평생 한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행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평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지 않았던 분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

△입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4시

△회 향: 11월2일(일) 오전5시(새벽예불후)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대웅전 석불전 참회당 등)
△참석인원: 영구독자를 비롯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접수)
△동참비: 5천원
△일 정
입제식
5백배씩 하고 10분 휴식
저녁공양 간식공양
새벽예불
회향식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영구 구독자께는 우선 참가권을 드립니다.
※가족이나 단체단위로 참가하시면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은 앉아서 동참하는 방편도 공덕이 된다고 故 백선엽스님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동참원력이 귀하다 하겠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圓融宗 金剛戒壇 國際 菩薩戒 受戒 山林 大法會

歸依三寶하옵고

各界尊師와 四部大衆 十方諸賢諸位께 佛菩薩님의 慈悲光明이 늘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本宗에서는 傳法度生의 一環策으로 迷惑의 暗夜에서 허덕이는 苦海衆生을 濟度하고 佛教重興을 爲하여 金剛戒壇 國際菩薩戒 및 靈山齋法要式을 다음과 같이 奉行코져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隨喜同參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日 時 : 佛紀 2541 (1997)年 10月 7日 (陰 9月 6日) 午前 11 時
■ 場 所 :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 재향군인 회관 2층 3층 강당
■ 전 화 : (法會場) 02-418-1636 (總務院) 02-857-5094

五 和 尙
傳戒大和尙 靈山 一空
碣磨阿사梨 如虛 慧日 (中華民國)
碣磨阿사梨 寶印 輔宇
敎授阿사梨 大森 慈祥 (日 本 國)
敎授阿사梨 惟念 法信

證 師
圓山, 圓海, 圓應, 圓空, 法雲, 載嶺, 圓覺.

左 引 禮 師 : 圓光
右 引 禮 師 : 圓鏡

● 奉行 委員長 : 曺 性 觀
委 員 : 正觀 舞松 普匡 體仁 體依, 지관, 井光, 鶴林
● 執行 委員長 : 李 平 信
委 員 : 仁觀, 性印, 性觀, 體乘, 體道, 體法, 眞聖
● 推進 委員長 : 朴 大 月
委 員 : 善德, 海空, 普廣, 체선, 체혜, 三昧華
● 國際 菩薩戒 受戒山林 金剛戒壇長 : 崔 法 輪
⊙ 後 援 : 韓國佛教宗團協議會. 韓日佛教 文化交流協議會

社團法人 大韓佛教 圓融宗 總務院長 宋 寶 印 合掌



월주스님 화갑논문 7일 봉정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화갑기념문집 및 논문집 봉정식이 7일 오후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이날 봉정될 스님의 문집은 〈보살사상 보살정로〉로 2권 분량. '보살정로' 편에는 이재창박사의 '신라시대의 성전에 대한 고찰' 등 국내외 불교학자 26명의 논문이 실렸다.

北돕기 성금 5천만원씩 전달





태응(사진 위) 불교TV 사장 스님, **설조** 불국사 주지는 북녘 동포돕기불교추진위에 성금 5천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 성금은 불교TV 시청자들이 기탁한 것과 9월 6일 입적한 월산대종사의 유덕을 기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15회 동국인 수계법회



도업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스님은 22일 체육관에서 제5회 동국인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나·려 고승비 탁본전

홍선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장스님은 9월30일~1일 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에서 신라·고려시대 고승들의 비(碑) 탁본전시회를 갖는다.

고엽제 환자 위문공연



자용 동국대 동불사회복지회장(수국사 주지)은 9월26일 임원회를 통해 10월경 육군본부 국방회관에서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1천여명을 초청하여 위문공연을 개최키로 했다.

봉불식 및 합창단 현판



현수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회장스님은 9월20일 同사무실에서 부처님 봉불 점안식 및 연합합창단 현판식을 봉행했다.

천일기도 회향 법회



초격 광명선원장스님은 5일 오전 10시 광명선원에서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해인사 '동승' 초대 展

원성스님은 1~31일 해인사 구광루에서 '동승'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에는 '신심' 등 스님의 최근작 80여점이 전시된다.

원명선원 천불 봉불식



대효 한라산 원명선원 주지는 5일 천불 봉불식 및 천불공양 봉행과 3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중국석굴 주제 학술강연

마세장 중국 북경대학 교수는 9월26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쿠챠석굴과 불교벽화'를 주제로 중국석굴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97 추계학술대회 열어

김유선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장은 9월27일 경기도 박물관에서 '97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1회 이천 도자기 축제

이은구 이천문화원장(도예가)은 9월26일~5일 경기도 이천에서 제11회 도자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중일 도예전 △흙과 불의 정신 展 △내가 만드는 도자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길상사 창건 기원 강연회

이계진 아나운서는 2일 오전 11시30분 길상사 창건기원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한다.

국어정보화위원에



이정 경향신문 뉴미디어센터 차장은 9월11일자로 문체부 국어심의회 국어정보화분과위원에 위촉됐다.



인도국제문화축제 대불청 참가

인도청년복지연합(회장 조긴더 물리 Joginder Tuli)은 19~20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는 국제청년문화축제에 대한불교청년회 회원들을 초청하기 위해 9월22일 귀국했다. 이에대해 대불청은 사물놀이 및 부채춤 등을 선보일 회원 4명을 파견키로 했다.



■조계사 총년회장 이종찬씨

"소모임활동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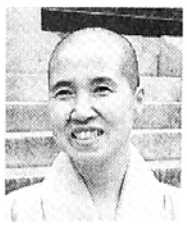
9월20일 조계사 청년회 제17대 회장에 이종찬씨(조계사청년회 연수원장)가 선출됐다.

이종찬씨는 "재임기간 동안 회원들간의 화합을 우선으로 교계내의 조계사청년회 위상을 정립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

이씨는 앞으로 불교영화 경전공부 바둑방 등의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회원상호 교류·배가사업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태극권등 남성강좌도 개설"

서울 비구니 첫 복지관장 상덕스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고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호흡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성동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초대관장을 맡은 서울지역의 첫 비구니 복지관장 상덕스님(미타사 정수암주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스님은 지역포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태극권 다도 참선 등 불교적 심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남성들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총건평 9백37평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영·유아및 아동시설, 노인·부녀교실, 청소년기능교실·도서실, 직업훈련실, 강당, 영사실등이 들어선다.

김원우 기자

월하·서옹·석주스님등 휘호 기증

'참여연대' 후원 저명인사 애장품 전시회



◇월하스님



◇서옹스님



◇석주스님

월하 서옹 석주스님의 글씨등 교계의 명망있는 스님과 불자 40여명이 자신의 애장품을 '참여연대 후원을 위한 사회저명인사 기증 애장품 전시회'에 내놓아 화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가 9월26일부터 백상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의 애장품 4백여점을 전시, 2일까지 관매한다.

월주·범주·지선스님의 글씨, 법타스님의 동양화, 월주스님·고은·신경림 시인 등의 친필휘호, 도자기, 유홍준 교수의 탁본 족자, 이철수 판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장구·꽹과리, 정신대 김순덕·심미자 할머니의 그림 등이 눈여겨볼만 하다.

심장병 조선족 아동 수술비 지원 호소



선천성 심장병으로 중국병원에서 치료불가능 판정을 받은 중국 요련성 흥모자향성 조선족촌 최월향어린이(여, 9세)가 감로심장회(회장 보안스님) 지원으로 국내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게된다. 최양의 입출국 경비는 진주 제일전기 성재경사장이 부담키로 했지만 막대한 수술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문의 (0591)747-0106

분황사에 핀 우리 야생화



Focus

경주 분황사(주지 종수) 모전석탑(국보 제30호) 앞에는 우리꽃들이 사는 100여평의 꽃밭이 조성돼 있다. 분황사가 경주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만든 이 꽃밭에는 야생목본 20여종 야생초본 40여종의 총 60여종 3만여본의 우리꽃이 심어져 우리나라 야생꽃 풀들을 한자리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자연교육장이 되며, 뜻밖에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작품장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원효스님의 도량에서 가녀린듯 하면서도 생명력 강한 우리풀꽃들은 하늘하늘 민족정기를 일깨우고 있다.

경주=고영배 기자

"청소년문제 처방 불교에 있죠"

서울·경인교사불자회 임 완 숙 회장



"청소년들의 심성을 아름답게 가꿔줄 수 있는 것은 불교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연법만 알려주어도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9월19일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으로 뽑힌 임완숙 교사(51·이화여고)는 "청소년 문제의 처방전은 불교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아주 깨끗해요. 가정의 문제, 입시중압감을 주는 교육이 문제예요. 문제를 만든 어른들이 할 일은 끊임없는 관심으로 따뜻한 대화를 하는 일이죠."

'임회장은 학생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불교학생회를 조직하는 일과 교사들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 개설을 첫째 사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불자교사들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와 〈시세계〉를 통해 등단한 작가, 시인인 임교사의 법명은 '법륜행'.

"대학시절 들렀던 백담사의 도윤스님이 '큰 불사를 하라'며 지어주신 법명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정성운 기자

대불청회장 선거 2파전

이상대·정웅정씨 '세계화' 등 공약



◇이상대씨



◇정웅정씨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차기 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9월23일 후보등록을 마친 이상대씨(前 부산지구 회장)와 정웅정씨(前 중앙사무국 사무층장)의 양파전.

이씨와 정씨 모두 대불청의 신행과 조직의 혁신 및 세계화, 포교활성화 등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청법인화 ▲법사단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통일운동 및 사회봉사 강화 ▲불청연구소 개설 등의 사안에는 외관상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밖에 이씨는 △지역부회장제 도입 △신행수기공모전 개최 △국제불교청년봉사대 설립, 정씨는 △불청사업단 및 후원회 구성 △상근인력 양성 △사회봉사 전개 등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필〉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서울대 환경대학원생 440,000원 △안동여고 250,000원 △정토포교원 승만회 220,000원 △신용보증기금 역삼동지점 185,000원 △혜원정사 132,100원 △김옥희 1,000,000원 △성정현 1,000,000원 △오상원 500,000원 △손경연 300,000원 △최은 300,000원 △송영태 200,000원 △윤장호 200,000원 △박양미 130,000원 △권오순 100,000원 △김정식 100,000원 △마경숙 100,000원 외 △밥 한공기 나누기 298,860원 △한끼 굶기운동 3,055,250원 〈9월24일 현재 총 825,022,859원〉

·후원금 접수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봉선사 서울포교당 방배동 광명선원

천일기도 회향 큰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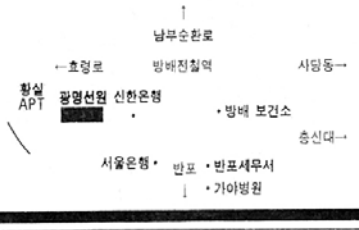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도심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작한 천일기도가 원만회향되어 인연있는 선배·도반·후배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시고 회향 큰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어 다시금 정진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기도 회향식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운경·회주 월운·주지 밀운 큰스님을 모시고 봉행합니다.
• 불기 2541년 10월 5일(일) 오전 10시(권공으로 시작)

만등불사 및 탑돌이
온누리에 자비의 등불 밝혀 회향공덕을 함께하고자 만등불사 및 탑돌이가 있습니다.
• 불기 2541년 10월 5일(일) 오후 7시(점등식)
동참방법 1인 1등 일만원(영가등 포함)

천일기도회향 가을방생 및 성지순례
천일동안 동구불출 정진후 첫 바깥나들이를 강원도 태백산 정암사(적멸보궁) 치악산 소쩍새 마을로 떠납니다.
• 불기 2541년 10월 7일(화) 오전 9시 출발 동참금 이만원

◇문의◇
(02) 584-1108, 587-3753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894-18호
<방배동 제일병원 황실 ATP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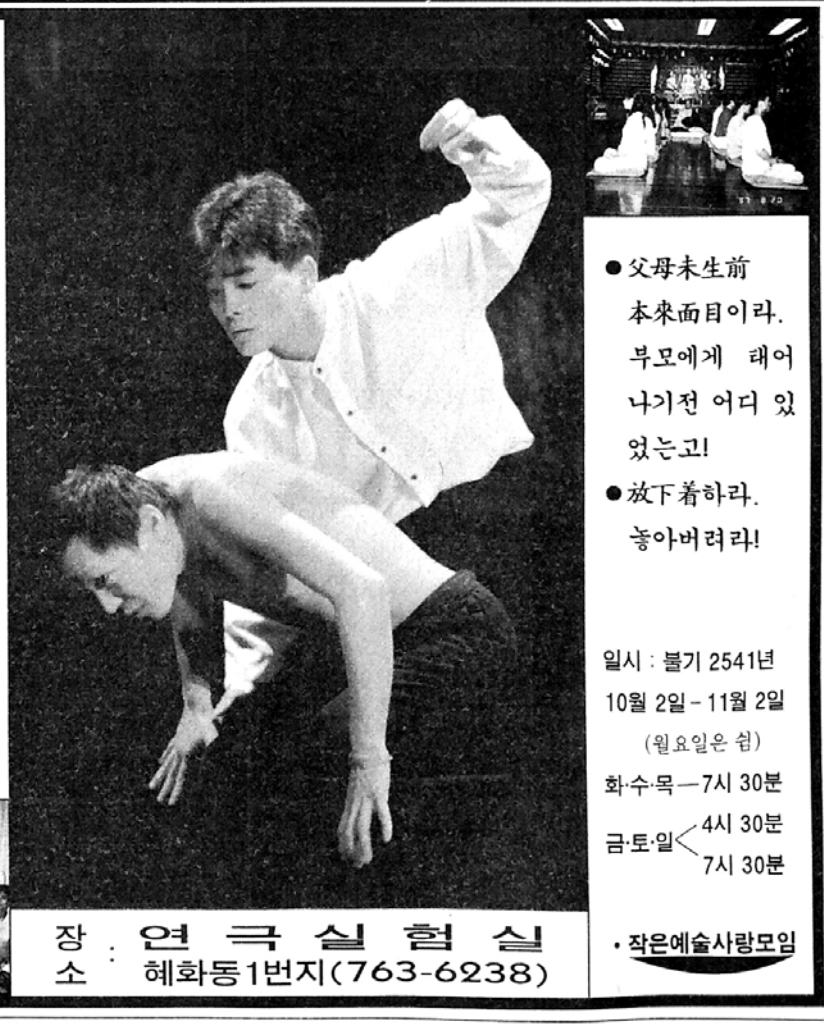
◈ 버스노선
일반 1. 29. 288. 87. 87-1. 88-1
좌석 42
★ 방배보건소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방배전철역 하차.
방일초등교 숲구 마을버스
(광명선원 입 하차)

광명선원
● 천일기도회향 기념공연
● 작·예·모 세번째 무대

"보리피리"

최문정 作
김운기 演出
참선지도 초격스님





● 父母未生前 本來面目이라. 부모에게 태어나기전 어디 있었는고!
● 放下着하라. 놓아버려라!

일시 : 불기 2541년 10월 2일 - 11월 2일 (월요일은 쉼)
화·수·목 — 7시 30분
금·토·일 < 4시 30분 / 7시 30분

장소 :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763-6238)

·작은예술사랑모임

탐방 다르마법우회



◇9월6일 선운사와 내소사로 사찰순례를 떠난 법우회원들.

불교 외호 '호법 신장' 발원

사법연수생 80명 경전배우며 봉사 앞장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관·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예비법조인들의 마지막 배움터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이곳에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불국토 실현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사법연수원 27·28기생으로 구성된 다르마법우회(회장 황석광).

지난해 4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27기 연수원생중 50여명의 불자가 창립한 다르마법우회(초대회장 이승형, 지도교수 김희옥부장검사)는 매달 정기법회는 물론 매주 화요일 〈반야심경〉 금부모임을 가지면서 모임의 틀을 다져왔으며, 직지사에서 수련대회를 열고 발우공양, 참선 등을 지도받기도 했다.

이어 선배들의 독려로 올해 3월 21일 창립된 28기 법우회는 전문 교과과정이 늘어나는 등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도 1년간 성공적인 모임의 토대를 일군 선배들의 신행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내실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도 80명으로 늘어나 연수원 내 최대 종교써클로 자리를 잡았다. 매주 월요일 지도법사 법륜스님(정토포교원장)을 모시고 인근 정토포교원에서 법회를 열고 경전공부를 계속하면서 부처님법과 현행법의 조화를 고민하고 있다.

봉사활동 등 신행도 서서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광주 정신대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집을 방문, 주말농장에서 밭을 갈고 할머니들을 통해 살아있는 현대사를 배웠다. 또 9월 6일에는 고창 선운사와 부안 내소사로 사찰순례를 떠나 철야정진과 새벽예불 등으로 불심을 키웠다.

황석광회장은 "앞으로 사법연수원 개편안에 따라 학점평가보다 성실성·인성·봉사정신 등 비학점 평가에 더 높은 배점을 주기로 해 불교를 배우려는 연수원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우회원들은 연수원을 수료한 후에도 동문회 모임을 조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불교법조인신도회(회장 김홍근)를 능가하는 신행단체로 성장, 불교외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본분사 충실 스승 진면목 찾자"

금오문도회 법주사서 제6차 수련회

금오 태전(金烏 太田) 선사의 유지를 기리고 문도의 화합을 다짐하는 제6차 금오문도 수련회가 17~18일 1박2일간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렸다.

금오스님의 재일에 맞춰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상좌 손상좌 80여명이 참가했다. 상좌인 천룡스님(법주사선덕)은 제1특강 '금오 대선사의 행장'을 통해 "선사의 행장은 삶과 죽음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선사가 깨달았던 그 본래 진면목의 자리를 보려는 간단없는 수행으로서 그 행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오대선사의 선사상'을 주제로 한 제2특강에서 월은스님(법주사선덕)은 "금강경은 사상(四相)을 말하고 반야심경은 관(觀)을 말하는데 그 참뜻을 알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온갖 법문이 듣고 보고 살아 숨쉬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당아야 비로소 선사상의 깊이도 가늠되는 것임을 잊지말고 각자의 본분사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새벽 4시부터 이어진 제3특강에 나선 도법스님(선우도량공동대표)은 '승가정신의 회복과 청년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출가와 승가정신의 회복을 통한 현대적 수행자상과 승가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연기적 안목과 동체행(同體行)을 갖춘 인격이 현대가 요구하는 수행자 상이라면 법의 정신에 의지해 청정과 화합이 이루어 지는 것이 현대적 승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본스님(동국대교수)은 제4특강 '선의 풍토와 선의 정신'을 통해 선불교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가 갖는 특성으로 들며 설명했다. 숲의 종교가 농경사회 속의 명상과 사색을 전제한 자연 동화적 성격을 갖는데서 선수행의 태동과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

18일 법주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금오스님의 29주기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등 문도와 신도2백여명이 동참했다.

법주사=임연태 기자



◇금오스님 29주기 재일에 맞춰 금오문도회 수련회가 열렸다.



◇관오사의 1박2일 동사섭법회.

'깨달음' 찾는 대구 첫 동사섭법회

동사섭(同事攝)법회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대구 관오사에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동사섭이란 대승보살이 중생을 근기에 따라 제도하는 방편인 보시섭(普施攝) 애어섭(愛語攝) 이행섭(利行攝) 동사섭 가운데 한가지를 의미. 동법회는 칼로져스가 창안한 T그룹 위크샵 등 심리학기법을 용타스님이 대중성있게 발전시킨 것으로 제자인 대화스님(명상의 집)이 법회를 이끌었다. 동사섭법회는 17년동안 연 2회씩 1백48회의 수련회를 가졌고 2천여명이 수료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명성여고어머니회 불교수업

소년가장·독거노인돕기 장학회 추진

어머니들도 수험생과 함께 공부한다. 명성여고어머니회인 수심회(회장 이명숙)가 교내에서 불교공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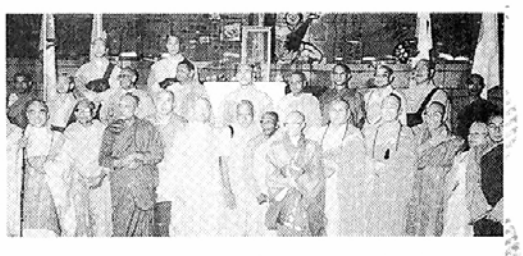
수심회는 10월7일부터 두달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수심당에서 회원 80명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리강좌를 개설한다. 이원주교장과 김형중·김재호·이학주법사의 강의로 8회에 걸쳐 불교교리를 배운다. 주제는 △불교의 교육관 △불교의 가정관 △깨달음의 내용 △근본교리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의 생애 △선이란 무엇인가 △불교예절과 의례 △불교의 건강학 △불교의 생사관 등 알찬 내용으로 꾸며진다.

한편 수심회는 연말까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을 돕기위한 장학회를 설립키로 하고 기금을 모으고 있다. (02)452-8655



제6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제6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24일 중앙승가대학 정진관에서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시상식에는 주영운 이사장을 비롯 지하스님(중앙승가대 총장), 홍윤식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학상에는 정송스님, 예술상 고전예술부문에 박용기씨(불교방송 방송위원), 현대예술부문에 백성희씨(연극배우)가 수상했다. 이밖에 1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천3백만원을 수여했다.



한-스 불교우의회 고승초청 법회

한-스리랑카 불교문화교류우의회(회장 종운스님)는 9월2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프라자에서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및 스리랑카 한의대 건립을 위한 세계불교고승초청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운 회장(해원사 주지), 혜초 前 태고종 총무원장, 대둔사 주지 천운스님, 자이아나 스리랑카 종교성장관, 단마쿠살라스님(말레이시아), 단마자부스님(몽고)과 불자가수 머루와다래, 명국환, 김활선씨 등 1천여명이 참여했다.



부산구도회 20돌기념 불교사상 강연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회장 한동대) 창립20주년 기념법회 및 정병조박사 초청 불교사상 대강연회가 9월25일, 26일 양일간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불교의 향기' '한국불교, 어디로 갈것인가'의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는 6백여 재가불자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으며 25일 기념법회에는 김상훈 부산일보사사장, 김길조 부산구도회 초대회장, 우학수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심산회 군법당 안국사와 자매결연

조계종 포교사단내 심산회(회장 홍성룡)는 9월 21일 중부전선 모부대 군법당 안국사에서 심산회 홍성룡회장과 강석효고문, 조정봉감사를 비롯 약사선원장 태일법사, 심도포교원 문영준법사와 부대장 및 불자장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불식 및 자매결연을 맺었다. 홍회장은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공덕을 봉축한다"면서 〈약사경〉등 불서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우리 모임에선

하나로선정회 '민족사' 포럼

하나로포럼선정회(상임공동대표 고준환)는 10월 1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민족 국시 바로잡기'를 주제로 제8차 포럼을 연다. 김대희(동의대)·고준환(경기대)교수가 '중국과 일본을 지배한 상고시대 한민족' '자주사관으로 본 민족사의 흐름'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 (02)735-7540

한일은행 불교회 11돌

한일은행불교회(회장 한우진 서초지점차장)는 9월 27일 서울 본점 5층강당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법문한 길음사회복지관장 제원스님은 회원들에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법회를 이끌어온 노고를 격려하고,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불회 지광스님 초청법문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 청와대사회복지수석)는 9월 27일 서울 능인선원에서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을 초청 9월 정기법회를 열었다. 지광스님은 "나라가 어려운 때 일수록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법문했다.

불교문화硏 수화방 개설

불국토 부설 불교문화연구회(회장 임한석)는 9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불교수화 공부방을 개설하고 있다. 불교수화를 배우고 농아들을 돕고 싶은 불자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배울 수 있다. 강사는 서영진 이상우, 보조강사는 임한석회장(부산시 수화통역자회 회장). (051)441-7700

예산군신도회 대법회

충남 예산군불교신도연합회(회장 김민우)는 10월4일 문예회관에서 '불교중흥을 위한 발심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법요식, 박완일씨(前 전국신도회장) 특강, 국악공연(묵계월씨외 20명) 등이 펼쳐진다. (0416)34-2196

천리안동호회 전국모임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시삽 박수호)는 10월 4, 5일 1박2일간 부산 금정산 금강암에서 전국모임을 갖는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철야정진 및 새벽예불, 체육대회 등이 펼쳐진다. (042)533-9653

BBS통신원 신임회장 취임

BBS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전경남)는 9월27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통신원 총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신임임원 임명법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회장 전경남, 수석부회장 윤성권, 사무총장 함춘근씨가 임명됐다. (02)705-5151

충북예비역 불서보시 운동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김방일)가 창립4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同회는 9월29일 풍주사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불서보내기운동을 벌인다. 同회는 또 군·민 합동법회를 오는 10월29일 저녁7시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에서 개최한다. 이와함께 同회는 10월중에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와 육군 13공수부대 흑표법당에 방송시설비(200만원) 전액과 불서 1000권을 지원한다.

이것이 마음이다.

진심직설(眞心直說) 강의

「禪과 敎를 두루 섭렵하신 無比스님의 강의」

마음, 마음, 마음. 참으로 찾기 어렵구나. 넓히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좁히면 바늘끝도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할 뿐 부처를 구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없으면 온 우주가 텅 비어 아무 것도 없음을 아나니, 누구든 만약 부처가 되고 싶다면 단지 마음만을 구할지니라.

마음, 마음, 마음,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달마대사)

1. 진심직설 강의 테입(90분) 18개 : 4만 5천원
   ※ 아래의 강의 테입도 계속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 지장경 강의 테입(90분) 16개 : 4만원
3. 유마경 강의 테입(90분) 38개 : 7만원
4. 임제록 강의 테입(90분) 26개 : 5만원
5. 증도가, 신심명 강의 테입(90분) 16개 : 4만원

■ 연 락 처 : 전화 (051)515-7870
(609-340)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3-10번지
경전연구실 문수원
■ 온라인 번호 : 부산은행 241-02-001356-2 김 지 애
■ 보 급 : 경전연구실 문수원 대중 합장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앉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법회안내

봉원사 (02)392-3007



◇주지 대운스님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어린이인경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30분
학생회법회 매주일요일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후7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051)403-7077



◇지원장 혜도스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1부법회(직장인)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청년회2부법회(대학생) 매주 일요일 오후5시
대입시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30분
금요법회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특별정진 매월15일(음) 오전11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5시
어린이법회 매주일요일 오전10시30분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목요일 저녁7시30분
아리회법회(여교사 신행회)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6시

상원사 (0374)32-6666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24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임진왜란때 공을 세운 서산·사명대사·기허당등 3대사의 충렬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설립한 표충서원. 1839년(헌종 5) 현재의 위치인 표충사의 경내로 이건하고 '표충(表忠)'이라 사액되어 표충서원으로 개편 되었다.

표충사 사명대사 추모재

사명대사의 호국충혼(護國忠魂)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사명대사추모 5백8회 추계향사'가 2일 표충사 표충선원에서 봉행된다.

표충사(주지 신허)와 밀양시(시장 이상조)가 공동개최하는 이날 향사(享祀)는 매년 봄·가을마다 행해지는 추모법회. 임진왜란 때 민족과 나라를 구한 3대선사-서산대사·사명대사·기허대사-에 대한 추모행장소개와 함께 헌공·헌향·헌화 등이 있을 예정이다. (0527)52-1150

통도사 개산대재·만등불사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한 불보사찰 통도사(주지 월파)는 10일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1300여년전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불사리와 가사, 대장경 400여 함(函)을 봉안하며 창건한 뜻을 기리기 위한 개산대재.

이날 행사는 연고제(제사의식), 영가천도를 비롯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합창단 경연대회, 경로잔치, 만등불사점등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 보은의례(報恩儀禮)와 기념제의 성격을 지닌 이번 의례는 불보사찰의 소중한 의미를 불자들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0523)82-7182

낙산사 철야기도법회

의상스님이 관음보살을 친견했던 천년고찰 낙산사(주지 지홍)는 보타전에서 4일 철야정근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7관음, 32응신상 및 1천5백 관음상이 함께 모셔진 보타전(普陀殿)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에 둘러싸여 도반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정진 수행해보자.

일상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불자들에게 자아성찰과 불심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0396)672-2447

낙동강서 연등대법회

10월12일 낙동강 하구언 을숙도 광장에 아름다운 연등이 핀다. 이날은 바로 부산불자들의 발원과 통일화합을 위한 간절함이 연등에 담겨 낙동강을 수놓게 되는 연등대법회가 열리는 날.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으) 주최로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연등대법회는 예년에 비해 사물놀이, 북춤공연, 민요, 판소리, 우바이무용단의 무용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영산재, 육법공양에 이어 기원법회가 열리고 어둠이 내리는 낙동강에 등을 띄우게 된다. 수륙대재와 유등행사에 축제 분위기를 더한 이 행사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되어 국민화합, 민족통일 발원과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하는 장으로 승화될 것으로 보인다. (051)867-0501

해외포교 전법사 양성

한국불교해외전법회(회장 이치란)는 8일부터 해외에서의 포교와 전법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책임질 전법사를 교육,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영어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해외에서의 포교는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통역과정, 해외사찰에서의 수행경험을 갖고자 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사원에 관한 기본지식과 적응력을 지도하는 해외수행과정 등이 각각 3개월씩 운영된다. (02)741-0495

단풍과 함께 사찰기행

가을을 맞아 향기로운 산사를 찾아 떠나는 수요일의 작은여행이 기획되고 있다. 불교청주방송이 주최한 '수요명찰기행'은 명승고찰과 주변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가을사찰기행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10월 한달동안 단풍이 유명한 백양사 내장사 등을 둘러보게 되는 '수요명찰기행'은 가을의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기행은 1일 강화도 전등사를 시작으로 8일 양산 통도사, 15일 백암산 백양사, 22일 합천 해인사, 29일 내장산 내장사 등으로 떠날 계획이다. (0431)294-5114

근일스님 선덕사서 법문

선덕사(주지 행법스님)는 '극락보전 후불탱화 점안식 및 기념법회'를 8일 극락보전에서 봉행한다.

이번에 점안되는 후불탱화에는 민족통일의 상징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부처님과 한국불교의 법맥을 이어온 역대 고승들의 진영, 천진한 아이들과 연지속에서 함께 노는 부처님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 점안식에 이어 봉행될 기념법회는 '함께사는 불자의 길'이란 법제로 근일스님(부석사주지)이 법문할 예정이다. (062)264-8024

나의 수행일기



강행원 〈화가·민족미술협 대표〉

행자경험 '산문밖 삶' 밑거름

'그림'이 수행방편…연구실에 법당 개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기복불교를 통해 접한 편안함과 집안 종형님께서 출가 사문이 되신 인연으로 불교를 믿는 것은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문이신 종형님께 받은 인격적인 감화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한 원인이 되었다. 스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난 이 나라 최남단의 척박한 고향땅에 사재를 털어 망운중학교를 설립하고 또 혜운사를 창건하시어 몽매한 고향 사람들을 계몽하시고 자신도 열심히 정진하셨다. 그러한 까닭에 그 고장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다. 나는 한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이 큰스님으로 존경하여 왔다.

그러다가 청년기를 맞으면서 출가할 것을 결심하고 스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 그 분이 누굴까? 웬만한 불자님들은 알만한 분이시다. 바로 곡성 태안사 조실이시던 청화 큰스님이시다. 당시 스님은 해남 대둔사 진불암에 계셨다. 스님께서는 완강히 반대하셨으나 같이 수행하시던 도반스님들이 허락하여 어렵사리 행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청년기의 한때 출가 사문에 몸담은 편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러한 나의 편력은 인생문제에 대한 진정한 자기성찰을 통한 분명한 발심은 아니였던 모양이다. 단지 한 인격에 감화된 인연이었으므로 세속적인 성취동기의 미련 또한 불씨로 남아있었다. 그 불씨가 지금 화가인 필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출가의 길은 생사의 문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을 지닌 수승한 길이며,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연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은 인간 일대사에서 가장 큰 행운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훌륭한 법 속에 묻혀사는 동안 정작 그 깊은 묘리를 모르고 있었다. 아마 물건의 주인이 그 물건의 귀중함을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품안에서 다른 세속적인 욕망이 불타고 있었다.

이러한 회고는 30여년 전의 일이다. 나는 그 불씨를 안고 도반들과 함께 큰스님을 따라 다 쇄락한 곡성 태안사에 머물면서 6·25 때 타버린 대웅전 중수불사에 힘을 보탰다. 그 때 저녁에는 간경을 하고 새벽에는 참선을 하였으며, 낮에는 법당 중수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나는 잠시라도 틈만 나면 쓰고 그리는 것이 불사보다 더 큰 일이었다. 한번은 큰스님께서 은밀히 불러 말씀하시기를 "수행자가 道를 통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다행히도 인간의 몸을 받았으니 반드시 금생에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이것을 방일한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다"고 하셨다.

그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미래의 숙제일 뿐 필자는 사바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말씀은 사바생활의 오욕으로 호화롭게 몇 껍질씩 잘 포장된 인격의 이목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가 오욕을 여읜 포장지 밖에 있는 인격과 닿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후 잠깐의 외도가 업에 얽힌 지금의 이 모습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큰스님의 말씀과 부처님에 대한 향수는 조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그 곁을 떠나 있을수록 더욱 간절하였다. 참으로 영원한 절대자유는 지식으로 포장된 모양이나 간판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들은 오히려 참지혜의 이목을 옭아매는 그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영생의 道! 장부의 몸으로 도전해 볼만한 큰 욕심을 감당하지 못한 이 불운한 사나이는 재수라도 하듯이 연구실에 법당을 마련하고 늘 예불하며 불법에 눈뜨게 하신 큰스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신행의 한 부분이다.

게시판

♣ 알림

△자원봉사교육=팔공산 동화사 부설 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스님)는 4일부터 25일까지 관오사법당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 (053)427-1907

△알뜰장=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17~18일 치매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은행골 알뜰장'을 연다.

♣ 모집

△간병인 교육=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함께 주부·준고령자를 위한 간병인교육을 갖는다. (02)203-3677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과정=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제8기 2급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02)738-7860

△합창단·무용단원=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은 11일까지 소년소녀합창단(20명)과 무용단원(1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까지의 남녀학생. (02)725-7527

♣ 강좌

△교양대학=봉원사는 불교교양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불교학 개론, 초급일어, 경전강독 등 수업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2시. (02)392-3007

△수화교육=대한불교 한누리포교회(회장 박인철)는 수화통역사 시험에 대비 수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회비는 5만원 (02)738-5973

△불교경전 및 예절=마하연포교원(원장 일지스님)은 불교경전 및 불교예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3개월과정이며 수강료는 6만원(교재비포함) (032)523-9911

△불교원전=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불교원전 연구과정 수강자를 모집한다. (02)765-9602

△메이크업=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7일부터 2개월과정 메이크업강좌 개설. 매주 화·목 10시30분~12시까지. (042) 633-1141-3

♣ 답사

△신라역사탐방=(사)신라문화진흥원(원장 진병길)은 18~19일 양일간 대왕암, 기림사, 감은사지 일대서 신라역사 탐방을 실시한다. 모집정원은 40명이며 회비는 4만원. (0561)746-1950

♣ 법회

△교직원법회=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도업)은 9일 교직원법회를 실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박성배석좌교수의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선사상의 본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0561)770-2016~7

△박완일법사 초청=박완일법사 초청 10월 다보법회가 1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최된다. (02) 703-0108

♣ 화촉

강성식 전국불교운동연합 교육연구실장이 이선경씨(봉은사 종무원)를 신부로 맞아 19일 2시 봉은사에서 화촉을 밝힌다.

독자와 함께 만듭니다

법회·모임·전시회·결혼·모집·강좌·인사 등 알리고 싶은 행사내용과 사진 독자제보 의견을 보내주시면 지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전화 722-4162
팩스 737-0698
우편접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팔공산 은해사 9월 보살계 철야정진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온 세계가 법당 아닌 곳이 없으며 지혜와 자비 발원하는 자,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불의 길 열려 있습니다. 이슬을 녹이듯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녹여 줄 것입니다.
팔공산 은해사는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과 원효, 일연, 설총 삼성현(三聖賢)의 상주도량입니다. 은빛같이 온 산하를 뒤덮고, 법의 진리가 합께하여 바다물결이 충만한 듯 은해(銀海)의 불법(佛法)이 살아 숨쉽니다. 신라때 명산대찰의 하나이지만 유수천년에 먹구름 지나가고 작은 햇빛의 서운이 도래하여 산내 비구, 비구니 선방과 조계종 교학의 최고 학부인 승가대학원에서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보배이신 동곡 일타 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교계 대덕스님들을 3사 7증으로 모시어 보살계 설계의 대복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꼭 동참하시어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1년 9월

三 師
전계대화상 東谷日陀
갈마아사리 應然尙兆
교수아사리 如天無比

七 證
法融智霞 (승가대학총장)
靑庵法祖 (고운사 주지)
中和法陀 (은해사 주지)
抱山慧印 (약천사 주지)
包雲性眞 (청곡사 주지)
錦牙慧國 (남국 선원장)
一霞無空 (동화사 주지)

일 시
2541년 10월 11일 (음 9. 10) 토:15:00 ~
10월 12일 11:00 (1박 2일 철야정진법회)

장 소
팔공산 은해사 금강계단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보살계 동참금
2만원

문의전화
은해사 (0563)35-3318~9
서울 평불협 (02)735-5558~9
은해사 교구 각 말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 해 사 주지 中 和 法 陀 합장

"보살행의 삶 엿보기"

극단 작예모 '보리피리', 한하운시인 일대기 조명

2일~11월2일 혜화동 연극실험실

…/돌이/ 무심한 돌부처가/ 그처럼/ 피가 돌아 생명을 훈길 수야 있을까
갈수록 다정만 하여/ 아 문둥이 우는 밤
번뇌를 잃고/돌부처 관세음보살상/ 대초월의 열반에/ 그리운 정 나도 몰라
세세 생생/ 귀의하고 살고 싶어라
〈한하운 작 '관세음보살상' 중〉

문둥병이라는 더할나위 없이 비참한 천형의 삶을 살았지만 절망과 방황 좌절속에서 끝내 아름다운 시를 피어낸 시인 한하운(1919~1975). 문둥병으로 인한 처참한 삶의 혹독함에도 굴하지 않고 삶을 시로 승화시켰을뿐 아니라 나병환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등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한 보시의 삶을 살았다. 이 한하운 시인의 생애를 극화한 '보리피리'가 불자들로 이루어진 극단 작은예술사랑모임(작예모)에 의해 무대에 올려진다.

2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한달동안 동숭동 연극실험실혜화동1번지(02-763-6238)에서 공연되는 연극 '보리피리'(최문정 작 김운기 연출)는 한하운시인의 격정적인 생애를 통해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같은 삶을 형상화했다.

어려서부터 문학 음악 미술 운동 등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온 한하운. 그러나 그는 중 5학년때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운명적 시련을 겪기 시작한다. 그는 문둥병 거지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갖은 고통을 당하고 좌절의 삶을 살게된다. 가장 밑바닥 고통에 빠져 있던 어느날 한 스님을 만나 '부모미생전 본래진면목(父母未生前 本來眞面目'이라는 말을 듣고 번개같은 것이 머리를 때리는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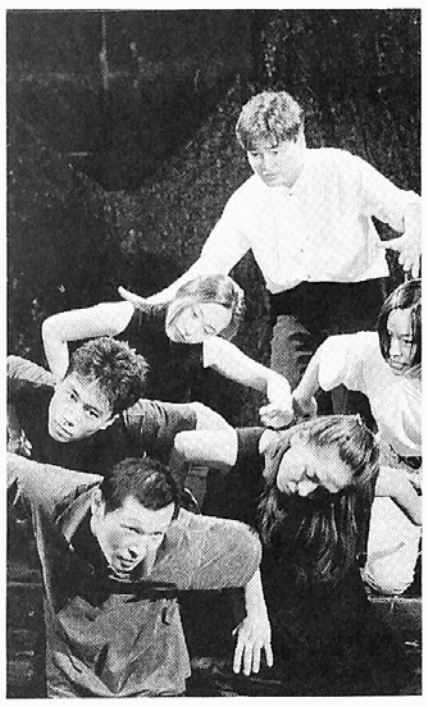
'나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의문이 솟으면서 고름이 나고 더러운 이 몸뚱아리가 나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다.

"생애 당시의 격동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또 문둥병이라는 이중고를 지니고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한하운의 자아를 찾는 정체성의 끊임없는 추구, 타인을 위한 보살행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출을 맡은 김운기씨는 이 연극이 연극계 최초로 합성연극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합성연극이란 희곡위주의 극이 아니라 무대셋트와 음악, 연기, 대사, 몸짓 등이 각각 나름대로의 고유 이미지를 띠면서 서로 혼연일체가 돼 '살아있는 공간성'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입체극을 말한다.

지난 7월부터 '보리피리' 연습에 들어간 작예모는 매주 1차례씩 방배동 광명선원에서 초격스님으로부터 참선지도를 받으며 연기를 완성시켜 왔다.

이경숙 기자



◇시인 한하운의 삶을 통해 자아를 찾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연극 '보리피리'의 한 장면.

불심시심 〈101〉

가을은 비단 궁전

山中秋正好 (산중추정호) 산 속은 가을이 정히 좋아
木葉間青紅 (목엽간청홍) 푸르름 붉음이 반반인 나무
醉面霜疎雨 (취면점소우) 취한 낯을 가랑비가 적시고
衰鬢刷晩風 (쇠빈쇄만풍) 쇠잔한 귀밑머리에 늦바람 날린다
誰懸雲錦帳 (수현운금장) 누가 그름 비단 장막을 드리워
人在紫羅宮 (인재자라궁) 사람들 붉은 비단 궁전에 있네
絕勝春花色 (절승춘화색) 봄 꽃의 색깔보다도 뛰어난 계절
神功賴化翁 (신공뢰화옹) 이 신통한 공력은 조화옹이 빌린 것이지

위 시도 오암(鰲巖)대사의 시이다. 제목은 '가을 잎(秋葉)'이라 제한 시이다. 가을 잎은 단풍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이는 주변에 널려있는 소재이기에 누구에게나 흔하게 선택되는 제목이다. 더구나 산사가 일상의 거처인 스님들에게야 더더욱 흔한 소재이다. 그러나 아무리 흔한 소재라 하더라도 흔한 느낌이 안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시인의 묘수인 것이다. 그것은 단풍이 고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히려 푸르름에 섞여 있는 붉음이 있어 더 붉어 보이는 것과 같다. 이 시에서도 이 점에 착안하여 시상을 이끌어냈다. 이점이 이 시를 시로서 어울리는 구성을 갖도록 하였다 하면 지나침일까.

성근 비인 가랑비나 해저녁의 늦바람이 꼭 가을이어서만이 어울리는 소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쓸쓸함으로 인상지워지는 가을의 시에 등장하기는 역시 격에 맞는 소재이다. 이러한 가랑비가 취한 낯을 적신다 했다. 이 취한 얼굴의 주인공은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산길을 걷는 나그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풍이 주소재가 된 이 시에서는 오히려 이 단풍 자체를 취한 얼굴로 대유한 것이라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이 오히려 시인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댓구의 쇠잔한 귀밑머리가 단풍에 섞여 있는 나그네의 쓸쓸함을 보다 더 두드러지게 이해하는 바른 감상일 것이다.

이 비단 숲은 구름 비단의 장막이다. 누가 달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음은 다음 구의 신비성을 예비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비단 궁전이다. 봄꽃보다도 아름답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결국 조화옹의 신령한 힘이다. 이 힘을 자연의 조화로 보는 것 또한 자연 추구의 진실된 자세이고, 이 자세가 선가에서의 선리 추구와 서로 연관이 있다 할 때, 선사의 선리적 시로 돋보이기도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화제의 전시



◇ 청원스님作 '백의관음상'(부분).

불교조각 30년 '첫 나들이'

청원스님 조각전 7일까지 공평아트홀

30년동안 불교조각일에 매진해온 청원스님(부산 금강불교조각연구소 대표)이 1~7일 공평아트홀에서 제1회 조각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에는 스님의 조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석가모니불상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 탄생불 동자상 등 대작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가 눈길을 끄는 것은 불상의 가사. 불상의 가사에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을 그려넣어 정교하게 그려진 가사는 손으로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감각적이고 입체적이다. 또 그 문양에 금박을 입힘으로써 전체적으로 불상의 금색과 잘 조화를 이루며 불상의 품위를 한층 장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원스님은 "오늘의 불교미술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새로운 창작품을 찾기보다는 주로 전통에 안주하기 때문에 정체된 느낌을 주고 있다"면서 "전통과 현대미술을 접목 융화시킨 이번 전시회가 불교조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조각외에도 '달마가 전한 뜻은' '업경대' '만다라' '바루' 등 현대적인 이미지의 조형작품들도 출품된다. (051)972-3912

제1회 종교예술제 "종교화합 기틀"



◇'97 종교예술제 개막식 참석자들이 미술관에 전시된 김영원씨의 조각 '절하는 사람'을 감상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우리나라 대표 종교들이 참여하는 97 종교 예술제가 9월 23일 오후 6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됐다. 개막식에는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홍인곡 태고종총무원장, 정진석 한국천주교교회의장 최훈 한국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등 각 종교인들과 송태호 문체부장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개막식후 참석자들은 미술관에 전시된 윤상민씨(한마음선원 심공회 회장)의 서예 '한산스님 선시'등 작품 85점을 감상했다.

종교예술제는 음악제(23일)에 이어 세미나(24일 · 프레스센터) 영화제(29~10.1 · 호암아트홀)가 각각 개최됐다.

문화소식

진주불교회관 기금조성 불교음악제 '성황'

가을을 맞아 진주불교회관이 9월 28일 저녁 6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보광스님 초청법회및 제4회 불교음악제'를 개최했다. 진주불교회관 건립기금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 1부는 '불교인의 바른 수행자세'를 주제로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이 법문했다.

제2부 음악제는 연화사 호국사 연화합창단, 도신스님, 지범스님, 정률스님과 지연스님 등이 참여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 등 찬불가를 선보였다.

중광스님 신작展

사진을 오브제로 한 '산' 연작 시리즈 등 중광스님 초대전이 청담동 미화랑(02-3443-4867)에서 8일까지 열리고 있다. '파격과 도전'으로 잘 알려진 중광스님의 자유분방한 필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먹의 흡뿌림을 이용한 수묵채색화와, 동심을 표현한 간결한 선화 등 스님의 신작 30점을 감상할 수 있다.

목아박물관 소장품전

인천시 부평구청은 오는 15일까지 구청 2층 전시실에서 목아박물관 소장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박찬수씨의 동자상조각을 비롯 사리용구 등 불교관련 작품과 유물등 총 1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032)509-6125

심무용씨 전각초대전

불자 전각가 심무용씨의 전각초대전이 12일까지 부산 아트하우스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다. 새와 피라미를 주제로 한 이번 전각전에서는 심씨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나타내는 4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제2회 찬불가 가요제

불교대중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2회 대한불교 찬불가요제가 7일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민족종교예술연예단이 주관하는 이번 가요제는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경연을 벌인다. (051)529-6188

문화재소식

묘향산 유물·유적 5430점 보존

'민주조선' 최근호 소개

북한에서 발간되는 〈민주조선〉 최근호는 '묘향산의 역사유적 유물' 기사를 통해 역사유물·유적복구사업으로 묘향산에는 보현사를 비롯 총5천4백30여 점이 보존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묘향산에는 해방직후 보현사를 비롯 고찰 50여동, 탑 5기, 불상 1백1구, 불화 84점, 팔만대장경 1천1백59권, 불경목판 4천2백96매, 고서 2천7백10권, 불교의식 및 생활도구 1백49점 등이 산재해 있었다. 북한은 1976년 보현사 대웅전을 비롯 1979년 만세루 등 경내 부속건물들을 복원했다. 특히 수충사 앞에는 김일성의 지시로 '팔만대장경 보관고'를 건립, 총 1천1백59권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다.

삼화사 철불·석탑 문화재 지정 신청

삼화사 철불(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2호)과 3층석탑(문화재자료 제113호)의 국가문화재 지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해시는 10일 황수영박사 등 학계 권위자들의 의견서를 첨부, 삼화사철불·3층석탑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을 道문화재위원회에 신청했다.

시 · 공 · 사 · 의 · 불 · 교 · 책 · 들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환 지음/328쪽/값 6,500원

물음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도 이제 좀더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알기 쉽게 쓰고자 한 것이
오히려 현문우답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진지한 물음
그 자체만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기로 했습니다.
물음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돌려 답을 구하다 보면
묻는 사람 자신이 어느덧 백팔고개를 넘어
부처님 도량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쌓아 부처님 되십시오.
—— 계환 스님이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불교 길라잡이
곽철환 지음/값 18,000원

미리래빠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 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형기 지음/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지음/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최세만 옮김
/값 5,000원

갖고 싶은 경전 시공 불교경전

시공 불교경전은 현대적인 해석과 감각있는 편집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형식의 경전입니다.

1 유마경
장순용 풀어 옮김 / 값 12,000원
한 편의 연극 같은 유마힐의 설법

2 법화경 1·2
이연숙 풀어 옮김 / 값 각권 12,000원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

시공 불교경전은 계속됩니다

역경-불교대중화 '同行'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판 35주년

세미나 등 열어 새 불교진흥의 길 모색

보급 기대 못미쳐…가로쓰기등 보완 필요

9월 26일 저녁 6시, 한글의 날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가 종로 대각사에서 열렸다. 다름아닌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판 35주년 기념법회'. 지난 60년대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단행본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번역출판을 이끌어냈으며 지금은 교계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 원로회원(?)들이 마련한 행사다. 이날 법회에는 당시 편찬위원이었던 석주, 일타스님 등 원로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이 책과 인연있는 여러 불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기념법회에 이어 35년전 당시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대행직을 수행하며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김지견박사가 '남북통일과 화쟁사상'을 강연했다.

김박사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은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큰 가르침"이라면서 "35년전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일궈냈던 그 초발심으로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굳은 신심으로 노력한다면 남북통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각 신행단체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불교진흥의 길' 세미나에서는 역경과 인재양성등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불교포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등이 논의됐다.

경지적,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불교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젊은이들이 신심하나로 일구어낸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간은 우리 불교역사상에 있어서 일대 사건이었다. 이 책의 출간이후 〈불교성전〉등이 나왔고, 경전 번역과 불서 발간등이 연이어 추진됐다. 2년 뒤 본격 추진되어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 팔만대장경〉역경사업도 이 책 출간이 계기가 됐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번역사업은 6.25이후 흩어져 있는 우리국민의 정신을 한데 모으고, 현대인들에게 불교사상을 전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책 하나 없어서 고민하던 그 시절, 우리 청년불자들이 똘똘 뭉쳐 여러 큰스님과 박사님들의 힘을 빌어 펴낸 것이 〈우리말 팔만대장경〉입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출간시 대한불교청년회 총무를 맡았던 이호식씨(한국불교실업인회 회장)의 회고이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62년 5월 대한불교청년회가 추진해 위원장 권상로 박사, 부위원장 운허스님과 김동화박사를 중심으로 한 23명의 편찬위원회가 1년만인 63년 6월에 번역출간했다.

당시 불교계의 내로라 하는 학자 23명이 1년 걸려 번역한 이 책의 출간을 앞두고 불교계 여러 학자들이 모여 불교용어표기법에 대한 활발한 토론작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제1편에서 부처님의 일대기 제2편 아함경 제3편 방등경 제4편 반야 계율부 제5편 법화열반부 제6편 화엄부로 나눠 구성돼 있다. 또한 별책부록으로 〈불교유통사〉를 발간,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건너오기까지의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해 색인까지 첨가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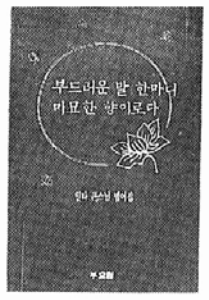
초판이 법통사에서 출간된 후 지금은 국민서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책은 그러나 보급에는 그다지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해 지금까지 약 5천부 정도가 팔려나갔다.

따라서 〈우리말 팔만대장경〉 출간 35주년을 맞아 세로쓰기로 되어있는 기존편집을 가로쓰기로 전환하고, 당시의 고문체에서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읽고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은자 기자



화제의 책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삶의 길 제시

부드러운 말…

일타스님 지음

불법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문을 열고 들어서야 한다. 그렇지만 알 듯 모를 듯 쓰여진 큰스님들의 법문집들을 읽다보면 법문(法門)에 들어서는 일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낀 불자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불자들을 위해 일타스님이 펴낸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는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쉽고도 명확하게 펼쳐놓았다. 가까이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많은 불자들을 위해 출간된 이 책 속에는 불자들의 삶의 지표에서 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방법, 밝은 삶을 여는 계율, 화두드는 법, 해탈수행법,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큰 삶의 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스님은 이책에서 쓸데없는 망상을 버리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참된 '나'를 찾으라고 불자들에게 말한다.

〈효림출판사 5천원〉

조각가 강대철씨 산문집에 담은 '세상의 그리운 것들'



'오온(五蘊)' 연작, '화두를 놓친 비구니' 등 불교의 세계관에 기초한 작품을 선보여 온 조각가 강대철씨(50)가 산문집 〈세상의 그리운 것들〉(한길사 刊)을 펴내 화제다.

이 산문집은 강씨가 지난 82년 경기도 이천 장승백이로 생활터를 옮긴 후 그곳에서의 15년 삶이 가져다 준 경험과 사유의 기억들을 편안하게 풀어낸 것.

채송화씨 발기를 통해 배운 자연의 섭리, 토담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 발견이 주는 경외감과 화롯불, 아궁이 등 우리 생활에서 점점 사라져 잊혀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자연적 생명력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질타도 담았다. 또 우리 생활 곳곳에서 제각각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갖가지의 생명체와 사물들이 결국은 모두 하나라는 그의 '끼리끼리생명법칙'은 불교의 세계관 생명관과 깊숙히 맞닿아 있다.

강씨는 "예술가로서 명예 물질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정신적인 성공까지 거두지 못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유유자적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이곳 장승백이로 옮겨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 장승백이로 왔을 때 이미 황폐해진 정신을 추스려 자신을 바로 찾는 일이 여간 쉽지않다는 마음의 법칙을 제일먼저 깨달았다고.

이 책은 오랜동안의 명상과 채식을 통해 투명한 삶이 주는 기쁨과 아무것에도 걸린바 없이 살고자 하는 조각가 강대철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은〉

문학계간지 마다 불자문인 신작

가을을 맞아 발간된 문학계간지들이 고은시인등 불자문인들의 신작을 비롯 이형기, 박상륭씨 등을 집중조명하고 있다.

계간 〈시와시학〉은 '시와 시인을 찾아서'에서 최근 중국을 다녀온 이형기 시인의 창작 자세와 그의 사상을 고스란히 해부하고 있다.

〈문학동네〉는 '고아' '저녁' '친구' 등 지난 히말라야 여행이후 더욱 농익은 불교적 정서를 물씬 풍기는 고은 시인의 신작시를 실었다.

〈작가세계〉는 영화 '유리'의 원작자로 유명한 〈죽음의 한 연구〉의 저자 박상륭씨의 문학세계를 분석했다. 1975년에 발표됐던 이 책은 최근 두권으로 된 개정판도 나왔다.

'자장암에서' '인연2' '희망'등 뇌성마비 장애인 최명숙시인의 불교적 시세계는 〈숫대문학〉에서 집중조명했다.

이밖에도 〈월간 문예2000〉에서는 중국현대문제단편 특집을 마련, 티벳을 배경으로 그들의 불교문화속에 녹아든 인물들의 고뇌와 방황을 그려낸 짜시타와의 〈가죽끈에 매달린 혼〉을 실었다.

만화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

'붓다로 가는 수행' '법화경이야기' 등 3권 선보여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만화를 표현매체로 보다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 '재미있는 불교만화시리즈 108'권 가운데 1차분 〈붓다로 가는 수행-포교편 1〉 〈붓다로 가는 수행-지계편2〉 〈법화경이야기1〉등 3권이 출간됐다.

도서출판 진흙소가 펴낸 이 시리즈는 일본 불교사상가 히로사찌아의 원작에 여러 일본인 만화가들이 그린 만화를 번역발간한 것.

교리 경전 역사 불보살 선 밀교등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선별, 각 권마다 하나의 테마를 깊이 파고들어 불교 가르침의 진수에 다가갈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108권 시리즈가운데 마지막으로 발간될 우리나라 유명사찰의 창건설화와 역사이야기는 번역이 아닌 자체제작으로 선보이게 된다.

이 시리즈는 만화라는 대중적 매체의 장점을 바탕으로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에 총해석도 달아놓았다.

도서출판 진흙소는 이번 1차 발간에 이어 앞으로 2년여에 걸쳐 108권 전권을 번역 발간하게 된다.

"새옷입고 외출"

지묵스님 글모음집 '죽비깎는 아침'



지묵스님(송광사)의 글모음집 〈죽비깎는 아침〉이 우리출판사에서 새롭게 출간됐다.

송광사에서 출가한 스님의 수행생활 이야기와 고승일화 등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이미 7년전 세종출판사에서 출간돼 널리 읽혀왔다. 이것을 우리출판사가 판권을 사들여 스님의 미국에서의 생활이야기등을 첨가하고, 편집도 새롭게 바꿔 선보였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3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림
4	원효	고 영 섭	한 길 사
5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6	인연(작은책)	서 정 주	민 족 사
7	백팔고개넘어 부처되기	계 환	시 공 사
8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변 선 환	한국신학연구소
9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10	하늘호수로 떠난여행	류 시 화	열 림 원

구입문의:(02)737-0695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아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 설해집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582~6612 팩스 : (02) 586~9078

'무구정광경' 직지심체요절 最古說

서구학자들도 인정

유네스코 한국위, '고인쇄문화' 국제 심포지엄

佛 마르땡교수 "한국등 극동서 인쇄술 유럽 전파"

中 반길성교수 금속인쇄 원조설 도 주장 '새불씨'

올해 초 중국이 〈무구정광경〉의 '낙양 제작설'을 주장해 한·중간의 인쇄술 원조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9월29일~10월2일 양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한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무구정광경〉 제작지를 둘러싸고 한·중간에서만 공박돼 온 인쇄술 원조 논쟁이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검증 받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편집자 주〉

한국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국보126호 이하 〈무구정광경〉)과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심경)은 징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금속활자 인쇄물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 등이 공동 주최한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마르땡교수(소르본느대 역사문헌학)가 '한국 원조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것은 현존 최고(最古) 인쇄본인 〈무구정광경〉의 제작지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공박이 치열했던 인쇄술 원조(元祖) 논쟁이 슈테판 퀴셀 독일 마인츠대 구텐베르크연구소 소장, 반길성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교수,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내로라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검증을 받게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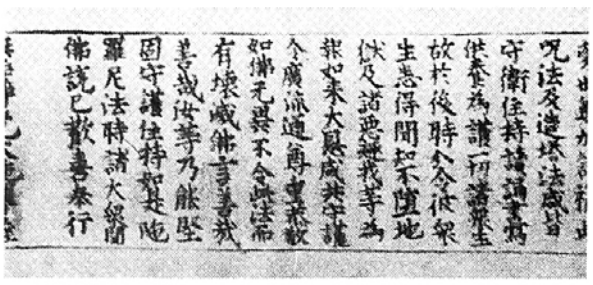
마르땡교수는 '유럽에서의 활자 인쇄의 출현과 보급 및 영향 : 극동 인쇄사와의 비교 연구적 소고'에서 "극동 인쇄술의 역사에서 한국의 우선성을 인정해야 하며 실크로드의 귀착점인 독일의 구텐베르그에서 유럽의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극동 인쇄술의 영향"이라고 말해 한·중간의 인쇄 원조 논쟁에서 한국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성래교수(외국어대 과학사)도 '인쇄기술사의 6가지 쟁점'에서 "〈무구정광경〉이 중국에서 인쇄된 뒤 한국에 유입된 것이라는 중국측 주장은 당나라 측전무후가 새로 만든 글자들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라가 695년 측천무후의 역법개혁을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문헌에 남아있는 만큼 측천무후가 만든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무구정광경〉이 낙양에서 제작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중 인쇄술 원조 논쟁의 주인공인 반길성교수는 "7세기 초 인쇄된 다라니와 702년 낙양에서 제작된 〈무구정광경〉 등이 중국의 목판 인쇄 기원"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인쇄술 원조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욱이 반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도 〈직지심경〉이 아니라 1315~1333년 중국에서 제작된 〈어시책〉(御試策)"이라고 주장해 금속활자 인쇄술 기원 논쟁도 일어날 조짐이다.

이에 대해 천혜봉교수는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달과정'에서 "중국에서 금속활자인쇄를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명나라의 15세기 〈금수만화곡〉(錦繡萬花谷)"이라고 지적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중국보다 2세기 앞선다며 반교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종욱 기자〉



◇인쇄시기를 둘러싸고 한·중학계의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무구정광대 다라니경〉

업설·계율 "삼국시대이후 법사상 뿌리"

정기웅교수 '불교와 법률문화' 첫 연구



1600년전 한반도에 유입되어 역사와 맥을 같이 해온 불교. 그동안 정치·사회·문화 등의 각 방면의 주요 가치관으로 자리매김 했던 불교가 우리나라 법률제정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었을까.

정기웅교수(국립경찰대 법학과)가 9월1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국불교문화예술제 국제불교학회의에서 '불교가 한국의 법률문화에 미친 영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업설(業說)과 계율(戒律) 사상 등 불교가 삼국시대 이래로 한국 사회 질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삼국시대 국민의 신앙과 사상을 지배한 것이 불교이므로 법률문화도 선업과 계율사상을 적극 수용했다"며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용서와 관대함을 기본정신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국시대는 국민 스스로 '신도 5계'와 같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예를 들면 신라 진흥왕은 팔관제(八關祭)을 적극 권장해 국민들이 사회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팔관제란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등 여덟가지 계율을 한달에 여섯 번 지키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 또 고구려 소수림왕은 미결죄수의 옥고를 염려하여 판결을 지체하지 말 것을 명했다.

정교수는 "불교사상을 수용했던 우리의 법률문화는 계도와 준법을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며 "이것은 고려·조선·현대에까지 법률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21세기 교육개혁 불교사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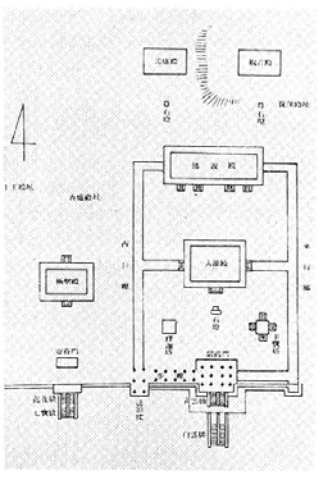
동대 송석구총장, 국제불교대학협의체 '제안'

21세기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의 다양성과 종합성이며, 이것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회삼귀일'(會三歸一) 등의 불교사상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9월19일 일본 북해도 고마자와대학에서 열린 제4회 불교·철학대학학회연수회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은 '한국불교계 대학이 지향하는 대학상'에서 "현재 학습자(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모하는 교육계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선 교육의 다양성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교육 개혁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다양성이란 결국 현상계(現象界)의 평등성을 존중하고 깨달음을 얻게하는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석구총장은 "한·중·일을 비롯한 국제적인 불교계 대학 협의체를 구성해 21세기를 교육개혁에 대응하자"며 동국대에서 10월중 제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50여개 종파 불교로 구성된 일본 불교계가 대학교육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고찰할 것을 제안했다.



◇청운교~대웅전까지의 석가정토와 칠보교~극락전까지의 아미타정토가 대칭되어 있다.

"불국사가람 인간중심 배치"

강우방관장 밝혀

우리의 대표적 문화유산 경주 불국사. 불국사 정면 가운데 범영루의 오른쪽 '석가정토'는 왜 왼쪽의 '아미타정토'보다 훨씬 더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만들어졌을까.

불교미술사학자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이 논문 '불국사 건축의 종교적 상징구조'를 통해 불국사 구조에서 불교적 인간관을 밝혀내 주목받고 있다.

석가정토는 청운교에서 대웅전까지의 공간으로 석가여래의 사바세계를 뜻하고, 아미타정토는 칠보교에서 극락전까지의 공간으로 아미타여래의 극락정토를 뜻한다.

강관장은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보다 더 장엄하게 표현한 것은 사바세계에서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것이 아미타여래에 의지해 깨달음을 얻고 극락으로 가는 것보다 더 고결하다는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면 회랑구조에 대한 탁월한 관찰에 바탕을 둔다. 석가정토회랑의 경우 맨아래 불규칙한 석조물만이 기단이고 그 위의 정교한 석조물은 기단이 아니라 하나의 층이며 전체적으로는 2층구조가 된다. 반면 아미타정토회랑의 석조물은 두전체적으로 단층고조 결국

'석가 정토' 회랑 '아미타 정토'보다 넓고 더 화려 스스로 깨침 '중시'

석가정토회랑을 2층으로 하고 아미타정토회랑을 단층으로 함으로써 석가정토를 더 고결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강관장은 "석조물과 목조물의 절묘하고도 아름다운 조화, 불교사상의 완벽한 구현. 이것이 바로 불국사 건축의 본질"이며 "절대자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르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한 석가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건축물"이라고 평가했다.



석굴사원 불교 미술품 30여점 그래픽 제공

돈황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금세기에 발견된 불교 유적중 경전, 미술, 문학의 보고를 꼽는다면 단연 돈황(敦煌)일 것이다.

돈황은 366년부터 서하가 멸망할 때까지 중앙아시아의 여러 왕국에서 건너온 승려와 포교사들의 머문 거대한 불교 도시. 현재 남아있는 돈황 유적은 천불동(天佛洞)으로 불리는 수많은 석굴사원이다.

'돈황' 사이트는 석굴사원의 불교미술품 중 30여점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한다.

이중에는 석굴 275호의 '시비왕본생담'은 돈황의 초기벽화(422~439)로 석가 전생의 희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도식화된 안면의 강한 명암이 인상적이다. 당대(8세기) 부처님이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257호 석굴의 '므리가 자타가'도 볼 수 있다. 또 사천왕상(석굴 55호), 천문도(天文圖, 석굴 322호) 등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270여개의 석굴의 석벽에 4천여번이나 그려진 '압사라스'(Apsaras) 중 대표적인 벽화 25점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놓고 있어 '압사라스'의 변화도 살필 수 있다. '압사라스'는 고대인들에게 자유 평화 행복의 상징이었다.

http://www.lzu.edu.cn/dunhuang/

국제 소식

'캄' 스님 3백여명 '평화행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9월22일 캄보디아 승려 3백여명이 참여한 평화행진이 전개됐다.

10여개의 캄보디아 비정부 단체들도 동참한 이번 평화행진은 지난 8월 시하누크 캄보디아 국왕이 시엠 립(Siem Reap)의 사원에서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훈센총리에게 '내전 종식과 평화'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편 훈센총리는 시하누크 국왕의 제안을 거절해 캄보디아의 우기(雨期)가 끝나는 10월부터 내전은 재기될 전망이다.

泰 불교계 "경제를 살리자" 법회

태국 불교계는 20일 경제위기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국 3만여 사찰 27만여명의 승려들이 참가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법회를 봉행했다.

태국인의 정신적 지주인 불교계가 통화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행사를 갖기는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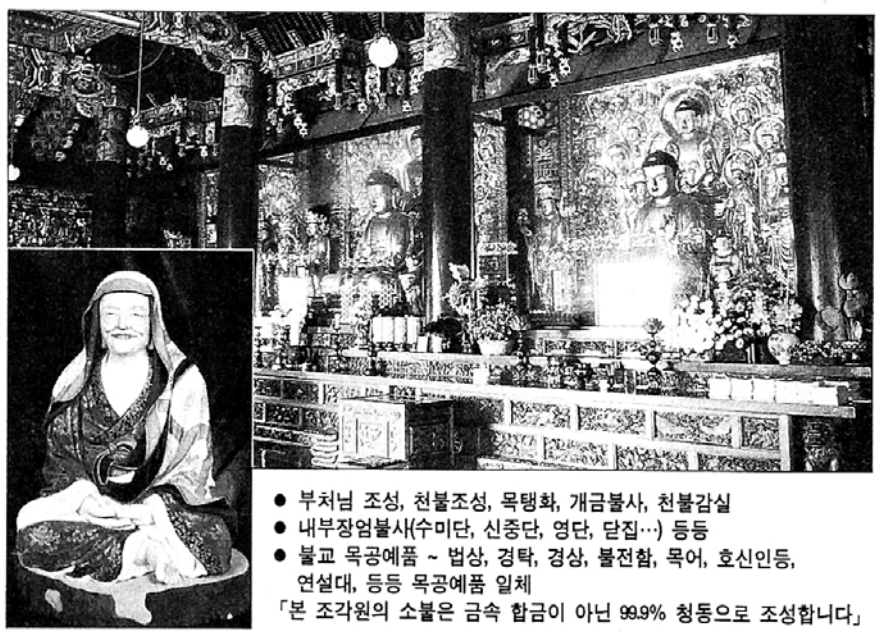
러시아의회 '신종교법안' 통과

기독교를 억압하는 '신종교법안'이 9월19일 러시아 의회를 통과해 향후 러시아에서 기독교의 합법적인 포교활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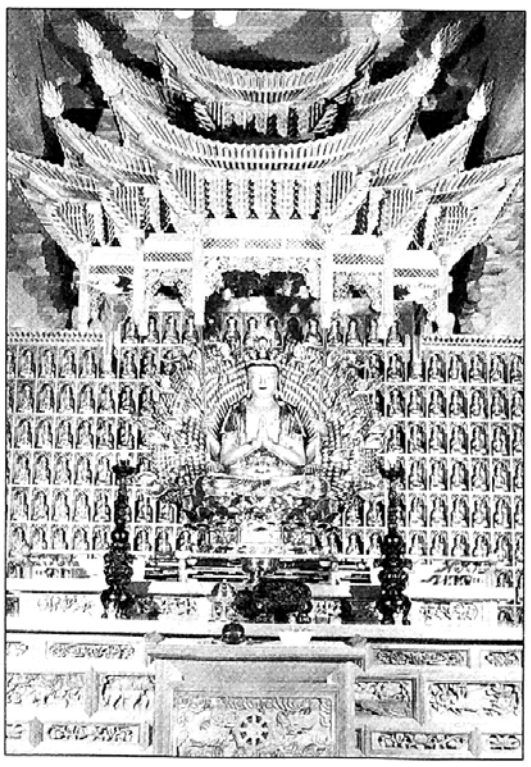
신종교법안의 주요내용에는 신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와 가톨릭 등에 대해서 '강제 등록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들은 러시아에서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도 있어 한국불교 포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한 형 조

무문관 답방

23

국사의 혓바닥

*국사가 시자를 세번 불렀다. 시자는 세번 대답했다. 국사가 말했다. "내가 너를 저버렸다 하겠지만 실은 네가 나를 저버린 것이다."

*나 혜개가 말한다. "국사는 세번 불러 혀가 땅에 떨어질 지경인데, 시자는 세번을 수긋수긋 대답했다. 국사는 나이가 들어 고적한 마음에 '소머리를 눌러 풀을 먹게' 하였는데, 시자는 이를 받들지 못했다. 좋은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법이다. 그럼, 말해보라. 어디가 시자가 저버린 곳이냐. 나라가 맑으면 재사들이 높임받고, 집안이 부유하면 아이들 버릇이 없어진다.

*송하여 가로되, 쇠칼을 구멍도 뚫지않고 머리에 쓰라 하니, 자손에게 미치는 누(累)가 심상치 않다. 문을 받치고 집을 버티고자 한다면 다시 맨발로 칼산을 올라야 하느니.

國師三喚

國師三喚侍者. 侍者三應. 國師云, 將謂吾辜負汝, 元來却是汝辜負吾. 無門曰, 國師三喚舌頭墮地, 侍者三應和光趂出. 國師年老心孤, 按牛頭喫草, 侍者未肯承當, 美食不中飽人飡. 且道. 那裏是他辜負處. 國淸才子貴, 家富小兒嬌. 頌: 鐵枷無孔要人擔, 累及兒孫不等閑. 欲得撐門幷戶, 更須赤脚上刀山.

국사(國師)는 황제의 스승으로 국가의 벼슬을 받은 고승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이 역사상 한둘이 아니겠지만 선종의 전통에서 '국사'라 하면 단 한 사람 육조 혜능(慧能)의 제자인 남양(南陽)의 혜충국사(慧忠國師 ?~775)라 알면 틀림없다. 혜능의 법을 얻어 등주(鄧州)의 백애산(白崖山)에서 띠집을 짓고 40년을 정진하며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황제 숙종(肅宗)이 소문을 듣고 그를 수도로 청했다. 궁궐 근처에 머물며 혜충국사는 다음 대종(代宗)에 이르기까지 15년간 무상도(無上道)를 설했다. 그는 죽어서도 가르침을 폈다. 이 혜충국사의 무덤 곁에서 듀하고 더딘 근기인 향엄(香嚴)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자갈소리에 대오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림 · 이준석

지금 이 공안은 무봉탑(無縫塔)과 함께 국사의 대표적인 공안으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갖는다. 특히나 운문(雲門)과 동산(洞山) 사이 세 번의 문답이 오간 15칙 동산삼돈(洞山三頓)이 이 공안과 동일한 구성,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산도 시험에 실패하여 세 차례 몽둥이 찜질을 받을 뻔했고, 지금 국사의 시자도 화광토출(和光吐出), 묻는 대로 고분고분 대답하여 국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동산은 온밤을 시험지를 끌어안고 뒹굴어 다음날 문제를 풀었지만 지금 시자는 영 그럴 기미가 없다는 것뿐.

국사는 아무래도 무리를 했다. 선가에서는 줄탁지기(啐啄之機)라 하여 인연 혹은 계기를 중요시한다. 제자의 수련이 무르익어 알을 깨고 나올 때쯤 스승은 그 타이밍에 맞추어 정수리에 일침을 가한다. 너무 늦으면 새끼는 알 속에서 질식할 것이고, 너무 일러도 알은 허망하게 쏟아져 버릴 것이다. 지금 국사는 '늘그막에 혼자 외롭고 고적한' 나머지, 덜 익은 알을 쪼아버렸다. 실제 선종의 계보를 보면 혜충국사에게는 법손이 없어 적막하다.

국사는 시자를 이끌고 선(禪)의 여물을 먹이려고 머리를 눌러댔지만 시자는 전혀 먹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맛난 음식이어도 배가 고파야 생각이 동하는 법이다. 혜개는 국사가 시자에게 진리에의 허기를 느끼게 해 주지 않은 것을 은근히 나무란다. 그래놓고 우격다짐으로 풀을 먹이려 하니 되겠느냐는 것이다. 혜개는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의 시를 인용하여 "나라가 맑으면 재사들이 높임받고, 집안이 부유하면 아이들 버릇이 없어진다"고 썼다. 선(禪)의 문호는 오직 선의 붉은 진리를 통해서야 지키고 이어갈 수 있다. 뼈를 깎는 엄정함과 가열찬 노력, '맨발로 칼산에 올라가는' 분발과 용맹정진이 전제되어야 한다. 혜충국사의 시자는 오냐오냐 하고 자란 탓에 근골이 여물지 않았던 듯하다.

將謂란 '무엇무엇이라 하겠지만'이라는 뜻이다. 謂는 '여긴다, 혹은 말한다'이고, 將은 미래나 추측, 혹은 가능 등의 미확실성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將謂는 다음 이어지는 元來와 却是와 연관되어 있다. 元來도 지금과 옛을 대비하는 역접형이고, 却是 또한 국면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무엇이라고 말하겠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거나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이렇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辜負는 저버리다, 등지다, 배신하다는 뜻. 舌頭墮地는 글자 그대로 "혓바닥이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과장되이 표현한 말이다. 和光吐出에서 和光이란 〈노자(老子)〉에 나오는 말로, 자연이 모난 것을 깎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조정과 균형을 찬탄한 것이다. 그를 닮아 인간도 또한 예각을 접고 이해와 협력과 화해를 일구어가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이 말이 두리뭉실 좋은게 좋다쪽으로 의미가 미끌어진 듯하다. 화광토출은 그래서 공손한 자세로 분위기에 맞추어 그때그때 응답하는 유유한 모습을 가리킨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좋은음식 배부르면 소용없어

"허기느끼게 하지않고 먹이려 하다니…"

法數로 배우는 불교

〈33〉



◇성각스님 作 '운산(雲山)'

지나친 고난·풍요·시청각장애 등 불법 공부하기 어려운 8가지 환경

바다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씩 물위에 목을 내 놓는데 우연의 일치로 떠다니던 통나무 구멍에 머리가 꿰어져 육지에 나온다는 설화가 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를 장수천이라는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맞춘다는 비유도 있다.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강조하는 얘기들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 세상에 태어나도 인간의 몸받기 어려우며 인간의 몸 받아도 불법

팔난(八難)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도 깨닫기 어렵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 생각해보면 한량 없는 뭇인연에 끌려 세상을 살면서 불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신체적 조건을 구비하고 태어난 사람도 죄근이 많고 업장이 두터우면 법을 깨닫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불구의 몸을 받았거나 인간이 아닌 몸을 받은 하열 중생들이 법을 깨닫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항상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법 만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깨달음 얻기를 발원하되, 만약 금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다시 복많은 인간으로 태어나 불도를 성취하기를 염원해야 한다. 모든 크고 작은 일이 그러하듯 부처님의 법도 인연이 구비되어야 만이 닦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진수성찬의 좋은 음식도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듯 불법이 아무리 좋다해도 받아들일 중생의 근기가 모자라면 어쩔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법은 있으나 법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인 중생들의 종류에 여덟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팔난(八難) 중생이라고 한다.

팔난은 첫째 재지옥난(在地獄難)인 지옥에 처한 경우와 둘째 재축생난(在畜生難)인 짐승의 몸을 받은 경우, 셋째 재아귀난(在餓鬼難)인 주린 귀신이 되었을 경우와 넷째 재장수천(在長壽天)인 장수천에 났을 경우, 다섯째 재울단월난(在鬱單越難)인 울단월국토에 사는 중생인 경우와 여섯째 세지변총난(世智辯聰難)인 세상지식에 너무 팔려있는 경우, 일곱째 농맹음아난(聾盲瘖啞難)인 귀먹고 눈멀고 벙어리인 경우와 여덟째 불전불후난(佛前佛後難)인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이나 가신지 오랜 후의 경우다. 이러한 여덟가지중 앞의 지옥·축생·아귀의 난은 중생의 생활이 너무 괴롭거나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아 법을 닦기가 어려운 것이고, 다음의 장수천·울단월의 난은 생활이 너무 풍요롭거나 즐거워서 법을 닦기가 어려운 것이다. 장수천은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 하늘중 색계 네번째에 속하는 천상계로 이곳의 수명은 오백대겁이나 되므로 도(道) 닦을 마음을 내지 않고 울단월은 사바세계의 수미산 북쪽에 위치하는 구로주(俱盧洲)라는 곳인데 복락이 넘치기 때문에 역시도 닦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너무 괴롭거나 즐겁지도 않은 적절한 환경에는 살고 있지만 중생 자신이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의 불구의 몸을 지니고 있으면 법을 닦기 어렵고 혹,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했더라도 세상 놀음이나 일에 팔려 있으면 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세상의 학문이나 다른 종교 또는 취미와 오락에 빠져 최고의 가치인양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는 불법은 한낱 생활의 도구정도나 미신 밖에는 안되므로 자기의 가치 척도로 헤아려보고 배척하거나 불신하다.

불전불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육신을 지닌 부처님이 세상에 안계시므로인해 법이 드러나있지 못해서도를 닦기 어려운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분이 오시기 이전의 중생들이라든가 반대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법은 설해 놓으셨지만, 세월이 너무 오래 경과된 까닭에 법이 쇠퇴해져서 믿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중생들을 말한다. 좋은 환경과 건강함 여기에다 부처님까지 모시고 있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을 더욱 큰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덕을 지어야 하고 정진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팔난에 처한 중생을 찾아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불법에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데에 마음을 쏟기도 해야 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⑬

불교와 수학

㉖

믿음과 인식

김 용 운

수학과 불교 철학의 가장 큰 공통성은 무한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불성이 있고, 인간이 수행을 거듭해 가면서 드디어 무한의 경지(부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수행자는 이 믿음에 근거를 두고 스스로 무한의 경지(大悟)를 얻으려 정진하고 있다. 불자는 이 경지를 마음의 세계에서 구한다. 한편 수학자, 특히 무한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는 '무한을 인식할 수 있다'는 믿음(공리)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두 가지 물음이 나온다. (1) 무한이란 무엇인가(2) 무한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무한의 대상에 대한 작업은 끝이 없다. 우선 무한의 반대말 유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유한의 대상에는 반드시 번호를 붙일 수 있고(순서를 정한다) 아무리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것이라도 유한개라면 끊임없이 자리 매김을 계속해 가면 언젠가는 끝낼 수 있다.

중국의 설화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이 있다. 어느 할아버지 집 앞에 큰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를 가려서 농사를 망치게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 산을 딴 곳으로 옮길 것을 결심하고 매일 산의 흙을 지게로 날랐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은 이미 늙어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연히 헛일을 하는군요. 그냥 편히 쉬시오"하고 권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내가 못하면 자식이, 내 자식이 못하면 내 손자가, 내 손자가 못하면 ……,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옮겨진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산의 흙덩이가 유한인 이상 그런 작업은 끝이 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한개의 대상은 그럴 수가 없다. 본래 유한의 시간만을 살 수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같이 끝없이 작업을 해야만 되는 무한이란 두려운 존재였다.



그림 · 최주현

불자 '부처될 수 있다' 무한 가능성 믿음
수학자 '무한의 유한화' 전제 이론 탐구

가령 1, 2, 3, …… 이라는 수를 셈해 가면 어디까지 가도 끝이 없는 무한이다. 간단한 1과 2 사이에는 무한의 수, 이를테면 1/2, 1/3, …, 1/n, … 등 무한개의 수가 있다. 길이 한 척(尺) 밖에 안되는 실을 매일 그 반씩 접는다 해도 언제까지고 그 작업은 끝이 없다. 이와 같이 무한은 비교적 간단하다. 해변에 흩어져 있는 모래가 우주 전체를 덮고 있고, 그 우주가 끝없이 광창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무한의 모래알이다. 이들 무한의 모래를 인식한다는 뜻은 이들 모래알에 하나씩 번호를 붙이고 순서를 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아무리 많은(무한) 모래알도 전지전능한 사람이면 일렬로 배열시키고 번호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들을 유한개의 토막으로 나누어 그 속에서 대표자를 하나씩 정할 수 있어도 좋다. 이때 유한개의 대표자로서 무한의 모래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이들 사이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정하는 것이다.

수학자는 무한의 대상에 순서를 정하는 것 최대최소를 정하는 것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가능하다'라는 공리를 내걸었다. 즉 무한의 유한화를 믿는다.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해 보이지 못한다 해도 '가능하다'는 공리를 전제로 해서 수많은 이론을 얻어냈다.

'수학은 무한의 과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무한의 실험, 관찰이 있을 수 없으므로 천문학, 생물, 화학, 물리, … 등 실험과 관찰에 근거를 두는 과학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자는 '무한을 인식할 수 있다'는 공리를 내걸고 무한을 과학화했다. 불교 역사상 무한의 경지, 즉 부처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고 수행하는 불자의 모습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간의 위대함을 느낀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영산재연구

불교음악



영산재의 구성과 그 신앙적 의의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



영산재의 구성과 범패의 기능은 물론 시련으로 부터 소대의식까지 3일 영산재 전 과정의 의미와 절차를 화보를 곁들여 생생하게 전한다.

부록으로 안채비와 바깥채비의 홋소리, 짓소리 등의 범음 악보를 최초로 정리하여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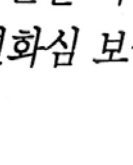
법현/ 46배판양장/ 15,000원

中道禪

마음 챙기는 법

"읽으면 견처를 얻고 실천 수행하면 견성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해탈한다."





구름에 달 가듯 그물에 바람 가듯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으로 대자유인이 되라!
날뛰는 마음에 고삐 물려
한마음 잘 다스리면 천하가
내것인 줄
왜 미처 모르는가!

제1장 태어나기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
제2장 역류문 (逆流門)
제3장 중도선 (中道禪)
제4장 조사선 (祖師禪)

법산/ 신국판/ 326쪽/ 7,500원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온주사 전화 (02) 720-9372~3, 735-9170/ FAX (02)723-0646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 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지장정사〉로 연락하세요. 전화 (02) 651-3880

도서출판 정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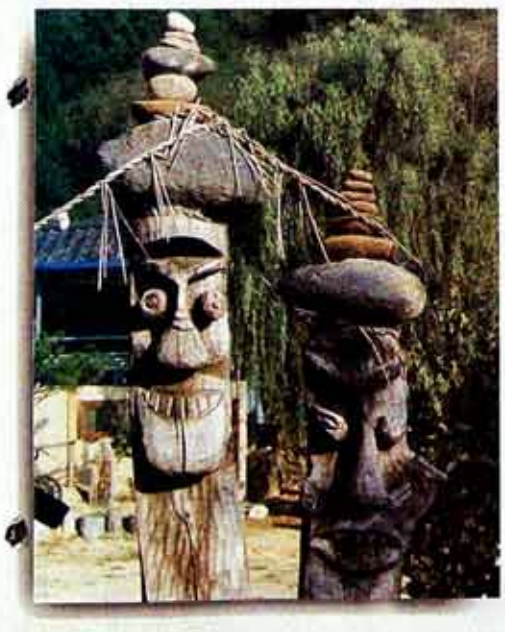
각시



따따부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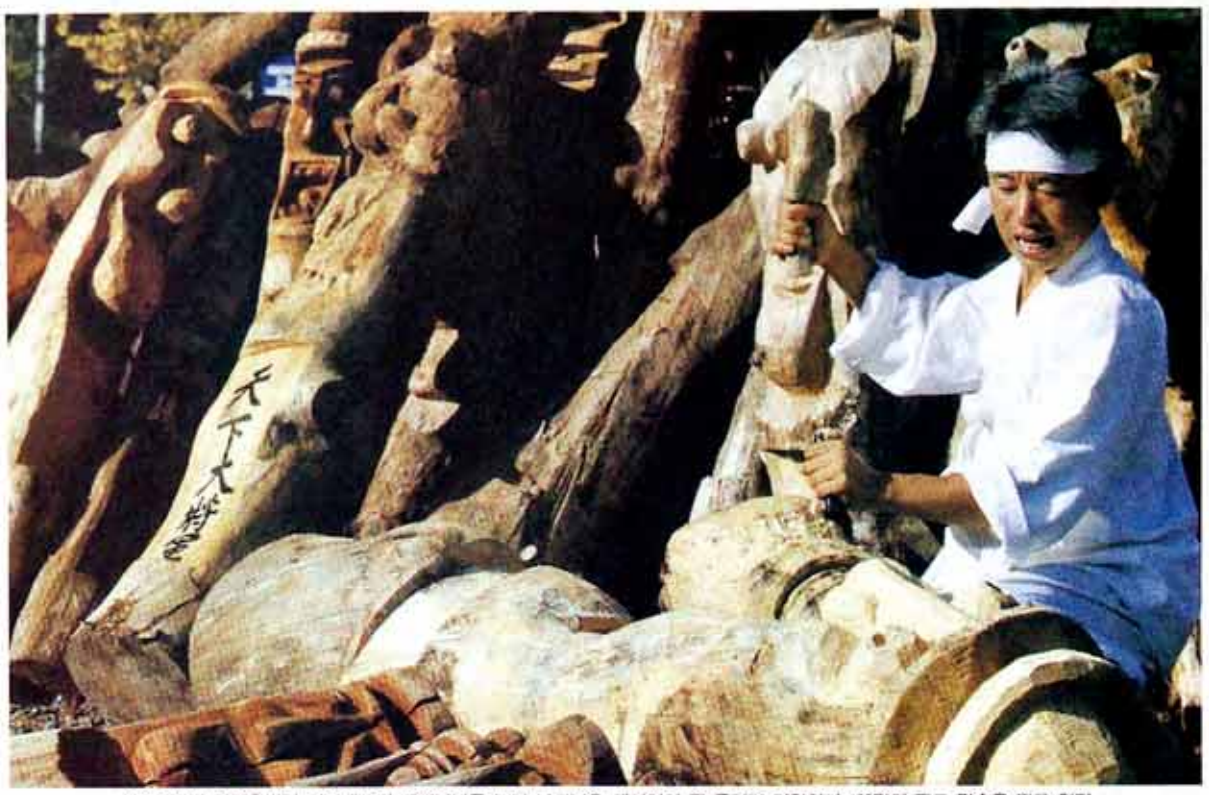


하루방



천하대장군 · 지하여장군

장승



◇목공예가 김종홍씨가 인간세상의 백팔번뇌를 녹여 어지러운 세상일이 잘 풀리길 기원하며 108점의 팔도 장승을 깎고 있다.

한민족 희로애락 '생생'

김종홍씨 백팔번뇌 녹이는 '108장승' 조성

안동국제탈춤축제
10월1~5일 전시

툭 불거진 퉁방울 눈에 주먹 같은 코, 삐져나온 씨랏니. 결코 예쁘다거나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는 장승의 얼굴.

그러나 그 얼굴은 때로 부처님의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로, 또는 문무석인(文武石人)의 근엄하고도 잠잠은 모습으로도 다가온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마음에 따라 선하게도 보이고 무섭게도 보이지만 시골노인의 주름진 얼굴같이 친근하기 그지없다. 백제나 신라의 기왓장에 새겨진 도깨비 얼굴에서처럼 익살끼넉인 웃음과도 맥이 통하는 우리만의 웃음과 우리민족만의 표정이 숨어있다.

장승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며 때로는 무서운 병을 옮겨다 주는 손님마마가 어린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나 아녀자들이 손비빔을 하며 소원성취를 비는 기도처가 되면서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소박한 임무를 다해왔다.

20여년 경력의 목공예가로 하회탈을 만들다가 장승에 심취,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입구에서 장승만들기에 전력하고 있는 김종홍(45)씨. 그는 오늘도 우리민족의 표정찾기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벅수 · 당승등 팔도명칭 다양
속담 · 수수께끼 인용 '친숙'

김씨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9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발 기간동안 팔도 장승을 선보일 장승전시회를 연다. 총 1백8점의 장승을 야외공원에 전시하게 되는 이번 행사에는 내외국인 민속관계자와 관광객들에게 하회탈과 함께 또하나의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씨는 인간세상 백팔번뇌를 녹이려는 염원으로 1백8점의 장승깍기를 발원했다고 한다.

"팔도 장승들이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잔치판을 벌이듯 정치 · 경제할 것 없이 어지럽기만 한 세상이 잘 풀리고 한마당으로 어우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외국인에게는 정말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표정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민중들의 가슴속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온 장승은 이름도 다양하다. '장승'이란 호칭은 대개 서울 부근의 사람들이 부른 말이다. 이는 오래 살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의미로 도교에서 빌어 온 이름이라 한다. 또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벅수' '벅시' '당산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충청도에서는 '수살막이' '수살목',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당승' '돌미륵', 제주도에서는 '돌하루방' '우석목(偶石木)' '거오기' 등으로 부른다.



장승이 민중들의 삶속에서 얼마나 흉허물 없이 어울렸는지는 속담이나 수수께끼, 지명 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멈청하게 서 있는 사람을 일컬어 '벅수같이 멍하니 서 있다' 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 '장승 입에다 밀가루 발라놓고 국수값 내라고 한다'고 말한다. '개가 장승 무서운 줄을 알면 오줌 눌까' 등의 속담도 있다. '밤낮을 눈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입이 크되 말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의 수수께끼도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관소리 〈변강쇠 타령〉에는 변강쇠가 장승으로 군불을 지피다 그 벌로 1만가지가 넘는 병을 얻는 대목이 나오기도 한다.

언제부터 장승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2천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길가를 지키며 면면히 이어오던 장승은 물질문명의 유입과 함께 의술의 발달, 외래 종교의 도입 등으로 미신과 구습의 하나로 멸시되며 우리의 삶에서 잊혀가고 있다.

하지만 오랜역사를 우리의 조상과 함께 살아온 장승의 숨결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리 만무하다. 불공을 드리기 위해 찾아가는 사찰의 경계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장승의 모습이, 또는 우연히 지나치던 국도변에서 만난 돌장승의 얼굴이 곧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그 옛날 우리의 조상님네들의 서원과는 사뭇 다르지만 정치 ·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들의 해결을 기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승을 통해 잊혀졌던 우리의 멋과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다행스런 징이다.

다양한 유형의 장승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미적(美的) 이상과 본질은 역시 '생명의 힘' 또는 원시적 '건강성'이다. 바로 이 점이 한때 버려지듯 잊혀졌던 장승을 다시 우리의 삶속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있다. 다만 장승의 모습을 20세기의 것으로 변형시켜 재창조할 때 비로소 장승문화를 올바르게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멋을 간직하고 있는 장승. 그 매력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들이 이어질 때 장승은 현대식 빌딩 앞의 추상적 조형물을 제치고 우리 삶 가까이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글=김정은 사진=고영배 기자

장승의 신앙의미와 지역특성

신석기 · 청동기시대 민간신앙 조형물
불교영향 금강역사등 수호신상 변화
전국에 산재…특히 호남에 많아

장승은 솟대 · 선돌 · 돌무더기 · 신목(神木) · 신당(神堂) 등과 함께 신석기 · 청동기 시대의 원시신앙적 조형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처음에는 씨족 · 부족민의 공통적 염원을 담은 이념의 표상으로 서 있다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삼국시대에 들어 불교 · 유교 · 도교 등의 도입으로 혼합되면서 본래의 기능이 약화됐다.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은 뒤 부터 장승이 지닌 수호신상으로서의 의미는 금강역사(金剛力士)나 사천왕(四天王)으로 바뀌기도 했다.

장승은 무엇보다 흉년이나 재앙, 유행병 등을 가져오는 귀신과 역신을 겁주어 쫓아 보내는 부락수호의 의미가 가장 크다. 또 방위(方位)가 허한 곳의 각 방위에 해당하는 곳에서 방위를 지키기도 하며 사찰입구에 세워 경내의 청정과 존엄을 지키는 역할도 했다.

가부장적 부계사회를 계승한 우리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득남의 기원도 장승에 빌었다. '장승의 코나 눈을 갈아 달여 먹으면 임신이 된다'는 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앙(神앙), 동신(洞神), 삼신당(三神堂), 불상, 미륵 등과 함께 복합적 민간신앙의 한 형태를 이룬 장승신앙의 단면이다.

호남지역은 장승 최대 잔존지역으로 너무 다양하여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주로 나무장승보다는 돌장승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호남지역 장승은 역맥이 · 잡귀방지 · 풍수비보 · 득남 등 그 기능도 다양해 남원 만복사지, 남원 신기리 장승처럼 힘이 넘치는 금강역사 수문신을 닮은 것, 순창읍 남계리 벅수처럼 불교의 영향을 받아 미간에 백호를 한 것 등이 있다. 경상남북도 지역의 장승들은 목장승과 돌장승이 혼재하며 그 특징으로는 어루숙한 속에 익살이 넘치고 천진함의 기교를 부린 인간적인 작품들이 많다. 나무장승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충청도 지역의 장승들은 긴 통나무를 잘라 귀면 · 미륵 · 장군 · 문무관 상징의 얼굴을 먹으로 그려 무서움을 표시하려 했으나 오히려 충청도 사람들의 푸근한 인정미가 배어있는 장승만이 제작되었다.

돌하루방으로 더 유명한 제주도의 장승은 강직하면서 온유하며 멍청하면서도 덕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허탈한 눈망울 속에는 불굴의 기상이 돋보이고 있어 남태평양의 석상문화(石像文化)와 몽고족 · 몰골족풍의 북방문화가 제주 고유의 향토색과 어울려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술천품(述千品) ③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不知敗敗事 부지성패사
不如生一日 부여생일일
見微知所忌 견미지소기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세상 일의 성패를 알지 못하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기미를 살펴
피할 바를 아는 것만 같지 못하다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不見甘露道 불견감로도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服行甘露味 복행감로미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감로의 길을 만나지 못하면
단 하루를 살지라도 부처님 법을
제대로 맛을 보는 것만 같지못하다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不知大道義 부지대도의

나중에 고통만 무성케 만드네

凶人行虐 흉인행학
沈漸數數 침점삭삭
快欲爲人 쾌욕위인
罪報自然 죄보자연

흉악한 사람 모진 짓을 행해
자주자주 되풀이 하면서도
유쾌하게 그짓을 행하니
죄 갚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吉人行德 길인행덕
相隨積增 상수적증
甘心爲之 감심위지
福應自然 복응자연

좋은 사람은 덕을 행하되
덕이 덕을 낳으며 날로 쌓여서
이를 달가워하는 마음이면
복덕은 절로 절로 응해오는 것

妖孽見福 요얼견복
其惡未熟 기악미숙
至其惡熟 지기악숙

악한 사람도 악의 열매 익기 전엔 복 만나지만 악이 익으면 죄값 받네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學推佛法要 학추불법요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대도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불법의 요체를
잘 가려 배움만 같지 못하다

악행품(惡行品) ①

見善不從 견선부종
反隨惡心 반수악심
求福不正 구복부정
反樂邪淫 반락사음

옳은 일을 보고도 뒤좇지 않고
도리어 나쁜 마음을 따라가며
복을 구할 뿐 바르지 않고
도리어 삿된 음욕을 즐거워하네

凡人爲惡 범인위악
不能自覺 불능자각
愚癡快意 우치쾌의
令後嬰毒 영후얼독

무릇 사람들이 악을 일삼고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흔쾌히 여겨서

自受罪虐 자수죄학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기전에는
그러나 그 악이 익어지면
스스로 혹독한 죄값을 받는다

禎祥見禍 정상견화
其善未熟 기선미숙
至其善熟 지기선숙
必受其福 필수기복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그러나 그 선이 익어지면
반드시 그 복을 받게된다

擊人得擊 격인득격
行怨得怨 행원득원
罵人得罵 매인득매
施怒得怒 시노득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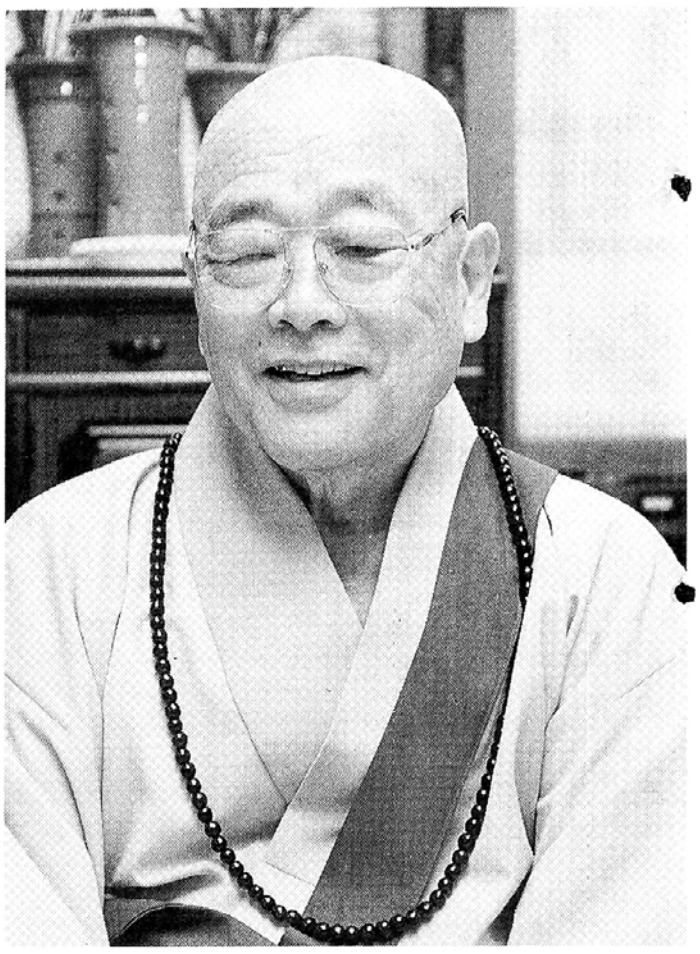
남을 치면 나도 얻어맞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듣고
남을 매도하면 나도 매도 당하며
남에게 성을 내면 나도 노여움을 받는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삶이 고통이라 말하지만

도우스님 〈도선사 참회선원장〉



약력
- 1922년 문경 동로면 生
- 1934년 13세에 상주 남장사에서 임제응 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40년 문경 김용사에서 강원 대교과 졸업
- 1971~74년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역임
- 1974~75년 조계종 감찰원 원장 역임
- 1980~ 삼각산 도선사에 주석

"흙속의 보석도 캐내야 빛 발하듯 탐진치 걷어내면 누구나 불성자리"

계절은 늘 변하지만 지난해의 가을과 올해 맞는 가을이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한자리니까요.

내가 젊었을 때 가을저녁 참선정진을 하고 있으면 성철스님이 살포시 옆에 오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조실스님이 조실방에 계셨는데 사자 한 마리 가 늘 그 앞에서 지키며 방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면 모두 물었다. 어떻게 하면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조실방에 들어갈 수 있겠나?"하시고는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면 죽비를 내렸습니다. 항상 스님들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받아적어 가며 공부하던 그때 성철스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건져주는 가르침의 죽비였습니다.

나는 보통학교를 마치고 13세 때 절에 들어가 〈초발심자경문〉부터 배웠습니다. 상주 남장사에서 임제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지요.

김용사 강원에서 〈원각경〉을 보다가 중생이 본래 청정하다 하는데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려 고민 하던 중에 〈화엄경〉을 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는 〈화엄경〉의 가르침에 의심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 차별없이 모두 부처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청정하지 못하고 부처와 같지 않으니 결국은 마음을 깨달아야 그 경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참선하여 마음을 깨닫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는 김용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이뭣고' 화두를 배워서 오나가나 '이뭣고'를 참구하며 그렇게 첫안거를 보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어떠한 부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를 알려주고저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처의 마음자리를 환발하게 쓰지 못합니다. 처처에 걸리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피우며 초조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성이 탐진치 삼독에 둘러 싸여 있어서 본래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이라도 산중에 묻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광부가 땀흘려 흙속에 묻힌 보석을 캐내고 또 열심히 다듬어야만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참선하고 염불하고 정진하는 등 부단한 방법으로 탐·진·치라는 광산에 묻혀 있는 본래의 불성을 캐내야 합니다. 이 본래 부처를 캐내는 피나는 노력이 모두 수행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본래 부처모습을 캐내어 놓으면,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걸림이 없어져 그 몸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이 부서지고 아귀에 들어가도 아귀가 만족하고 축생에 들어가도 지혜가 생깁니다. 지옥이니 축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탐진치 삼독의 컴컴한 그림자에 가려진 세계이므로, 마음하나 밝히면 광명이 비치어 어두운 온갖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내 본래 마음하나 밝힐 때 이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는 이치를 알았다면 이제 모두 그 마음 밝히는 작업에 힘써야 하겠지요.

내가 한참 참선 수행할 당시만 해도 먹을 것이 귀할 때라 매일 도토리를 따다가 밥이면 그것을 모두 까서 도토리밥을 해먹었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도토리밥을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 도토리를 따러 다니다가 음이 올라서 더 이상 도토리를 먹을 수도 없고, 약도 없어서 탁발을 나섰다가 서울 선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학원에서 청담스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갈데가 없다고 하니, 나를 따라가자 하셔서 따라 나섰는데 그때 간 곳이 속리산 복천암입니다. 청담스님하고 그곳에서 쌀, 들깨, 솔잎, 좁쌀을 갈아서 생식을 했습니다. 매일 한 주먹씩 나눠 먹으며 수행하다 보니 어느날 해제가 되었어요. 성철스님이 청담스님을 만나러 복천암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성철스님은 남달랐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고 아는 것이 많고 명랑쾌활하셨어요. 같이 살기도 했는데 그때 내 나이 22세, 성철스님은 32세이셨고, 청담스님은 42세로 꼭 10년씩 차이나더군요. 나이에 관계없이 공양주를 번갈아 맡아가며 정진했지요.

그후에도 청담, 성철스님과의 인연은 계속돼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 성철스님을 모시고 '공주규약'이란 것도 제정하고, 결사 안거중에 현재의 삼배례, 오계, 보살계, 포살 등과 가사, 장삼, 발우공양 의식을 제정했습니다.

당시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현재와 비교해 열악하기 그지 없었지만 수행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해서 누구하나 예외없이 하루에 나무 두 짐씩을 하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하니 그때가 수행자로서 가장 왕성하게 참선정진과 염불수행을 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행하던 그 시절이 또한 가장 행복하고 충만된 시절로 기억됩니다.

한국불교는 전통적으로 구산선문으로부터 태고보우선사 나옹스님 등 선종이 중심이 되어 내려왔지요. 그러나 선으로만 도를 깨친 이는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각 사찰에서 스님들이 하는 모든 의식은 아미타불극락정토(阿彌陀佛極樂淨土)로 구경회향하는 조석염불수행이 주를 이룹니다. 선(禪)과 정(淨)이 둘이 아닌 것이 한국불교입니다.

〈미타경〉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주불은 아미타불 무량수불이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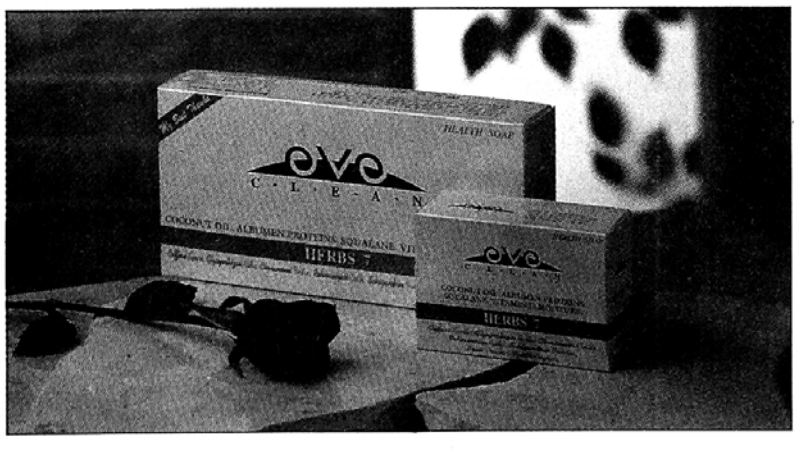
자기본성을 깨친 이는 자성이 미타요, 유심이 정토니라. 사바세계가 극락이지, 달리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이는 상근대지, 돈오돈수, 최상승, 확철대오한 대선지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대자유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효스님은 '일체유심조'를 깨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 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L·E·A·N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하나 밝히면 극락"

"불자라면 늘 오계따르고 부끄러움 없는 언행으로 자신의 믿음 자랑스레 여겨야"



◇1965년 동산스님 입적시 범어사에서(사진 뒷줄 왼쪽부터 일타, 성철, 청담, 도우, 천제, 혜성스님)

도 화엄종, 해동종을 개종하면서 구경회향은 서방극락세계로 돌리고, 서민 대중들도 염불하면 극락정토에 가서 수행한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권고하셨습니다.

화엄종 의상대사도 부석사 무량수전을 짓고 법당정면에 무량수불을 모시지 아니하고 서방에 모시어 자연스레 서쪽 아미타불께 예배했다고 전해옵니다.

그러고보면 신라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교종에 원효, 의상 두분의 정토왕생사상은 구경에 가서는 서방극락세계에 가서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성불한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바로 해탈입니다. 그러나 이 해탈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편은 그 사람의 정도, 자기바탕,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업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골격은 다 같지만 들어가는 문이 다를 뿐이지요.

인간이 천차만별로 다양하지만 고통속에서 헤매는 모양은 다 같고, 또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사람의 정도나 환경 차이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는 현실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산란심을 제거하는 방편을 쓰고, 둔탁한 사람은 생각을 일으키는 방편을 써야 합니다.

세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용기가 약하거나 어느 시간에 전력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와 수행에 우열을 무시할 수 없어 구품으로 등급을 두었습니다. 평생 악한 죄업을 지은 사람이 임명하면서 법사의 말을 듣고 바로 언하에 왕생하게 되면 하품하생에 탁생하는데 죄업이 다 녹아야 연꽃이 열려 관음세지보살에 염불염법염승하여 차차로 마음이 열려서 상품상생으로 올라 구경에는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6자염불 왕생과 다라니로 발원한 상품상생원 극락세계는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깨친 사람 입장에서는 사바가 정토요, 정토가 사바요, 삼천대천세계가 정토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보면 상품상생으로 바로 가서 일찍이 성불할 길이 있으니 그 길은 단지 염불만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다라니 수행공덕으로 가는데 염불공덕보다 다라니 수행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 있어서는 중생의 근기가 점점 약해져서 부처님 말씀도 잘 믿지 아니하고 믿는마음이 적으니 공부도 소홀히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한다는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평소에 부지런히 정업을 닦지 않는다면 한 생을 헛되이 보내게 된거요. 지은바 업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때 내가 금강산 여러사찰을 돌아보고 내려오니 사불산 대승사에서 청담스님을 비롯한 여러 소장스님들이 〈무량수경〉에서 정토발원을 했습니다. 왜 정토발원을 합니까 하고 여쭸더니 우리가 여기서 여름을 지내면서 모든 스님이 정토발원을 했다 하셔서 그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나도 따라서 정토발원을 했지요. 그래서 이후 선과 정을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선사들이 선정쌍수 하신 것을 알게되고, 육조스님도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만세(萬世)의 티끌 번뇌를 뛰어넘는 묘한 길이요, 부처가 되고 조사(祖師)가 되는 정당한 원인이며, 삼계(三界)의 천상 인간의 눈이요, 마음을 밝히고 제 성품을 보는 지혜등불이다. 지옥을 파(破)하는 맹장(猛將)이요, 삿된 무리를 베는 보검이며, 오천대장경의 골수요, 팔만다라니의 중요한 문이며, 암흑을 여의는 등불이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삼계를 뛰어나는 지름길이요, 가장 존중하고 가장 높은 묘한 문이며, 한량없고 그지없는 공덕이니라. 이 한 구절을 생각하여 생각마다 앞에 나타나고 때고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며 두사시(無事時)에도 염하고 유사시(有事時)에도 염하며, 살았을 적에도 이렇게 염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하여 한결같은 성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길을 찾으랴. 이른바 한 구절 아미타불뿐 다른 생각없으면 손가락 한 번 튕길 필요도 없이 서방(西方)에 가오리다"

염불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물음에 육조대사가 〈선정쌍수집요(禪淨雙修集要)〉에서 이처럼 답하셨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무아미타불 공덕이라는 한가지는 알고 믿어야 나중에 이 육신을 버리고 갈 때 자신의 나아갈 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힘이 없다면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래 인내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것은 젊으니까 다른 곳에 신경 쓸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염주, 합장주를 몸에 지니고, 오계를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종교를 믿는 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늘 불법을 믿고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젊다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가서 추락하고, 캄보디아에서도 여객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뒤에서 누가와서 부딪치면 죽는거지 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누구든지 내 명호를 부르면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안하고 믿지않는 사람은 부처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수행하세요. '내일하지 뭐'하고 미룬다면 죽을 때까지 미루게 됩니다. 늙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믿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극락세계 못 갈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극락세계에 가려면 믿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수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평초와 같아서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가고, 바람이 저리로 불면 저리로 가고, 그렇게 중심없이 흔들리다가 보면 사람신세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해탈자재해서 조금도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처의 삶입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의 분을 생각하고 힘껏 노력하여 정토왕생을 구경회향처로 발원하세요. 늘 일과를 정하여 집에 있을때나 다른곳에 가더라도 부지런히 염불참선수행을 한다면 정토는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자리 닦지 않으면 한생 헛된 삶 극락은 가는곳 아니라 수용해야죠"

정리=이은자 기자

나와 경전 23

법구경



진 옥
여수 석천사 주지

내 고향은 남해다. 산골이면서 항상 바다와 접하면서 살았다. 섬지방이 항상 그러하듯이 불교의 뿌리가 깊었는데 어렸을 적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내라고 할 때면 출가하겠다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아마도 섬이라는 전통적 보수성과 주변에 남해 금산의 관세음보살성지인 보리암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거기에다 과거 고려때 대장경의 분사도감이 설치 될 정도로 불연이 깊었던 숙연도 있었으리라 본다.

소년시절 나를 불교와 연결시켜준 중요한 분이 한분 계셨다. 그분도 역시 보리암에서 승려생활을 하다가 세속에 내려와 사시던 분이었는데 나의 속가 큰 형님과 비슷한 연배였다. 몸이 약했던 나는 자주 앓아 누워서 또래 아이들 보다 깊은 생각에 잠길때가 많았다. 또 보이는 책이란 책은 몇번이나 읽어서 다 외울 정도였다. 그런 욕구가 왕성할 때 나에게 빛이 되어 주었던 분이 바로 그 거사님이었다. 나에게 부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어떤분인지 무엇을 하면서 사셨는지 왜 성인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당신이 보시다가 겉표지가 다 닳아 떨어져 너덜거리는 경전을 몇권 주셨다. 향내음이 나의 코끝을 때렸고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 깊이 충격을 주었다. 그때 받은 경전가운데 한권이 바로 〈법구경〉이었다. 대부분의 경전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여러번 읽어도 잘 알 수가 없었고 무슨 딴 세계의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나마 읽기가 쉽고 조금씩이나마 이해가 되는 경전이 바로 〈법구경〉이었다.

〈법구경〉의 원래 명칭은 담마파다(Dhammapada)이다. 담마란 '인간의 진리'란 뜻이고 파다란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전은 팔리어 5부중 소주(小部)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경은 전체 423편으로 이루어진 시집이다. 그 주제에 따라서 대구(對句), 불방일(不放逸), 마음, 어리석은 자, 어진 자, 아라한, 악, 폭력, 늙음, 자기(自己) 등 26장으로 나눠져 있다. 주로 단독의 시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둘 또는 여러편의 시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의 형태로 구성한 이 경은 방대한 불교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불교의 도덕관과 사회관 등의 교화내용을 담고 있다. 순수하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번뜩이는 지혜로써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 경은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경전가운데 하나로 누구나 좋아하며, 불자라면 〈법구경〉의 경구 한두개쯤은 외우고 있는 사람이 많다.

〈법구경〉은 우선 읽기가 쉬웠다. 형식이 4구절로된 시가 많았고 길지가 않아 몇구절 읽고 음미하기도 좋았다. 그래서 그때는 외우거나 공책에 구절을 적어놓고 공부시간에도 가끔 들여다 보곤했다. 한 번은 반 전체에서 가방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그만 선생님께 그 책을 빼앗겼다. 아마도 껍질이 다른 종이에 싸져 있으니까 만화나 소설쯤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책을 돌려 받기 위해서 교무실에 들렀을 때 선생님이 그 책을 읽고 있었다.

"너 좋은 책 읽고 있구나. 다 읽은 후에 좀 빌려주겠니"하시며 칭찬해 주시는 바람에 이젠 〈법구경〉을 공식적으로 언제든지 읽어도 되는 줄로 여기고 자랑스런 마음으로 항상 들고 다니게 된 기억도 새롭다.

"마음은 모든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일을 부리나니 마음속에 악한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법구경 상서품〉의 이 말씀은 지금도 나의 가슴깊이 박혀있는 부처님의 깨어있는 진실된 길(法句) 가운데 한 구절이다.

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람사이의 갈등으로 괴로울 때 문득 〈법구경〉을 펴보면 그 속에 이를 해결할 해답이 담겨있다. 이처럼 〈법구경〉은 나의 갈 길을 안내해 준 부처님 말씀이어서 지금도 누구에게나 이 경 읽기를 권한다.

시구 423편…가장 오래된 진리의 말씀

학창시절부터 읽은 삶의 길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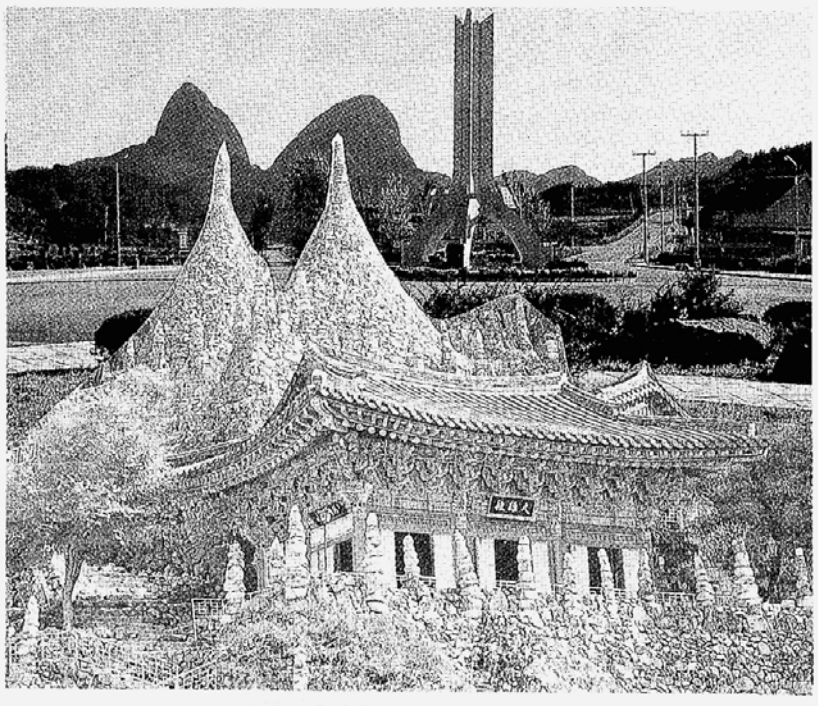
2천만의 깨달음을
참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한국역학대학
(97년 제2기 신입생 모집)

본 대학은 짧은 연한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기존에 많은 부분 왜곡되었던 동양철학(역학)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교육기간 및 과목
- 교육기간 : 6개월
- 교육과목 : 오행역학. 주역

2. 모집방법 및 요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비 고
30명	입학원서 :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매	97년 9월 20 ~ 10월 30	서류전형 및 면접	*교육과정 설명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 특 전
- 본대학 졸업장 수여 및 본 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된 〈역학연구회〉의 회원으로 위촉함
- 개업을 원하시는 분께는 적극 지원
- 졸업후에도 〈역학연구회〉를 통한 지속적 교류는 물론 역학정보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및 방문 요망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 1동 15-3 해광 B/D 4층
대표전화 (02) 423-6446

고은 불교대하소설



143

이상한 것은 해일이 한번으로 물러나지 않는 일이었다. 몇번째인가를 딱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으나 무욕도 꼭대기가 수면 위로 작은 암초처럼 남겨지는 엄청난 규모가 세번쯤 되었을 때 우녀는 지만치 난바다의 파도더미 위에서 때배 나무토막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표류자였다.

갑자기 덮쳐온 파도에 떠밀리면서 우연히 부딪쳐온 뗏목 나무토막에 머리를 얻어맞고서야 정신이 났던 것이다.

벌안간의 일이어서 부지불식간 벌린 입으로 짠물을 들이킨 뒤 의식을 잃었다가 떠다니는 나무토막에 부딪쳐 그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 나무토막이 그를 살려낸 셈이다.

천상에서 삶이 다할 때의 천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 사바세계의 종말인 무욕도의 사태에서도 그곳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던 우녀에게 어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어 다른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해일이란 그것이 법속한 본래의 수면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런데 이번 서해 연안의 엄청난 해일은 여러번 거듭된 것이었고 거듭될 때마다 그 규모가 앞서 있었던 것에 견줄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우녀가 그의 오랜 수행도량인 무욕도 쪽을 돌아보았을 때 바다 위에는 멀리 육지의 해안지대만이 보일 뿐 무욕도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다. 난바다 깊숙한 일대에서는 무욕도 꼭대기가 작은 암초 덩어리로 보이는 것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그것은 겨우 사람의 키 두 곱인 십여 척의 높이였으나 3백50척 정도의 무욕도 높이를 잠기게 한 수면의 상승이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아니,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었다.

바다 수면이 그런 규모로 높아진 것은 이 일대의 일만이 아닐 것이다. 사바세계 섬부주만이 아니라 수미산 아래의 여덟 바다가 다 그렇게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바다 수면의 간만(干滿)이나 수면 변화의 현상이 오랫동안 달과 관련되는 일이므로 크게는 바다만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기도 하였다.

결국 세상의 육지는 그만큼 그 육지의 변두리들이 좁혀들어 바다를 한층 더 넓혀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청나라나 일본열도에서도 사람들이 그 말세 사태의 공포에 떨어 제 정신을 놓아버림으로써 때로는 좀더 높은 곳으로 도피하거나 때로는 미쳐버리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왕이 죽었는데도 다음 왕이 즉위하지 않았으며 청나라 바닷가에는 오랫동안 남겨진 배란 배들을 다 불에 의해서 육지의 많은 부분이 파묻혔을 때 결사적으로 도피한 인류나 동물들이 그 뒤로 산꼭대기나 높은 곳마다 기도의 성소(聖所)로 만든 것도 해일에 대한 공포때문이었다.

그것이 오랫동안 산꼭대기마다 천단(天壇)이 되어 사람들이 심신을 깨끗이 한 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되었는지 모른다.

이제 무욕도는 누군가가 지난날의 그곳을 탐사하기 위해서 누누히 살펴보지 않고는 발견하기 어려운 암초로 파도의 무덤에 잠겼다가 솟아 올랐다 할 따름이었다. 마치 저 제주도 아래 이어도처럼 현실의 섬이 아닌 저승의 섬, 저승의 섬만이 아닌 숨겨진 현실의 섬으로 애매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서해안의 그다지 높지 않은 산위의 서쪽을 향하고 있는 암벽에 새겨져 있는 마애불상만이 무욕도의 빈 자리 일대의 바다를 멀리 내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무욕도에서 살던 산짐승들은 그대로 물 속의 고기밥이 되어야 했고 갈매기와 까치 그리고 몇 가지 새들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살려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녀는 오직 선정(禪定)에만 들어 있었다. 다른 망상 따위야말로 숱한 파도더미와 다를 바 없었다. 오직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 거절의 정신만이 언제 어디서나 이어지고 있는 중생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지유선(至遊禪)의 경지라 할까.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 구애받지 않는 자재의 선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둘 속의 추위에 퉁퉁 부어오른 채 괴가 돌기 어렵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물속에서 그동안의 해일과 바다의 커다란 변화 때문에 미쳐버린 고기들이 그의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어 그를 먹이로 삼는 것을 방어하는 일 때문에 그 점잖한 선정도 자주 토막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지막 육신을 고기들의 먹이로 바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바칠 바에는 그 육신에 담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간절한 공양(供養)의 발원으로 꽃피우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선정은 토막나기는 하지만 여간 열렬한 것이 아니었다.

"아아 나뿐이 아니로다."

우녀는 이제 파도더미를 타는 몸의 율동에 익숙해져서 처음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볼 여유가 생겼다.

멀리 육지쪽을 향하였다. 거기에 정든 섬은 있지 않았다. 오직 누런 표류

"충청도라…우리는 전라도 어청도에서 떠내려 왔다오."

"우리라 하시면?"

"저쪽에는…나와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양반집 며느리도 있소…그런데…당신은…남자요? 여자요?"

"굳이 묻는다면 여자이지요."

"머리를 깎은 흔적을 보니…."

그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저쪽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염전 물자위 조각을 붙든 채 그쪽을 향하였다.

하지만 해일의 물난리로 하여금 지금 세상은 싹잡아서 크게 동요되고 있고 바뀌어져 있었다. 아니 바닷가 포구들이나 난바다의 배들도 어느 것 하나 없이 제대로 쓸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차라리… 고기밥이 되어… 이 바다속 중생들에게 한 조각 보태는 일을 하고 싶구나…."

그는 날마다 인연에 응하여 순순히 따르는 곳(日用隨緣處)이 바로 이 바다라는 허전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 그것은 여

엄청난 해일이 몇차례 밀려와
사바세계 무욕도 전체를 삼켜버렸다
몇마리 새들만이 살아나 육지로…



"차라리 고기밥이 되어…" 우녀는 간절한 공양발원을…

태위 버림으로써 바다 밑 용왕의 진노를 풀게 하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조선 서해안에서도 현감이나 군수들이 도망치고 백성들이 화약고를 습격하여 난리를 꾸며 임진왜란 이후의 가장 심각한 혼란으로 밤낮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관청과 산중의 사암(寺庵)들이 그런 백성들의 봉기 진영으로 바뀌어져 본래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양성의 궁궐도 텅 비어서 금강산의 한군데에 왕과 조정이 옮겨가 소개되었다 한다. 바다의 수면이 높아져 한강의 노들나루도 없어졌고 남대문도 물에 잠기게 되는 사태이므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높은 곳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몇10만년전의 세계에서도 엄청난 해일

우녀는 지난날 인담을 만나서 그의 뒤를 종종걸음으로 따라온 이래 오늘에 이르는 동안을 한갓 꿈결로 떠올리고 있었다.

"아 삼천년전 참다운 소식(三千年前眞消息)이여, 이제 마치는도다."

우녀는 누구에게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 파도더미 하나가 그의 반쯤 벌린 입안에 물을 가득히 머금게 하였다. 그 짠물을 삼켰다.

그는 이 사바세계를 마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놓아버렸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와 헤어지려고 애쓰다가 신나게 헤어지는 듯이 벌써 저만치 떠가고 있었다.

우녀는 한번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떠올랐다.

이런 해일 이래의 난바다에서 사람을 만난 것이 도리어 깊은 안도감 때문에 몸 속에 남아서 지탱해주는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우녀는 바다 전체가 회오리쳐 도는 현기증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꼭 붙들고 있는 뗏목 나무토막도 놓아버리고 싶었다.

놓아버리고 싶은 나머지일까, 그는 잔뜩 물에 불은 긴 나무토막을 놓쳐버린 후 저만치 떠내려가는 것을 가까스로 헤엄쳐 가 다시 붙잡을 수 있었다.

"차라리…"라고 그는 고기들에게 먹이려는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물 위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동안이 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여느 때라면 난바다를 지나는 무역선이나 세곡선 그리고 어선들을 만날 행운이 만에 하나는 기다리고 있을 터이다.

이 조금씩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날 인담을 만나서 그의 뒤를 종종걸음으로 따라온 이래 오늘에 이르는 동안을 한갓 꿈결로 떠올리고 있었다.

"아 삼천년전 참다운 소식(三千年前眞消息)이여, 이제 마치는도다."

우녀는 누구에게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 파도더미 하나가 그의 반쯤 벌린 입안에 물을 가득히 머금게 하였다. 그 짠물을 삼켰다.

그는 이 사바세계를 마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놓아버렸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와 헤어지려고 애쓰다가 신나게 헤어지는 듯이 벌써 저만치 떠가고 있었다.

우녀는 한번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떠올랐다.

그림·조향숙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불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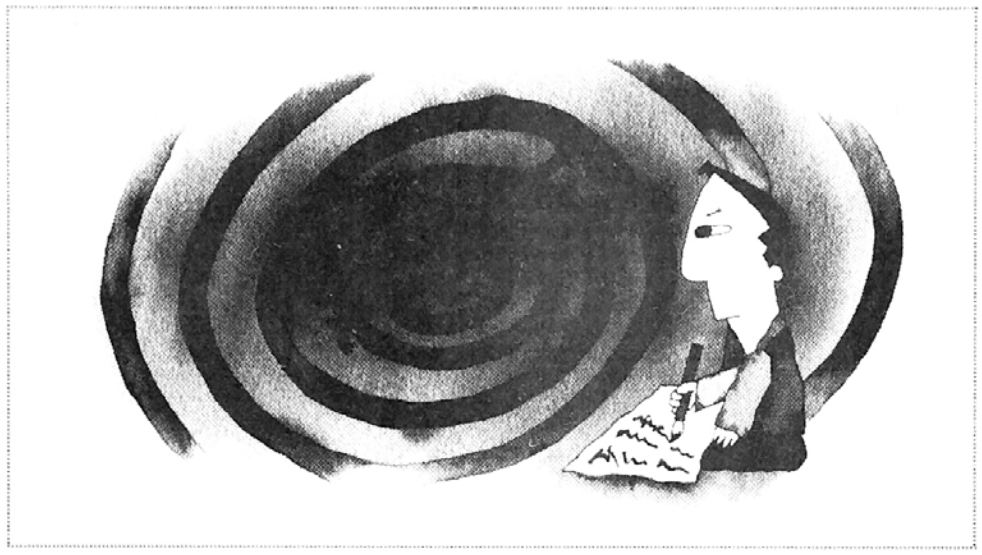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나. 이 나라 미래를 이끌고 갈 2세 교육문제는 '백년대계'를 내세우며 가정 학교 사회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과 방법에서 정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문제가 범람하고 사회문제로 부상된 현실에서는 그 해답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본지는 참교육의 지혜를 찾고자 서울대 명예교수로 평생을 교육계에 바쳤고 현재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서 박사의 불교적 가치관과 교육이념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자아실현과 삼매

나와 너 버리면 참다운삶 찾아



필자약력



·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 美 조지피바디 사범대 문학석사(교육학)
· 서울대 문학박사(교육학)
·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
· 덕성여대 총장
· 서울대 명예교수(현)
·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현)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문화상 ·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 저서 〈교육연구의 방법〉외 24권 논문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 외 54편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없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평생동안에 걸쳐 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극히 일부만을 실현시킬 뿐 대부분의 가능성은 발현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진다. 따라서 인간의 잠재적 능력인 가능성을 얼마나 실현 시켰느냐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마슬로우(Maslow)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 욕구의 위계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 심리적 욕구로 분류하였다. 생리적 욕구는 기아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수면 욕구, 배설 욕구, 휴식 욕구, 생식 욕구 등이며, 사회적 · 심리적 욕구는 안전, 소속, 애정, 자기존중, 자아실현의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욕구들은 하나의 위계성을 이루며 가장 차원이 높고 상위에 있는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였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이와 같은 욕구 위계설을 교육학지 정범모는 다른 욕구들과 자아실현 욕구로 구분하고 전자를 부족 욕구 후자를 성장 욕구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족 욕구는 '배고프다'와 같은 어떤 것의 부족에서 발동하는 욕구들이다. 체워주면 포만감에 잠잠해지고, 욕구는 없어진다. 이에 비해 자아실현의 욕구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찾고 싶고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말하자면 더욱 더 인간적으로 성장하려는 욕구 또는 더 인간적인 존재일려는 욕구이다.

자아실현의 바로 밑에 있는 자기존중 욕구는 특히 권력이나 재력에 관련이 있다. 권력과 재력이 있음으로써 뭇사람이 자기를 우러러 보는 데서 느끼는 만족감, 희열감이 여기에 속한다. 자기존중의 구성요인이 없어질 때 하루아침에 자기존중 욕구는 무너지고 만다. 권력과 돈이 없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자아실현의 욕구는 욕구 자체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 능력을 계속 성장시키고 실현시키려는 내적 욕구이기 때문에 성장시킨 그 자체가 없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아실현의 욕구는 평생에 걸쳐 충족시켜야 하는데 종래는 이 욕구의 충족을 학교교육에 한정시켜서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학교교육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이며 기초라고 여겨지는 교육사회에서는 학교교육에 못지 않게 사회교육에서도 자아실현의 필요는 충족되어야 한다. 즉 자아실현은 평생학습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강조되어야 할 교육의 기본원리이다. 이 점은 사회교육의 한 분야인 여성의 취미교실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많은 가정주부들은 전통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고 가정에만 충실하게 생활하여 오다가 중년이 되면 자아 정체감을 상실하고 허탈감에 빠지는 수가 있다. 이들 주부에게 자아실현의 일부인 취미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자아 충족감에 사로잡혀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학교교육만의 한계성

인간은 평생 동안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바, 이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평생 동안 계속될 때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필자가 정년퇴임을 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 중 나와 같이 인생을 즐겁고 보람되게 산 사람도 드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진 바 있다. 그것은 나의 잠재적 능력이 고원인 바 교직을 통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자아실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평생 동안 하루같이 즐거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교직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권력을 얻은 바도 아니고 경제적 부를 축적한 바도 아니나 다른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희열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

"참선 · 염불 · 독경 최상의 몰입 청정한 마음자리로 전환"

인간다운 삶은 자기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과정에서 몰입(沒入)되고 몰아(沒我)되며 무아지경에 이르는 삼매(三昧)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때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있으나 그 순간에는 이를 느끼지 못하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슬픔이 끊어진 자리이며 행복과 불행이 붙을 수 없는 청정한 마음자리이다.

붓글씨를 쓸 때 그것이 서도(書道)의 경지를 이루어야 한다. 서도의 경지는 서예가들 뿐 아니라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경험하는 경지이다. 붓글씨를 쓰는 순간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사라지며 인간의 맑고 깨끗한 모습이 나타난다. 혼탁하고, 더럽고, 속이고,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참다운 삶을 찾으려면 나를 잊어버리고 너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잊어버리는 삼매(三昧)의 체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는 알았다' 체험정진

화선지 위에서 먹물로 천지를 창조해 나갈 때 세속적인 욕심이 감히 어떻게 침입하겠는가? 오직 붓과 종이와 내가 있을 뿐이다. 붓과 종이 속에서 나를 찾고 나 속에서 붓과 종이를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최대한의 자아실현이다.

이것은 유리카(eureka: 나는 알았다)의 단계이기도 하다. 아르키메데스가 금의 순도(純度)를 아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하루는 물이 가득한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물이 넘쳐 흘렀다. 이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금의 순도를 아는 방법을 찾았고 너무나 좋아서 유리카(나는 알았다)라고 소리치며 나체로 거리로 뛰어 나갔다. 인간이 '유리카'의 단계에 이를 때 즉 삼매의 경지를 체험할 때 참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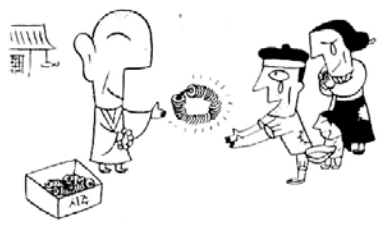
〈논어〉에도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일을 즐기고 몰입하고 무아지경에 이르는 삼매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삼매의 경지에 이르려면 자기가 하는 일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예화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석공 3인이 돌을 다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물어 보았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는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다음 사람은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한 즉 "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흥겨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질문을 한 즉 "나는 절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였다.

자아실현은 삼매의 경지를 가져오며 삼매의 경지는 인간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자아실현 중에서도 최고, 최상위에 있는 자아실현이 종교적 자아실현이다. 참선삼매, 염불삼매, 독경삼매, 기도삼매에 몰입하는 자아실현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깨끗하고, 맑고, 고요하고,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불교용어



불교문화가 우리 역사의 줄기이듯 우리 말 가운데는 불교용어들이 많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그 본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본래의 뜻은 보존되어 있으나 이해가 깊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활 속에 용해되어 있는 불교용어를 바르게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저절로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다. 그 길잡이로 안길모씨(인천민방 기획심의 실장)의 〈이판사판 야단법석〉을 참고 발췌하여 매주 생활불교용어를 알기쉽게 풀이한다.

〈편집자 주〉

무진장(無盡藏)

다함없는 무한자비 보시행 양과 질이 엄청나게 많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의 명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일상언어속의 불교용어가 있다. '무진장(無盡藏)'이다. 양적 질적으로 다함이 없이 엄청나게 많음을 표현할때 "무진장하다"고 말한다. "재물이 무진장 많다"는 말은 물질의 양적인 무한량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무진장 넓다"는 표현은 덕성(德性)의 광대무변을 비유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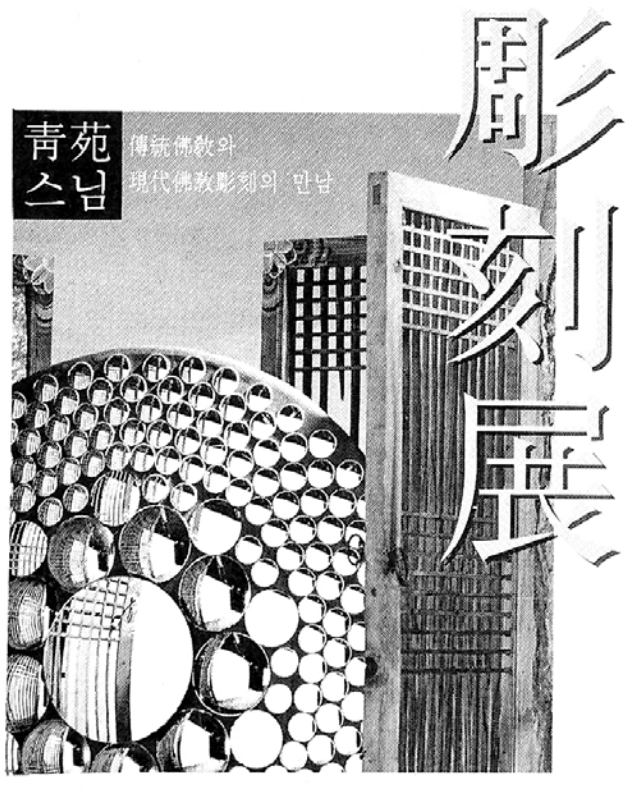
〈불교대사전〉에서 단어 '무진장'을 찾아보면 '무진'과 '장'으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무진이란 덕이 넓어서 무궁함을 뜻하고, 무진을 포함한 것을 장이라 한다"라고 정의했다. 〈유마경〉 '불도품'의 무진장에 대한 해석은 훨씬 사회적이다. "빈궁한 중생을 돕고 이롭게 함은 무진장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경우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무진장을 동일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자비사상의 실천적 표출은 결국 보시(布施)가 된다. 최상의 보시는 무주처(無住處)보시이다. 무주처보시는 무진장한 숫자의 중생에게 무진장한 연민을 갖고 무진장 오랫동안 줘야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과학시대와 달라서 옛날에는 재난이 많았을 것임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럴때마다 우리 스님들과 부자들이 보여준 빈민 구제사업은 실로 무진장했던 것으로 많은 기록이 전한다.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서민을 돕기 위해 절에서 실시한 장기 저리 무담보 사설금융이 곧 '무진장'이다. 무진재(無盡財), 무진장원(無盡藏院)이라고도 불리었다.

오늘날의 무진회사는 불교의 자비심이 푸근하게 깃들여 있는 사설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무진장의 자산금은 신도들이나 장안의 큰 단월주(檀越主)가 내는 시주물로 이루어 졌다. 그때 스님들은 재가 신도들이 시주한 금액을 그렇게 알뜰히 그리고 법다웁게 썼다. 고려말 조선초 까지도 이 무진장원의 운영은 꽤 활발했던 것으로 기록에 전한다. 그 때처럼 무진장 주고 베푸는 사회로 돌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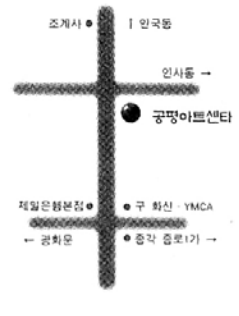
※ 참고문헌: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LEE CHUNG WON BUDDHISM·CARVE·EXHIBITION 青苑 스님 LEE CHUNG WON BUDDHISM·CARVE·EXHIBITION





■ 일 시 : 1997년 10월 1일~7일
■ 장 소 : 공평아트홀
■ 후 원 : 부산 강서 목공예사업협동조합
■ 연락처 : (051)972-3912, 971-2174



본 난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광고하는 난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이 불자의 믿음으로 이용됩니다.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732-1522(直)
FAX (02)737-0697

관 건 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당 뇨 가 이 드◆
02)700-6131

종합검진

용맹정진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하여
20% 할인된 진료비로
종합검진을 실시합니다.

▶ 연락처
051)412-8881
051)419-7575
영도병원장 합장

◆그린파워녹즙기◆
길동 02)470-3102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진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8118
H.P. : 011-559-8128 보은암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대 보 생 식◆
잠실 183-10 02)427-9162~3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치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시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회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관 강 좌 관

◆태극권·생활역학강좌◆
문의 02)242-6188
(장안동 활영소 사거리)
금 륜 정 사
※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해 드립니다.

밝은 삶의 지혜
「천수경 강좌」 개설
◇ 장소 : 광진구 중곡동 소재 "실상선원"
◇ 때 : 97년 10월 3일~10월 9일(7일간)
(음력 9월 2일~9월 8일)
◇ 시간 : 낮 11시, 저녁 8시 (1시간 강의)
02)499-4442
02)467-0562
정현 스님 · 무료강좌!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찬불가요·찬불동요)
⊙ Jass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팝송·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강남교육구청 신고 제9657호)
강남역 8호출구 앞 3층건물의 2층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 초의문화재단 ◆
석용운 스님의
한국차문화특강
통신강좌!!
종로구 관훈동 196-6
02)732-2317

◆ 해동불교대학 ◆
- 법사 및 삼장법사 과정
불교의식과정
낙원동 02)741-0495

관 구인·구직 관

역술에 능통한 스님 구하실 분

스님께 전적으로
절 운영을 맡길 분이나
혹은 필요한 분
(60대 대구스님)
0578)83-5250

부전스님 구함

◇ 위 치 : 강원도 춘천
산세 수려한 곳에 위치한
도반경 사찰제반 종무를 관장할
스님을 모십니다.
0361)262-5904

관 불교용품 관

◆ 신양불교사 ◆
대 표 양 흥 석
견지동 55-2 02)734-6331

◆ 正印社 ◆ 상패·기념패
견지동 02)735-0750
◆ 이 화 불 교 사 ◆
견지동 02)734-1383
◆ 祥阿佛敎社 ◆
견지동 02)725-0045
◆ 普賢心 ◆
공평동 02)722-4435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보련각서점 ◆
견지동 02)733-9537
◆ 불서보급사 ◆
견지동 02)732-2829
◆ 예진솜 ◆ 우리옷/수공예품
견지동 02)736-5160

◆ 견지불교사 ◆
불교서적·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 大福田 ◆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 녹 야 원 ◆
견지동 02)739-0957

◆ 진 영 사 ◆
불교·단청·개금
견지동 02)734-3116

◆ 여 래 사 ◆
견지동 02)730-6939

◆ 성 불 사 ◆ 구 승복센타
견지동 02)636-1128

◆ 太成佛敎社 ◆
불교·단청·개금
견지동 02)732-7375

관 불교미술 관

佛 心 여래미술원
* 탱화 * 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물미전 입상
0346)571-6581 (회실)
011-737-6581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각
● 마산(진화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638 호 출 012-210-1401
趙 貴 丁 합장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사찰안내 관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 (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011-425-136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이주시
◇ 대 지 : 대지 약 68평,
◇ 건 평 : 140평
◇ 법 당 : 약 47평
◇ 요사채및 기도실 : 초현대식원룸(방12개)
◇ 가 격 : 3억 6천만원
◇ 실입주금 : 5천만원(전세) - 가격절충
◆ 특 징 : 뒷산 등산로 산책로 있음 수행정진과 포교 최적지 요양과 휴양, 고시방으로 최적함
전 화 0345)403-0693
팩 스 0345-405-6924
휴대폰 011)736-0693

◆ 상가·절 안내 ◆
고등역앞 삼한상가
(3층 28평, 보증금 3천, 월 50)
주간 02)3409-0003
야간 02)3426-636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고성군 삼삼면
◇ 평 수 : 대지 280평
◇ 건 물 : 법당겸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1, 범종각 1
◇ 가 격 : 1억 3천(가격 절충)
◆ 약수물이 나옴
0556)74-4024

포교당 안 내
◇ 위 치 : 대전광역시
◇ 평 수 : 40평
◇ 건 물 : 법당 30평, 요사채 2칸 욕실완비
◇ 가 격 : 전세 3,800만원 (시설비 포함)
042)527-0559
02)372-0037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군포
◇ 평 수 : 40평 (법당 20평, 거실·주방)
◇ 가 격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전세도 가능
0343)53-8967
012)1106-1651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서4동 (서동시장앞)
◇ 평 수 : 4층건물 3층(24평)
◇ 가 격 : 보증금 1,500만원, 월 15만원
0593)854-0262~3
012)1106-1651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효목동
◇ 평 수 : 법당 60평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053)944-0778
0599)32-8216

포교당 안내
◇ 위 치 : 길음전철역 부근 버스정류장옆
◇ 평 수 : 법당및 은사 50평, 방 2칸 (5층건물 2층)
◇ 가 격 : 보증금 5,000만원, 월 80만원 (전세도 가능하며 시설비 일체무상)
◆ 최고시설(시설비만 5천만원 투자)
02)941-3195
017)215-3195
◆ 단 독 주 택 ◆
은평구청뒤 02)387-815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의성
◇ 평 수 : 1,400평
◇ 건 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미륵민·요사채 2동
◇ 가 격 : 1억 2천(가격 절충)
◆ 무속인이나 보살은 거절
0576)862-6074
천 은 사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여주
◇ 평 수 : 1,500평 (등기평수 1,330평)
◇ 건 물 : 법당 18평(목조), 요사채 56평, 법회당 40평(목조한옥),
◇ 일주문·요한각·석등 2개, 산신각 4평
◇ 가 격 : 상담후 절충
◆ 서울에서 1시간거리, 여주에서 10분
0337)82-7339

사 찰 안 내
◇ 위 치 : 백운산계곡(토굴터)
◇ 교통편 : 함양 및 거창 →안의 →서상 →웃부전마을에서 2킬로 (준농림지역, 현재 밭)
◇ 평 수 : 실사용평수 3,000평 등 기 평수 465평
◇ 가 격 : 4천 8백만원
◆ 담사후 전화요망
053)767-5635

토굴 (암자)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 가 격 : 600만원(가격 절충)
0397)73-7190
호출 012)1085-2159

신축, 사찰 기도원
◇ 위 치 : 경기도 안산 선부동 (1997. 6. 30 준공)
◇ 대 지 : 대지 약 68평,
◇ 건 평 : 140평
◇ 법 당 : 약 47평
◇ 요사채및 기도실 : 초현대식원룸(방12개)
◇ 가 격 : 3억 6천만원
◇ 실입주금 : 5천만원(전세) - 가격절충
◆ 특 징 : 뒷산 등산로 산책로 있음 수행정진과 포교 최적지 요양과 휴양, 고시방으로 최적함
전 화 0345)403-0693
팩 스 0345-405-6924
휴대폰 011)736-0693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김천(계곡좋은 흙양지)
◇ 대 지 : 580평
◇ 건 물 : 법당겸 요사 28평, 삼성각 10평, 기타 10평
◇ 가 격 : 1억 8천(단, 사찰로서 영구히 불법을 호지할 스님에 한하여 조정 가능)
◆ 가든 또는 별장으로서 최적지임
0547)437-4135~6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부 지 : 1,658평 / 법당 : 20평
◆요 사 : 20평 / 시설 : 무상기증
◆가 액 : 땅값만 평당 10만원
◆특 징 : 시 중심지에 소재한 기도도량으로 납골당, 유료양로원 기타 종교시설 부지로 적합함.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찰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 회계 및 감시업무 대행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진국지역 사찰 건축, 단청 전문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서울본사 :02)3705-4447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관 여 행 사 관

◆ 혜초여행사 ◆
종로 02)544-1533
◆ 일광여행사 ◆
종로 02)736-6272
◆ 실크로드여행사 ◆
종로 02)720-9600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어린이집 관

◆ 불교유치원 ◆
춘천 0361)52-5040
◆ 금천유치원 ◆
강릉 0391)42-9976
◆ 낙산유치원 ◆
양양 0396)671-4167
◆ 반야유치원 ◆
속초 0392)33-0625
◆ 대원유치원 ◆
동해시 0394)33-2603
◆ 성불유치원 ◆
원주시 0371)672-1729

◆ 성문유치원 ◆
원주시 037)182-6974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탈종공고 관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귀하
◇ 사찰명 : 용암사
◇ 소재지 : 경남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2-1
◇ 주 지 : 성휴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1997. 10. 1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귀하
◇ 사찰명 : 연암사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 43-2
◇ 주 지 : 조태영(법명:중산)
◇ 신도회장 : 김 주찬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1997. 9. 22.

관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일
견지동 02)733-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 安國筆房/書籍 ◆
- 서예서적,
- 미술서적,
- 붓·먹·벼루·화선지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관 표 구 관

◆고 미 당 표 구◆
인사동 02)735-2037

◆ 낙 원 표 구 ◆
인사동 02)734-2972
◆ 명 륜 표 구 ◆
인사동 02)736-1712
◆ 백 송 표 구 ◆
인사동 02)735-5696
◆ 성 신 표 구 ◆
인사동 02)734-2344
◆ 신신표구사 ◆
인사동 02)735-2710
◆ 서 광 표 구 ◆
인사동 02)720-7442
◆ 다 산 표 구 ◆
인사동 02)720-6861

관 화 랑 관

◆ 가 람 화 랑 ◆
인사동 02)732-6170
◆ 경인미술관 ◆
인사동 02)733-4448
◆ 공 창 화 랑 ◆
인사동 02)725-6553
◆ 대 림 화 랑 ◆
인사동 02)733-3788
◆ 예 림 화 랑 ◆
인사동 02)732-3318
◆ 대 림 화 랑 ◆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 동 성 방 화 랑 ◆
고서화.한국화
02)723-6577
◆ 금 성 화 랑 ◆
인사동 02)733-2462
◆ 동 원 화 랑 ◆
인사동 02)736-3852

관 학 원 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관 한 지 관

◆ 文 寶 堂 ◆
韓紙/筆房
대표 전 인 주
- 붓·먹·벼루·화선지
견지동 02)735-3270

◆ 宋 紙 房 ◆
韓紙名家
견지동 02)733-8960

기자증 분실공고
1997년 9월 22일 22시경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본사 사진기자인 고영배 기자의 기자증이 분실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집 내가 지키고 사는 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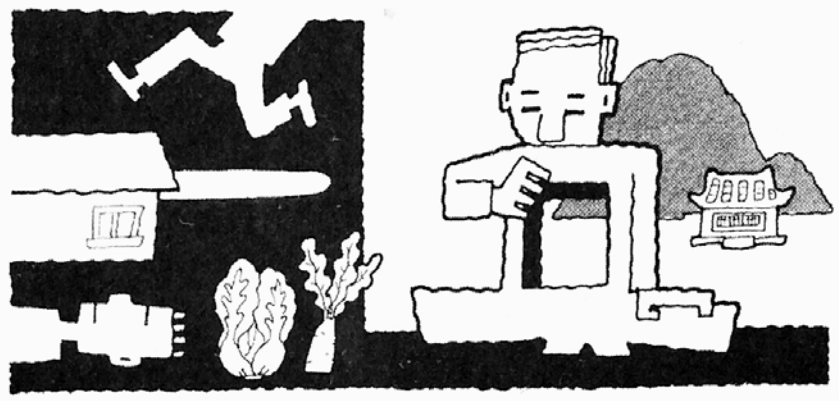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간의 마음은 무한대인데 사량분별이 여여한 자기를 막아요"

여러분이 도반으로서 늘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법회에 가서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눈빛과 태도가 너무나 지극하고 간절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스폰지와 같은 거였어요. 너무 진지해서 눈을 한번도 떼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도 차원이 있어서 차원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질 않는데 차원이 높을수록 강력하게 파고들어선단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 가슴이 찡 -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걸 무릅쓰고 도반으로서 마음 공부를 같이 하자고 애쓰시는 걸 볼 때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나 여러분이나 말이 달라서 그렇지 그 뜻은 다 똑같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경학으로 일일이 따져서 배우려면은 천 년이 가도 다 못배울 겁니다. 다 못배우는 동시에 깨우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일거수 일투족이 다 내 몸에서 나오는 거다, 그놈이 하는 거다, 모든 것을 작용해 주는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다스리는 그놈이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놔라 이랬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무조건 놓게 되면 무조건 이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모든 오장 육부의 의식들도 통신이 되면서, 모두 이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잘된 것도 못된 것도 무조건 착이 없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이 없이 여기다가만 넣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놓게 되면, 앞서에 살아오면서 입력된 것이 다 없어집니다. 무조건하고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봤으니까 무조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이유를 따지고 분별을 하고 이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니다. 그리고 이 오장육부의 소임을 맡고 있는 그분들, 선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응해주면서 밀고 나가는 그 천차만별의 의식의 힘들 말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내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사는 것이 모두 나의 불성인 원동력이 힘을 배출해 주고, 그렇게 힘을 배출해 주는 까닭에 한 생각이 우주천하를 다 움죽거리게 하는 그런 능력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마음의 근본은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무한대입니다. 항상 진화해서 발전시키고, 발전하면서 또 거듭거듭 진화할 수 있는 무한의 심성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 반야줄이라는 자기의 줄을 잡고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래는 반야줄이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문이라는 것도 없고 교차로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그대로 여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르치기 위한 방편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악이다 선이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모자란다 영리하다, 길다 짧다,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분별과 논의가 그대로 여여한 자기를 막아놓곤 합니다. 본래는 죄가 있다 없다도 없습니다. 참 미묘한 거죠.

인간은 고등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업이 있다 없다, 무명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도통 근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오밀조밀하게 이유를 따지고 분별을 하고 이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그런 반면에 무엇이 또 거기에 대두가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정신계를 추구해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합쳐져 100%가 돼서 움죽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긴 상세계가 됩니다. 중세계가 아니라 상세계가 일어나고 그러면 물난리 불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이치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 저걸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 여러분이 몸은 가만히 앉혀 놓고 각자 거길 간다 합시다. 가도 몸뚱이는 가는 게 아니죠. - 그렇게 내 마음을 정돈하면 스스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아주 강한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흡집은 있다 하더래도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놓으면 구멍나는 일이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반면에 지구를 집이리고 한다면, 집은 좁은데 식구가 많으면 잘 데가 없겠죠. 쉽게 예를 들어 배추씨나 무씨를 밭에 뿌려 놓으면 그냥 한데 소복이 모여서 나죠? 그럼 그렇게 붙어 있는 걸 솎아줘야지 솎아주지 않으면 먹을 게 안 나오죠,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솎는 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단 얘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솎는 일은 생기되, 같이 붙어 있을 때 작아도 솎아내지만 또 큰 것끼리 한데 붙어 있어도 하난 뽑아내야 한 놈이 제대로 크죠, 그렇죠? 크거나 작거나 붙어 있는 놈들은 다 뽑아내듯이 이 세상의 만물만생이 다 그러합니다. 뽑아내는 일이 점차적으로 많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살아오던 습과 착 욕심과 모든생각 한마음속에 흡수시켜 그냥 놓고 사세요"

요. 불국토가 된다 이 소리죠. 그건 왜냐하면은 다른 혹성에다가 또 중세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깐 말입니다. 우리가 저런 게 없어도 살 수 있고 이런 게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상세계의 차원이 된다면 그 없어도 되는 물건이 그냥 다 딴데로 가버리고 말거든요. 딴데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물건을 실어다 날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이러니 이런 도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하고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배추밭 얘기도 하고 이동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끔찍끔찍한 모습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 모두가 달라진다는 거, 이동된다는 거, 여기서 쓸데없는 건 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의 심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도법을 가지고 있고, 정말이지 이 허공 가운데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그런 뜻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치를,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여러분이 모르고 해보지 않은 것은 말만 어설프게 알지 실천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알아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한지붕 밑에서 지구를 집을 삼아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망가진다면 그 집 속에서 사는 생명들은 다 죽게 되니까 내 집을 내가 지키자, 또 이 몸뚱이라는 내 집을 내가 지키자, 내가 사는 사회를 내가 지키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도 이 진리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분이 진리를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이렇다는 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소귭장난하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몸 벗고 가면 또 그대로 그 차원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종자가 변하질 않아요. 내가 변하게 해야 변하는 거지, 저절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력하게 그냥 없어지는 거, 늙고 병드는, 이런 건 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묘법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습과 착과 욕심, 그런 것을 컴퓨터에 다 놔서 앞서에 생겼던 일들을 컴퓨터에서 몽땅 없어지게 만드는 작업, 바로 우리가 거기다가 다시 입력하는 작업이 자기가 자기를 변하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대신 깨우쳐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대신 밥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행복해줄 수도 없고 대신 똥눠주고 잠자주고 아파주고 죽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은 참 고독하고 쓸쓸하다고 할 수도 있죠. 비록 한 식구라고 해도 한 짚단 베어서 묶어 놓은 거와 같습니다.

아무튼 꽁다리 무시(무우)로다가 끝없이 이어 나가느냐, 희고 잘 생긴 무시가 돼서 남들 맛있게 먹여 주느냐, 이런 문제도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39)

평생을 빚쟁이로 살지 않으려거든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술 떠 넣으면서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해야 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동이 일체 중생, 일체제불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이 된다.

아침 예불시에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베푸는 이의 은혜, 좋은 벗의 은혜를 명심하여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데 어찌 그 다섯뿐이겠는가.

이웃의 은혜, 땅의 은혜, 물 바람 불의 은혜 등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 하나 잘나서 독불장군이라 할 것이 없으니 절로 둘 아닌 도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자급자족도 실은 불가능하다. 모든 생명체는 베풀고 나누는 관계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렇다고 생명체끼리만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의당 자연도 한 몫 톡톡히 거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산다.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다.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 어떤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해 갚으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듣는다. 그것은 욕심을 억제하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빚을 지지 말라는 뜻이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나 이외의 것으로부터 뭔가를 꾸준히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이상 나의 삶은 순간순간이 빚을 지는 삶인 것이다. 고로 사는 동안에 빚은 늘어만 간다. 꾸준히 되갚지 않는다면 누구나 눈을 감는 순간에 엄청난 빚더미를 남겨 놓고 가게 된다.

그러므로 더 갖기를 바라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다.

더 갖겠다는 욕심은 빚을 더 지겠다는 것이니 어찌 일생을 통해 빚 잔치나 하고 살아가려 하느냐는 물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수와 만족을 넘어 은혜에 감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의를 다 기울여서 회향해야만 한다.

먼저 감사한 줄 알아야 갚을 마음도 생긴다. 감사한 줄 모르는데 베풀고 나눌 마음인들 생기겠는가.



실은 베푸는 것도 나누는 것도 없다. 오직 되갚음이 있을 뿐이다. 감사하게 느끼니까 의당 갚아야 하겠노라는 마음이 생긴다. 절로 무주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 특별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면 으레 그러려니 생각한다.

그래서 예불 때마다 오종대은(五種大恩)만이라도 명심하여 잊지말라고 가르친다.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아침마다 이를 외우라고 했던가.

하물며 땅의 은혜, 물 불 바람의 은혜이겠는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공기를 더럽히고 물을 오염시키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금의 나 자신에게 감사해 보자.

내 정신이 바르고 사지가 멀쩡하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자. 팔이 하나 없는 사람,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 몸에 병이 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온전한 사지육신, 건강을 되찾는 일일 것이다. 그에 비하면 지금의 나 자신에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다음에 감사의 대상을 주변으로 확대시켜 보자. 내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감사한 존재로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내 이웃, 내 직장의 동료 중에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얼굴이 생각보다는 많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저 푸른 하늘도 감사하고 바람 물 불에도 감사할 일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루나존자는 부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남이 나를 비방한다면 그가 몽둥이를 들지 않음에 감사할 것이고 그가 몽둥이를 들고 덤빈다면 칼을 들고 찌르지 않는 데 감사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찌른다면 죽이지 않는 데에, 그가 나를 죽인다면 옷을 벗게 해준 데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 베풀어 주고 나눠주는 데에 감사하지 못할 것인가.

감사할 줄 알면 공감하게 되고 공감을 하면 공생이 되고 공생이 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온다.

평생 빚지고 살지 않으려거든 주위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자. 그것은 마땅히 해야하는 갚음이다.

협찬 : 이 병 제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만법의 원동력은 내안에 있다"

☞ 17면에서 계속

일상속 바른 수행법은

문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명예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돼서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스님께 가르침도 청하고저 합니다.

제가 한 십여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지난 2월에 팔고 그 회사를 판 돈까지 전부 새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두 달 동안 그 계획을 실행하다보니 생각지도 않게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냥 깜깜해지면서 어디를 돌아봐도 길이 안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세상에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습디다. 그러면서 약 1주일을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거의 감옥 아닌 감옥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찬불가 합창은 부지런히 했습니다. 합창을 하면은 열린 마음과 밝은 소리를 내도록 노력하니까 그 순간만은 굉장히 시원하고 잡념이 없어지거든요.

"살아서 죽는걸 알아야지
죽어서 죽는 것은 열반이 아냐
살아서 죽어야
삼세가 공법으로 돌아가요"

그런 과정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답답했던 게 일주일인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라고 제 자신이 돌아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매달려 살 궁리를 바깥으로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구, 내가 참 거꾸로 갔구나.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마음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자마자 바로 제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라볼 때는 그냥 팥죽 끓듯이 끓고 아주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동안에 닦은 나름대로의 공이 있었던지 며칠만에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마음도 생겼어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게 길이 열렸어요. 새로 생긴 이 길이 될 건지 안될 건지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손에 잡히니까 그 줄만 댕겼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떠밀려서 일이 됩디다.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은 다 피해 가는데,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생겼던 일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냥 온 주위 사방에서 막 그냥 떠밀어줘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일이 돼 가지고 6월달부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한 3, 4개월 상간인데 그렇게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저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예전에는 죽은 세상 산 세상이 꼭 이 몸이 죽어야 죽은 거고 살아야 산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라는 생각이 없는 세상이 산 세상이고 나라는 성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죽은 세상이었다는 것, 그리고 유위법 무위법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는 법, 보이는 법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는 유위법이고 '나'라는 생각을 빼고 무슨 일을 하면 이것은 모두 무위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핵심이랄까요, 요체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을 지켜보고 바깥 현상계에 어떤 일이 생기든 그냥 그대로 할 일이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내 마음 평정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가장 수행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먼저는 윗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아래까지 잘못 끼워진 거죠. 그 반면에 뉘우치고 다시금 바꿔서 끼웠기 때문에 인제는 방향이 올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어떠한 문제도 개의치 마시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래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나가신다면 남한테 꾸러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여한 거지 뭡니까. 모두가 여여하게 살 것을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괴로웁게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놓고 살아라, 죽어야 너를 본다고 하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살아서 죽는 걸 알아야지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죽는 건 열반이 아니고 살아서 죽어야 그게 열반이에요.

그럼 벌써 과거 미래 현재 삼세가 공해서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법으로 다 그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여해요,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얕은 사랑보다도 깊은 자비가 샘솟듯 한단 말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스스로 남에게 말 한 마디, 한 가지 행, 한 생각을 해도 이게 법이 돼서 그냥 보시가 돼야지, 이것은 내가 물질 요만큼 들고선 이걸 보시를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벌써 반은 내가 욕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값어치는 나한테 올리가 없죠. 오히려 욕심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 들어오는 악의적인 문제들이 거푸거푸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구요. 그러니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신다고 해서 그냥 몸뚱이를 편안하게 두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두시고 뛰어야 몸도 건강하고 또 뛰되 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는 사이 없이 뛰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뛰는 것은 발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뛰는 건 발자국이 남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하신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었으니 참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체간 에너지 전달

문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스님 법문 테이프를 가지고 비닐 하우스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스님 테이프를 들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물의 성장이 훨씬 빨랐고 수확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음파에는 에너지가, 파동이 실려서 그것이 그대로 식물에는 이 식(識)이 옅으니까 그대로 바로 전달돼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식이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비록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파는 분명히 정신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타난 것은 물질 에너지적인 힘으로도 나타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식물보다는 고등동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은 그러한 누진으로서의 음파를, 그 에너지원을 스님이 사용하시는 그 에너지 바다에 그대로 같이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파를 발생 해야 되겠는데 스님처럼 그렇게 되기는 저도 지금으로서는 감히 바라지 못하겠고요, 스님과 저희들 중세계의 중간쯤에 있는 그 중상세계의 생명체들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 연구에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답 내가 애당초에 말하고 싶었던 것도 거기에 관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내고 또 생각하고 행하고 이럴 때 그대로 에너지가 음파로서 발생됩니다.

우주의 근본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나가는 그 법도 이게 평등공법에 의한 음파니까 음파가 전부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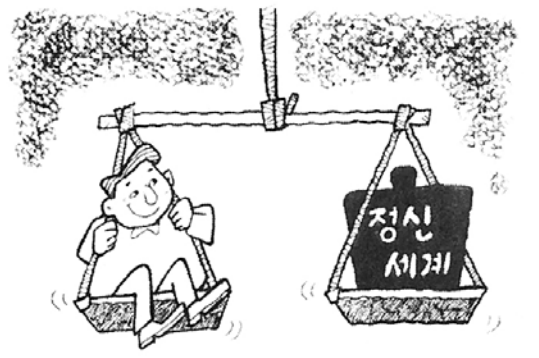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편하게 살려면
몸 편하려 말고
마음을 편하게 두고 뛰세요
그럼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정신계의 음파, 정신계의 법, 공법, 그것을 음파로다가 펼쳐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신계의 에너지를 넣어준다면 아마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듣는 게 아니라 저 미생물에까지도 음파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쓸 수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기 위해서도 해봐야 되는 거다 이 소립니다. 자기가 어떠한 과정에 쓸 수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어떠한 과목을 내가 가지고 이날까지 살아왔던가. 그럽산 것대로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아,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공법의 음파는 어디든지 적용됩니다.

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다고 한 모든 것은 모두 놓아 버리고 오로지 저의 참사랑을 향해서 끝없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답 그리고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나를 버린다고 해서 이 생활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끈찍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진정한 회향법이란

문 저는 스님께 회향법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어떤 경계가 닥쳤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땐가 부처님께 회향하고 모든 스님께 회향한다고 이렇게 항상 마음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분명히 아쉬운게 남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진짜 본연의 자기 자신한테는 회향하지 않고 부처님과 스님한테 생각과 말로만 회향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를 '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 자신한테는 회향할 줄 모르고 부처님과 스님께 생각과 말로만 했으니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네 자신에게 회향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감히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답 잘 생각했어요. 자기가 똥누고 자기가 밑을 씻고 '아이구, 시원하다'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거기 왜 끼어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부처님 부처님 하다보니까 자기는 그냥 망쳐지고 말았죠. 부처님이 대신 똥눠 줘요? 밥 먹어줘요? 회향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똥누고 밑을 씻는 것도, 깨끗하게 씻는 것도 회향이에요. 밥을 먹고 소화가 잘된 것도 회향이에요. 크고 작은 게 따로 없어요. 일을 하고서 잘 정돈하고 줄 것 주고 빚진 것 없이, 고마움을 그저 고맙다고 해서 끝을 맺고 이러는 게 바로 회향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고도 그 은혜를 바깥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갚게 해준 주인공한테 감사하는 게 회향이에요. 내 주인공에, 체가 없는 영령의 조상들이니까 자기 주인공에 한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자가 이 허공 안에 꽉찼다 하더라도 바로 한 종자지 두 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하면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님네들을 불렀는데 집이 주인공에다 하면 내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전부 회향이 되는 거죠. 스님은 빼 놓고 회향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불어 일체제불까지요.

마음으로만 하는 문병

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예를 들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굳이 찾아가서 뭐 격려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몸으로 가는 것 보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때문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이 메말라지고 부득이하게 못 갈 형편이라면 할 수 없지만 찾아갈 수 있다면 정도 나누고 얘기도 하면서 마음을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그러기에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같이 저울에 달아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야 그 쪽도 집이가 온 줄 알죠?

온 줄 아는 그 마음이 전깃줄과 전깃줄이 같이 붙어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도통을 해서 드러누워 있다면 왜 집이가 가고 오고 해야 돼요?

"이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산대로 거기서 지혜 생기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가
수행의 핵심이 아닐까요"

하하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 마음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세계도 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육신을 버리면 공부 못해요. 육신도 소중하고 정신계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생겼거든요.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형성됐고 형성된 자체를 끌고 다니는 정신계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아시면 그대로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부처님을 모셔 놨으니까 '아이구 부처님은 나보다 더 귀중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지' 이러지만요, 부처님을 저렇게 겉에다가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 속에다가 아주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죽 속에다 넣고 다니지 왜 바깥으로 들고 다니느냐고 원효대사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면 배우질 못하니까 방편으로 이끌어 가면서 마음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 자기에게 절하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큰 경계 닥칠 땐 어떻게

문 스님께서는 항상 유위법과 무위법 양면을 다 놓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떤 경계가 올 때마다 양면을 다 놓고 나갑니다마는 항상 유위법 쪽에서 큰 경계가 밀려옵니다. 이 경계를 약 2년간 부딪쳐 오고 있습니다. 큰 경계가 아직도 해결 안된 게 있지만 저는 죽으면 죽었지 물러날 마음은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면을 다 놓고 나가는데 생사까지 다 놓는 것이 그 양면을 놓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맞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또 놓고 지켜보는데 지켜보는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지켜볼 때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지요, 아니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해야 되는지요?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지켜보는 놈이 있고 하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볼 것도 없죠. 진짜로 믿는다면 지켜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데, 뭘 정신계니 물질계니 이런 이유가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닥치는 대로 부딪치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라는 얘기죠. 거기다 일임을 하시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대로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오듯이, 우리가 솥에 쌀을 넣으면 그냥 익어 나오더라 이런 거와 같이 말입니다.

문 예. 그런데 병고라든지 제 몸이나 식구들, 또는 제가 아는 사람들 일은 놓고 맡기고 관하면은 잘 통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세계에 얽혀 있는 이 큰 경계같은 것은 시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됩니다.

답 그런 것도 생각지 마세요. 물질세계에서 어떤 것이 걸리든 내가 금방 지금 이 자리에서 죽든 아무 참견을 마세요. 댁의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가 댁을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는데 왜 댁의 마음이 괜히 이렇다 저렇다 하고 걱정을 해야 합니까? 죽이든 살리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고 댁하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문 그렇게 생사를 놓고 나가면 그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답 네,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요 내가 차를 몰면서 이거 사고나면 어쩌나, 또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거 모진 나쁜 병이 들리지나 않나, 이거 자식들 두고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있죠. 죽는다 하는 사람은 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 자꾸 빠져 고민

문 저는 군에서 제대하고 직장을 새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총각인데요, 예전엔 머리숱이 많았는데 요즘 거울을 보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장가가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신경이 쓰여서요. 한번 맡겨보자, 관해 보면 다시 나는 도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스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 그래서 내가 뭐랬습니까? 일거수 일투족이 다 그놈이 하는거니까 그놈한테다 놔라,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머리털이 빠지면은 이거 빠지면 장가도 못들잖어. 너,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너야.' 하구서 그냥 거기다가 놓으란 말입니다. 생각 날 때마다 그렇게 놓으세요. 그럼 오히려 숱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만법을 그대로 움죽거릴 수 있는 원동력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꺼내쓰는데 용도를 어떤 차원에 쓸 것인가, 어디다가 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는 크게도 쓸 수 있고 적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허공에도 꽉 차있고 내 마음 그 줄에 따라서 전부 연결이 돼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 도리를 알면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쓸 때에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는 날까지 내가 옷을 새로 신식으로 바꿔서 입겠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오래도 살 수 있구요. 그러니까요 너무 못쓰게 되면 좀 바꿔 입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꿔 입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달라지니깐 미리 내가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겠다 저렇게 가지고 나와야겠다 하지 마세요. 정말 옷을 벗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으로서 그냥 그냥, 생각했던 그 자체가 그냥이니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떠한 것을 마음으로 연구를 했더니 물질세계로 나왔다 이러는 걸 좀 연구들 안 해보시렵니까? 그런 모든 것, 이거 심성과학 연구팀들도 그렇지만 마음공부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연구팀이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연구니까요. 연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차리셔서 우리가 조그만 것도 크게 할 수 있고 큰 것도 조그맣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구정물도 도(道)예요. 구정물에 빠지는 것도 도고 하나 버릴 게 없는 것이 도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것이 도고, 다 버리는 게 도고, 이러니까 두 가지 다 양면이 다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것을 다 버리고 나면은 그것은 버릴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자유자재권을 얻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다 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소년원 포교 '사각지대'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급우를 괴롭혀 온 '한국판 이지메'의 고교생들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모두 5명 중 A군은 소년법상 7호(6개월~2년 소년원 송치)를 B, C, D군에게는 보호처분 6호(6개월 이하 소년원 송치)를 선고했다. 또 가담정도가 약했던 E군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소년원 등에서 교정교육을 받는다. 특히 법무부에 따르면 종교활동 프로그램은 재소자 교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교의 기여도가 큰 것에 비해 최근 대부분의 소년원 불교반은 낡고 다 떨어진 법요집으로 더이상 재소자들이 법회를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회의식, 법문 등으로 이어지는 단순하면서도 천편일률적인 포교 프로그램과 턱없이 부족한 불서, 지도법사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년원은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11곳이 있으며, 매주 토요일 1시간 30분씩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로 나눠 종교특활반을 운영하고 있다.

교화프로 · 불서 · 지도법사 태부족
원생 법회참여 개신교의 30% 수준

불교반에는 평균 40~50명의 재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개신교반의 3분의 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종교반 활동을 돕는 지도법사 및 물적 지원도 열악한 실정이다.

광주소년원의 경우 지도법사가 없어 1년여 동안 불교반 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9월말 겨우 향림사 도공스님의 도움으로 재개되는 등 지도법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등은 또 낡은 법요집으로 인해 재소자들이 법회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업주부의 몸으로 10년째 재소자들의 신심증진과 심성교육을 도맡아 온 서울소년원 불교반 윤상근 법사(50)는 "재소자들의 교화는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초석"이라면서 "독경대회, 108배 정진, 108염주 만들기, 찬불가 부르기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불자들의 관심 유도는 불교계가 다같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생산하고 뱀은 독을 품는다'는 말이 있다. 똑같은 물도 쓰임에 따라 효용가치가 다르다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 자신과 사회가 그 만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문제가 사회 병리현상의 한 단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불교계가 한번쯤 곱씹어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도필선 기자

◇재소자 포교를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대구소년원 불교반 재소자들이 오계를 수지하면서 불자로서의 새 삶을 기약하고 있다.



청소년 단신

청교련 약물남용캠페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진주지부(지부장 김기원)는 21일 진주시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3백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된 캠페인은 굴기대회와 함께 차량 스티커 및 전단지 배포 등으로 진행됐다. 약물남용에 대한 피해를 고발하고 범국민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다.



대불련 3차수행결사

전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19~21일 장성 백양사에서 '부처님 안에서 도반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제 3차 수행결사 선우모임을 가졌다.

이번 결사모임에는 35명의 회원이 참여해 불음주·흡연, 묵언 등의 생활수칙을 엄수했다. 참여자들은 또 나눔과 실천의 시간, 선우사랑 우리는 도반, 자자포살 등의 시간을 통해 선우의 정을 다졌다.

파라미타 리플렛 배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는 9월11일 캠프 평가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캠프결산 홍보리플렛〈사진〉을 제작, 캠프 참여자 및 사찰 학생회을 중심으로 배포에 나섰다.

'21세기 불교청소년' 심포지엄

5일 정광사서…김재영법사 등 주제발표

도안사(주지 송암)는 내년 2월 착공 예정인 안성 불자청소년전문수련원 건립에 앞서 5일 정광사에서 '21세기 불교 청소년 육성-그 방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재영법사(동덕여고)와 권경술 前 창원대교수가 각각 '청소년과 민족의식-초기불교 수행법을 중심으로' '21세기 불교청소년 육성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 노승대씨(에밀레박물관 학예연구원)가 '청소년과 민족의식-수련장 운영에 대하여', 임계두씨(너리골 문화마을 대표)의 '청소년수련원의 전문시설', 조달현씨(청교련 사무국장)의 '불교수련원의 특성', 이신숙씨(코끼리 유치원장)의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불교수련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 365일 〈1〉 옥수수 수염



이만성
· 61년 경희대 한의대 졸
· 영재한의원 원장

강원도에서 개업했을 때의 일이다. 산후부종을 앓고있는 한 산모가 찾아 왔다. 그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 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 병을 낫게 할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호소했다. 그때 나는 옥수수 수염을 끓여 복용하는 처방을 내려 돌려 보낸 적이 있다.

옥수수는 포아플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로 멕시코가 원산지다. 한방에서는 옥촉서(玉蜀黍)라 부르며, 위·신장·양기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 및 장수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옥발(玉髮)이라고 하는 옥수수 수염은 산후부종 및 자고난 후의 얼굴부종과 종아리 부종,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어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이나 방광이 허약해 '뇨산성 관절염(일명 통풍·이뇨작용이 안돼 생긴 병으로, 오줌독이 원인)'과 비만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탁월하다.

이와함께 신장염, 신결석, 방광염, 방광결석 등에도 효능을 나타낸다.

불교에서의 '팔정도'와 주역의 '팔괘'처럼 체질에도 '팔상체질'이라는 것이 있다. '8'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물이 여덟개의 소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 몸도 특징적인 여덟개의 장부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한다. 모든 약이 그러하듯 체질에 맞는 약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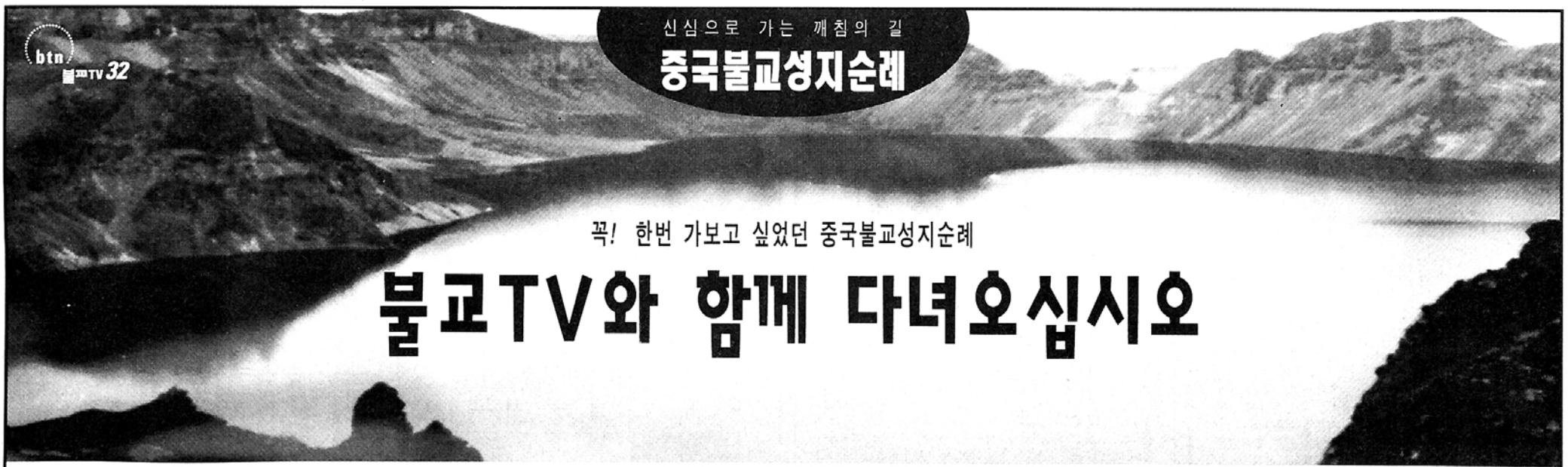
즉 옥수수 수염은 여러 기관 중 신장과 위 기능이 약한 사람이 먹게되면 이들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몸을 날씬하게 하는 다이어트 효과도 보게 된다.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음주 후 숙취현상도 수염을 차(茶)로 꾸준히 마시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옥수수 수염은 우리 가정에서 손쉽게 민간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옥수수 수염 20g을 질경이씨(차전자) 10g, 물 3홉을 함께 넣어 1시간 정도 달여 커피잔으로 한잔씩 하루 2번 복용하면 된다.

신장·위 기능 강화 작용
숙취·다이어트에도 효과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민족의 정기 서린 백두산

순례지
심양-연길-백두산-용정-도문-북경-대동-오대산-북경-청도
백두산성지순례 8일 ₩1,150,000





순례지
상해-보타산-영파-항주-황산-구화산-남경-상해
구화산·보타산 성지순례 8일 ₩1,150,000

중국불교성지순례 일정안내
• 출발일
구화산·보타산코스 : 10월 21일, 11월 18일
• 동참금 : 1,150,000원
• 20명 이상 신청시 출발일 조정 가능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 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02)3270-3471~3 위동마린투어 ☎(02)711-0111

불자 세상보기

청소년 잇단 자살 사회병리 현상

가정문제 · 염세 · 신체 · 성적 · 이성관계 順
"건강한 마음 · 참을성 키워주자"

청소년들의 자살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자살관련 기사는 14건.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9건이 청소년들의 자살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5년의 경우 자살한 중-고생이 1백88명에 이르렀다.(96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10-20대 사망원인중 자살이 세 번째다. 최근 대전시 여성회관이 대전지역 중학생 4백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민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학생 45.7%가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남학생 5.8%와 여학생 2.8%는 실제 자살을 기도해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고생 자살사유를 가정문제, 염세비관, 신체결함, 성적불량, 이성관계 등의 순서로 분석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자살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가정마다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좌절을 이겨내는 참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자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가정은 "아이들은 좋은 음식보다 가난하지만 어머니가 있는 집을 더 좋아한다.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란 말을 다시한번 되새길 때이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가정의 결손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입시경쟁으로 치달아 좌절감만 누적시키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자살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거나 남의 일이 아니다. 나약해진 세대의 어이없는 일로만 보아서도 안된다.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병리현상이다. 추석 직후 있었던 대구달서구 감진윤군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사건들은 가정의 불화, 여기에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폭력과 비정함이 어린 목숨들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단적인 예이다.

청소년자살은 따뜻함을 상실한 사회에 대한 경고이며, 죽음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삶을 외친 '구조요청'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학교 사회는 강건너 불보듯 무관심하다. 범사회적인 생명운동을 벌일 때이다. 학교교육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교과과정의 확대개편은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한다.

정성운 기자

전문가 의견 행동변화등 세심히 관찰

서울대병원 조두영교수(정신과)는 "자살을 결심한 순간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보통 1주~1개월 가량이 걸리며,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전조가 나타난다"며 '전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주위의 세심한 관찰과 도움이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살하겠다는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거나 △갑자기 사찰이나 교회를 찾거나 △몸이 크게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의사를 찾아가 아프다고 얘기하거나 △평소 아끼던 물건들을 스스럼없이 남에게 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숙면을 취하거나, 숙면을 취하던 사람이 잠을 못자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사량이 줄어든다. 이러한 증상을 구조요청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즈 연구 살신성인 의사



의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류의 재앙인 에이즈 치료 연구에 나섰다. 에이즈치료의사협회 소속 의사 50여명은 최근 에이즈 연구를 위해 에이즈 바이러스로 만든 실험용 백신을 자신들의 몸에 주입키로 했다. 인체에 백신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연구라는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의 고든 네리 사무총장은 "매일 에이즈에 감염된 아기가 1천명씩 태어나고 있다. 나는 자살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2천8백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수처리장에 시장관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한 하수처리장내에 시장관사를 짓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신창현시장은 하수처리장 건설이 주민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시장관사를 처리장안에 짓겠다고 약속,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했다. 하수처리장은 지난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관사는 처리장내 50여평 규모로 짓고 있다. 신시장의 이같은 결정은 지자체 실시이후 속출하는 님비현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여성 미화원들 6년째 '자비'



서울 은평구청 관내 공중화장실 여자환경미화원들이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6년째 남몰래 도와오고 있다. 이명자씨 등 24명의 '빗자루 아줌마'들은 매달 1~2만원씩 모아 치악산 소쩍새마을을 찾는다. 대부분 가족들의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는 '미망인 가장'들인 이들은 소쩍새마을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보태기 위해 '땅 한평(2만원) 사주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사우디교포들 북돕기 동참



사우디 거주 동포들이 북한동포돕기에 나섰다. 현지 청년들의 친목단체인 '음악동호인모임'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자선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교포들의 참여가 줄을 이어 1천여만원을 모금했다. 집회를 금지하는 사우디의 사정으로 음악회는 아직 열지 못했지만 교포들의 한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들 뇌물받고 담합입찰



관급공사의 대부분이 담합입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23일 95년 이후 5천6백여건의 관급공사 용역 입찰과정에서 90% 이상이 담합입찰된 사실을 밝혀내고 설계-감리 업체대표 5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1개 업체대표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민수 제주시장 등 3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1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국민들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공중전화업자 적발



불법 공중전화기 1천8백대를 시중에 팔아 4억여원의 부당이익득을 챙긴 업자 6명이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보통신부의 허가없이 업소에 설치, 불법운영되어온 공중전화기는 1백원짜리만 사용가능하며, 한통화도 3분이 아닌 50초로 단축해 통화료는 설치업소가 챙겨왔다.



서울미고 전교생 '형제 · 자매 결의'

서울봉천동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 9백여명은 22일 모두 형제 · 자매가 됐다. 이날 오전 조회시간에 각 학년별로 같은 반 같은 번호를 가진 학생 3명이 형제 또는 자매가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 미리 마련한 선물을 교환했다. 한 여학생은 "재학중에는 물론 졸업후에도 영원히 자매 사이로 남을 것"이라며 즐거워했다. 학교측은 앞으로 전체 조회시간에 형제 · 자매끼리 서게 하고, 각종 행사에도 함께 참여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렇게 들었다

최근 청소년들이 잇달아 아까운 목숨을 버리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9월18일 대구에서는 추석연휴를 주위의 무관심속에 동생과 함께 쓸쓸히 보낸 소년가장 김모(16)군이 외로움과 빚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했다. 같은날 서울에서는 부모와 헤어져 살고 있는 한 여중생이 가정불화와 학교성적 등을 비관,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어 9월21일 경주에서는 남녀 고교생이 가족관계와 대학진학문제 등을 고민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했다. 최근들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 신드롬'. 이를 계기로 자식의 도리를 경전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자식의 도리 부모에 근심 드리지 말라

▨자식의 얼굴이 즐거우면 어버이도 기뻐하고, 자식이 흑시 근심에 싸이면 어버이의 마음도 애탄다. 외출하면 사랑해 생각하고, 돌아오면 잘 키우고자 애써서 마음에 걱정하여 행여 악해질까 두려워하게 마련이다. 부모의 은혜가 이 같거니,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느냐?
〈효자경〉

▨부모가 말했다. "아들이 이미 죽었거니, 장차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있을 따름이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우리 두 늙은이를 이끄사 자식놈의 시체 있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원컨대 그 애와 함께 흙이 되고자 하나이다." 왕은 그들을 이끌고 시체 있는 곳으로 왔다. 〈육도집경〉

▨자식은 마땅히 다섯 가지로 부모를 바로 공경하고 공양해야 한다. 은혜를 잊지 않아 보답하며, 가사에 힘쓰며, 부채는 오직 갚으며, 분부는 따르며, 섬기되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함이 그것이다. 〈선생자경〉

▨부모님께 근심을 더해 드리지 말고, 마땅히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이 병이 나셨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급히 의사를 모셔 치료하라.
〈시가라월육방예경〉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때에 맞추어 밥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예경〉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다. "나는 세세에 온갖 부처님네의 지극한 효행을 본받아 행했으므로 덕이 높아지고 복이 왕성해져, 마침내는 부처가 되어 삼계에 독보하게 되었느니라." 〈육도집경〉

▨만약 총명한 지혜를 지닌 지자(智者)가 있어 생사의 피안에 도달하려 한다면, 응당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
〈금강계주수행경〉

▨만약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혹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록 나오려 해도 나올 때가 없을 것이다. 〈지장경〉

생활정보

인삼 · 사과에 항암물질

고려인삼이 항암효과를 비롯해 노화방지 갱년기장애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하마마추의대 나가타교수는 26일 열린 고려인삼학술대회에서 "말기암환자에 홍삼요법의 응용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사과를 많이 먹으면 폐암발생률을 58%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학교폭력신고 '3480-2828'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대검찰청은 학교폭력 피해신고 전화(3480-2828)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도 홈페이지(www.sppo.go.kr)를 개설, 학교폭력 예방에 나섰다. 환경부는 환경신문고를 개설해 쓰레기 투기, 오염물질 배출신고를 받는다.

환경신문고는 국번없이 128번.

「문화의 달」 지역 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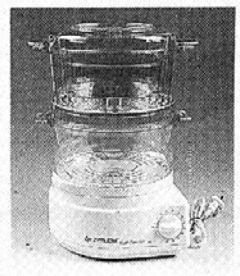
행사명	기간	주요 내용	연락처
공주 백제문화제	9~12일	백제왕 대행차, 궁녀제, 백제불교 영산대재	(0416)50-4540
광주 김치대축제	17~21일	김치담그기 실습, 김치왕 선발대회, 김치 자료전	(062)225-0101
부산 자갈치축제	5~9일	용왕제, 거리퍼레이드, 부산시민 노래자랑	(051)243-9363
통영 한산대첩제	9. 30~3일	한산대첩제, 해상퍼레이드, 풍어제	(0557)44-5222
충주 우륵문화제	16~20일	명현추모제, 사과아가씨 선발대회	(0441)847-1565
고창 모양성제	9~13일	제등행렬, 원님부임행차, 국악공연	(0677)64-2121
순천 남도음식대축제	1~7일	즉석음식만들기대회, 민속공연	(062)222-0101
제주 한라문화제	4~13일	아태영화제, 제주시민속축제, 향토특산물전	(064)53-3287
진주 개천예술제	2~10일	유등놀이, 가장행렬, 민속투우대회	(0591)55-9111
창녕 화왕산갈대제	4~5일	산신제, 의병추모제, 통일기원횃불행진	(0559)32-0011

생활정보

새상품 다용도 증기 떡시루

떡, 육류, 야채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조리할 수 있는 '다용도 증기 떡시루'가 나왔다.

이 제품은 본체안에 내장된 초강력 히터(660W)로 발생시킨 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태울 염려가 거의없다. 타이머(1시간)가 있어 외출시에도 요리가 가능하며 찜통이 2개로 분리되어 송편과 시루떡등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다. 5만8천원. 이성전기 (02)572-440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올 한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인듯 · · ·

뜨거운 열기로 잠못이룬 밤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변화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로
우리 가슴과 정신을
맑게 해주고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가슴이 탁 트일 것만 같습니다.

물들해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한껏 이 가을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했던 일도
꼭 한가지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 높고 맑은 가을 하늘 바라보며 -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
반 야 심 경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 · 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만성지병 투병환자의 업침적 해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幹細胞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제 심사위원장(서예)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회초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88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敎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감 로 심 장 회

감로심장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형편이 어려운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환 자 접 수 서 류 ●
- 종합병원 진단서(병명기재)
- 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전 · 월세 계약서 사본
- 환자 증명사진 2매- 추천서
- 의료보험카드 사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평안등 110-2번지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 원 회 비 송 금 안 내 =〉 온라인 계좌번호 안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상업은행 : 756-05-001291
▶ 농 협 : 803-01-351451
▶ 서울은행 : 85901-2695902
▶ 경남은행 : 567-07-0001999
▶ 우체국 : 610774-0243181
▶ 중소기업은행 : 174-030178-01-015
▶ 지 로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네팔 룸비니동산 대성석가사
◆100일 결제 및 4대 성지순례 안내◆
참가비 : 1,350,000원

※ 100일 동안 숙식은 무료 제공합니다.
▶ 결제일 : 1997년 11월 14일 (음력 10월 15일)
▶ 해제일 : 1998년 2월 21일 (음력 1월 25일)
▶ 출발일시 : 11월 4일 출발하여 네팔카투만두 · 녹야원 · 부다가야 · 영축산죽림정사 · 나란다대학 · 열반지 · 기원정사 · 룸비니동산 도착 100일 결제.
▶ 귀국일시 : 1998년 2월 24일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는 국부(國父)백용성 대종사 유훈을 받들어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조실 불심도문(佛心道文) 큰스님을 모시고 네팔 룸비니동산 대성석가사에서 100일 정진 · 정근 결제를 하오니 비구 · 비구니 · 청신사 · 청신녀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팔 룸비니동산 대성석가사
◆100일 결제참여 및 8대 성지순례 안내◆
참가비 : 1,900,000원

▶ 출발일시 : 1997년 11월 11일 (음력 10월 12일)
▶ 귀국일시 : 1997년 11월 29일 (음력 10월 30일)
▶ 순 례 지 : 네팔 카투만두 · 룸비니 · 기원정사 · 열반지 · 나란다대학 · 죽림정사 · 영축산 · 부다가야 · 전정각산 · 녹야원 · 타지마할 · 아잔타석굴 · 에로라석굴 · 산치대탑 · 카투만두 · 방콕시내관광.
▶ 전화연락 : 서울 종로 대각사 (02)744-4502~3
서울 대 성 사 (02)583-1475
부산 포 교 원 (051)242-4234
경주 천 룡 사 (0561)748-8818
리베로 여행사 (02)923-8393
▶ 접수마감 : 1997년 10월 15일까지.

시 론

부모와 자식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반왕은 아들이 출가를 해서 성을 떠날까봐 늘 노심초사 하며 지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출가를 해서 세계적인 성인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대를 이어 카필라왕국의 평범한(?) 왕이 되는 것을 더 원했다.

그래서 정반왕은 아들의 출가를 막기위해 있는 힘을 다하지만 싯다르타 태자는 늘 출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석가모니부처님과 라훌라

싯다르타 태자는 아내인 야소다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출가 수행의 장애, 방해꾼이 된다는 뜻의 라훌라로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웬만한 불자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정반왕이 아들을 생각하는 심정과 싯다르타 태자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

과연 자식은 무엇인가?

싯다르타 태자가 생각한 것처럼 자식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꾼이었을까?

요즈음 온 나라는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과거에 우리는 대통령에 관한한 불행한 역사를 겪어 왔다. 그들의 불행은 곧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었고, 그들이 잘못 일구어 놓은 풍토는 우리 국민들을 참으로 불편하게 했다.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풍토가 되어야지, 국민과 나라가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번 선거를 앞둔 어떤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니까 법대로 했겠지 하는 시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그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갈려 참으로 시끄럽다. 그 문제로 결국 후보 본인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결국 자식의 문제가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또 하나 자식에 관한 일을 짚어봐야겠다.



이 슬 기
〈작가 · 은석초등학교 교사〉

우리는 최근에 정말로 가슴아픈 일을 하나 겪었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순진하고 천사같은 나리양을 돈 몇 푼에 잃은 것이다.

그것은 유괴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소망하는 뭇 사람들의 가슴을 배반한 사건이었다.

억울하고 가슴아프게 일찍 자식을 잃고 평생동안 한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나리양 부모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한평생을 보낸다고 하지 않는가?

시각이 약간 달라졌지만 범인의 아버지도 고위 공직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도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자식이 저지른 죄, 그것도 만인이 다 분개하는 그런 죄를 졌다면 당연히 부모도 함께 도덕적 책임을 질수밖에 없는 정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범인을 자식으로 두었다는 사실,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사실들로 물질적, 정신적인 부담을 못 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밖에도 우리는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고 사는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산다.

동반자로서의 상호의무

정말로 자식은 무엇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고 도움을 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자식이, 자식의 일 때문에 부모가 부담이 된다든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

라훌라가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일을 하지 않았던가.

열 린 마 당

성보의 자리

성보문화재는 제자리에서 최선의 보호를 받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지만 보호·관리를 이유로 일정장소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성보도난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단위사찰들이 소장하고 있는 성보와 폐사지 등에 산재한 성보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최근 충남 청양군 운장암의 철조관음보살좌상(보물 986호)의 관리를 둘러싸고 운장암과 본사인 마곡사, 청양군이 마찰을 빚은 것은 성보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였다. 이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성보관리 방안을 들어 보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논란을 빚고 있는 성보문화재의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보존관리권을 두고 마곡사와 청양군이 마찰을 빚었던 청양 운장암 철조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못찾는 성보문화재 사례

최근 충남 청양 운장암(주지 보일)에 봉안돼 있던 철조관음보살좌상(보물 986호)이 보호관리를 이유로 마곡사로 반출됐다가 청양군과 지역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떠돌이 신세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아무런 보안장치없이 허술하게 보관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운장암 철보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해당관청인 청양군에 관리 책임이 있다. 또 성보문화재인만큼 운장암의 본사인 마곡사측도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양군은 지난해 운장암 복원예산으로 책정된 7천여만원을 마곡사와 상의도 없이 정식 임명장도 없는 운장암 주지와 협의, 예산을 반려했다. 문화재관리 당사자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운장암 철조관음보살좌상 반출사건은 일단락돼 운장암에 봉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청양군내 장곡사에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건립되고 있는 보호시설은 임시 가건물로 장기적인 보존대책이라 할 수 없어 문제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본-말사 혹은 사찰-지자체간의 성보문화재 쟁탈전은 각 교구본사에 성보전시관이 들어설 경우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교구본사의 성보도난 사건도 잇따르고 있어 관리문제를 들어 성보를 본사로 이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성보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논란을 빚은 예가 적지 않다. 한송사지 석불좌상(보물 81호)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석조보살좌상(국보 124호)과 짝을 이루는 귀중한 성보임에도 불구하고 옛 자리를 떠나 강릉시청에 보관돼 온 지 오래다.

조계종과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2월 전남 영양군 도갑사 경내에서 출토된 청동문수동자상과 광배의 소유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갑사는 청동문수동자상이 사찰 경내에서 발견된 만큼 조상에게 물려받은 전세품(傳世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화재관리국은 명문(銘文) 등 발굴문화재의 소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국가소유임을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중인 석조문화재에 대해 원주시·충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주시는 95년 반환청원서를 냈었고, 96년에는 시민 2만여명의 반환서명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박물관은 반환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재가 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폐허가 된 절터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훼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로 지리산 마야부인의 경우는 산 정상에 보호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방치돼 이교도들의 손에 훼손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대학박물관이 보존처리나 전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성보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창고에 방치된 채 손상되고 있는 성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국대나 경북대의 뜰에 놓인 탑과 석조물들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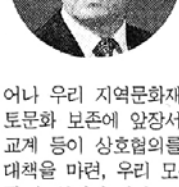
성보문화재는 불자를 비롯 우리 민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생각할 때 영구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기석 기자

운장암 철조관음상 '떠돌이 신세' 한송사지 석불 강릉시청에 보관

도난 · 훼손등 예방시설 선결과제

철웅 〈마곡사 주지〉



성보는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재 차원을 떠나 신앙의 대상이요 부처님이다. 점안된 부처님이 있어야 할 곳은 법당이므로 제대로 보호 시설을 갖춘 사찰에서 봉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순히 보고 감탄하는 문화재가 아닌 생생한 신행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것이다. 최근 운장암 철조관음보살좌상의 행방논란은 허가조차 없는 민가에서 운장암이라 지칭하며 보살상을 모신 것으로 청양군의 문화재 관리 허술에서 비롯된 일이다.

행정당국에서 관할지역 내의 성보문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성보문화재에 대한 관계당국의 미흡한 인식 때문이다.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지만 행정당국에게는 도난당하지 말아야할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당국은 성보문화재를 보물이나 국보라는 개념을 초월해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보문화재의 가치는 단순히 물적 가치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서원까지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성보전시관에 옮겨 안전보존해야

범하 〈성보보존위원〉



영구적인 성보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성보관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물론 관리만 잘 된다면 원 위치에 모시는 것이 옳으나 관리가 허술한 사찰이나 암자의 경우에는 교구본사나 성보전시관으로 이전, 안전한 장치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지사 본말사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법당에 모시는 성보를 제외하고 오래돼 관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보호 인력이 없는 성보는 모두 본사로 이전하고, 대신 여법하게 새로운 성보를 조성해 모시고 있다. 성보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돼 개별 사찰에 모사품을 둬야 할 입장이라도 전통과 법식에 맞춰 불사를 이루겠다는 것은 보존과 재창조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성보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종단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각 불사단위로 성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것과 동시에 종단이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교중앙박물관을 건립해 제 자리를 떠난 성보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역문화재 제자리 있을때 빛나

장수봉 〈충주문화원장〉



지자체가 출범한 이래 각 지역에서 자기 고장의 문화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화재는 제 위치에 있어야만 빛을 발한다. 우리 문화재가 제 자리를 떠난 채 훼손된 것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서 비롯됐다. 현재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보호를 구실로 많은 문화재들이 제 자리를 떠나고 있다. 지역문화재는 그 지역의 자랑이요 재산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자체의 지역문화재 반환요구에 대해 박물관 면모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해왔다. 이는 지역문화를 무시한 처사다. 보존관리를 앞세워 중앙정부나 교구본사들이 다투어 지역문화재를 가져간다면 지역문화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문화재의 집중화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는 이 때 지역박물관 및 개별사찰의 문화재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문화재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향토문화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당국-지자체-불교계 등이 상호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 우리 모두가 실질적인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겠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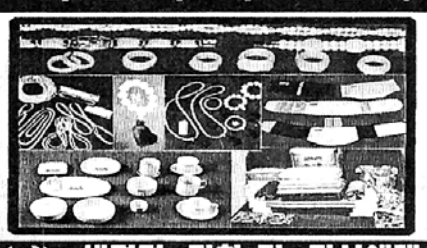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V 연옥사용후 3.0㎷/V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짐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분후 습득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 기 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등
■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 원 : 10명 선착순
■ 출 발 일 : 1997년 10월 21일(화)
■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 (02)511/2026-8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기초선원 가을안거



동화사(주지 무공) 기초선원(선원장 진허) 가을안거 개원식이 9월21일 동화사조실 진제스님을 비롯해 강사스님, 사중스님, 기초선원생 9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법전에서 개최됐다. 〈사진〉

10월19일까지 열리는 안거는 성우 원융 무비 무여 법산 진허스님 등 강의도 함께 한다.

태고종

사찰신도회 간부 연수

충북종무원(종무원장 대연)은 9월23, 24일 이틀간 충북 괴신 다보수련원에서 종무원 산하 사찰신도회 간부 2백5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포교방법론, 21세기를 대비한 불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이들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약수암 대웅전 낙성

진천 약수암(조실 장월만)은 9월21일 대웅전, 삼성각, 사천왕전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낙성식을 가진 각 전각은 대웅전 22평, 삼성각 8평, 사천왕전 10평 규모에 전통목조양식으로 지어졌다.

천태종

종단간부 中 국청사 방문

도용 종정스님과 운덕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 10여명은 중국 천태산 국청사 창건 1천4백주년 및 5백나한당 거광(揭光) 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중국방문단은 8일 법요식에 참석하는 외에도 10일간 머물며 영파 천동사 순례 및 지자대사 열반지 항주 신창대불사 등 성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분당신도시 개운사 기공

신도시 포교의 거점이 될 개운사 기공식이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종단간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23일 성남 분당구 오리동 개운사 공사현장에서 열렸다.〈사진〉

7천여평의 부지에 세워질 개운사에는 2층 규모의 전통양식을 갖춘 법당과 3층 규모의 요사채, 지관전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회관과 탑, 전각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0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건립된다.

진각종

대구 밀교문화대학 개설

진각대학(학장 석봉정사)은 부설 대구교구 밀교문화대학을 개설, 9월30일 대구 진각문화회관 7층에서 입학식을 거행했다.

총단 교양대학으로는 서울지역에 이어 두번째인 대구 밀교문화대학은 1년과정으로 진각종학, 밀교학, 불교학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다. (053)255-1450

대한법화종

고혼천도 · 거북방생법회



부산 황정사(주지 황정)는 9월22일 사직종합운동장 앞 특설법회장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주무주 고혼천도 대법회 및 1천2백년생으로 추정되는 거북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이날 법회에는 문구암 종정스님, 부산시의회 정각회 배학철의원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원융종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총무원(원장 보인)은 7일 오전 11시 재향군인회관에서 국제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하게 될 이번 대법회는 1부 수계법회에 이어 2부 영산대재 순으로 진행되며, 일본, 대만의 스님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알림 본지 24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불교TV '새벽예불' 신선한 감동



◇방영과 더불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불교TV '새벽예불'. 해인사 새벽 예불을 생생하게 담아낸 '새벽예불'은 불교TV의 가을개편 신설 프로그램이다.

"뜻 알고보니 신심 절로 우러난다"
예불문 자막풀이 '호응'…저녁예불도 검토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삼계의 스승이요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매일 아침 6시10분 가야산의 정적을 깨우는 도량석으로 시작해 장장 45분간 진행되는 해인사 새벽 예불이 불교TV에서 산사의 새벽을 신선한 감동으로 전하고 있다. 불자들에게 불교TV를 통해 해인사 예불에 동참해 아침 예불의 장엄함을 몸소 체험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9월22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새벽예불'은 '저녁예불'과 함께 가정이 곧 청정도량임을 일깨우며 예불의 생활화를 이끌고 있다.

'새벽예불'은 도량송 타고명종 오분향례 반야심경 등으로 진행되는 예불 의식을 한글 자막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며 '저녁예불'도 자막방송을 할 계획. 그래서 뜻도 모른 채 예불을 암송해온 불자들에게는 예불문의 뜻을 자세히 새길 수 있게 돼 예불의 현대화와 올바른 신행생활에 한몫하고 있다. 예불에 이어지는 영상 니르바나는 예불을 마친 후 5분동안 참선의 시간을 제공해 부처님께 예불 후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던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벽 예불을 편성하게 됐다"는 불교TV 제작진은 "방영하자마자 이처럼 폭발적인 시청자의 호응을 받게돼 놀라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아침마다 TV를 통해 아침예불에 동참하고 있다는 박성막(52 · 서울 목동)보살은 "뜻도 모르고 따라했던 예불문들이 한글로 해석돼 나오는 것을 보니 환희심이 절로 일어난다"며 앞으로도 계속 새벽예불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월정사 1군사 불자 수계

오대산 자연정화 활동도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6일 제2회 군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월정사는 1군사 군법당 법웅사와 수계법회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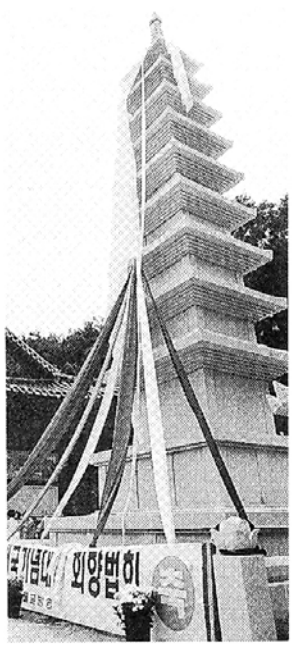
이번 법회에서는 1부 수계대법회를 비롯 오대산 인근의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5년 처음으로 실시된 군불자수계법회는 8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에는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대전 불교음해 목사 '사과'

불교음해전단배포돌 물의를 빚었던 대전 중앙성결교회 이재섭 담임목사가 9월 13일 대전사암연합회 사무실을 방문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이재섭목사는 "전단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불교를 비방한 데 대해서 깊히 사과드리며 차후에는 이와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단을 배포한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작성했다.

관음사 '마음의 절' 개원
시민선방 등 도심포교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가 서울 포교당 마음의 절(주지 세등)을 27일 개원, 본격적인 도심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구 송파1동에 개원된 마음의 절은 어린이, 학생, 청년, 가족법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선도활동(상담실운영), 정기적 학술세미나 및 학술지발간, 불교교양대학, 시민선방, 사회봉사활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 또 도제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및 각종 교육불사도 실시한다. 초대주지 세등스님은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와 미래지향적인 불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도심포교당의 새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포교법 개발과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관음사에 세워진 불교방송 대탑. 대탑은 가로 · 세로 5m · 높이 18m의 9층석탑으로 3억4천여만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불교방송 대탑 8년만에 제막

관음사서 회향법회

불교방송 개국기념 대탑 제막식이 9월24일 관음사에서 3백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불교방송 개국을 기념하기 위해 불자들의 성금을 모아 90년부터 추진돼온 대탑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준공됐다.

명부전 대강당 신축등 관음사 20년 중창불사 회향법회와 같이 봉행된 이날 제막식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 지하(중앙승가대 총장) · 영담(불교방송 이사장 직무대행)스님과 서돈각(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 이상현(신한국당 의원) · 한광옥(국민회의 부총재) · 진진형(관악구청장)씨 등이 참석했다.

BBS노조 '유감' 성명서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선상신)은 9월24일 개국기념 대탑 회향법회와 관련 '불교방송 개국기념 대탑의 완공은 환영하나 공금유용으로 퇴임한 前 이사장의 사찰에 세워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단이사회 소집을 촉구했다.

신라문화원 사단법인 승격

김주락 변호사 이사장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30일 황실호텔에서 신라문화진흥원 승격 및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김주락변호사(44)가 초대이사장에 취임했다. 93년 3월 개원한 신라문화원은 지난해 겨울 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의결, 7월24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한편 신라문화진흥원은 7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승격 기념 혜국스님초청법회 및 궤불점안식을 봉행한다. 신라문화진흥원측은 궤불봉안과 관련 "그동안 야외법회시 궤불이 없어 법단을 제대로 마련치못해 안타까웠다"며 "대규모 야외법회사용을 물론 대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송|단|신

BBS 대선후보 초청 대담

불교방송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8시에 대권후보들을 초청 정병조 교수(동국대 부총장)의 진행으로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특별대담시간을 마련한다. 대담 일정은 6일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시작으로 7일 국민회의 김대중, 8일 자민련 김종필, 9일 민주당 조순, 10일 이인제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불교방송은 11월 초순에는 흥사단과 공동으로 7~8명의 패널리스트가 참석하는 대선후보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불교TV 5차 주식 공모

불교TV는 10월1일부터 5차 주식공모에 들어간다. 내년도 전국시청권시대 돌입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불교TV는 지난해 태국 대만 등지의 불교채널 개국으로 프로그램 수출등 영상사업에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12월15일까지 모집하게 될 이번 주식공모 예상 총액은 60억원이다.

btn 영상물 군포교 한몫

불교TV의 '한국의 명찰' '다큐멘터리 티벳'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등이 학교등 공공단체에서 시청각 교재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군부대 영상포교자료로 한몫하고 있다. 군법당과 군부대 약 30여곳에 불자들의 보시를 통해 배포된 영상자료는 군불자들의 초발심을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불자가수 이자연 자선공연

불자 트로트 가수 이자연씨가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이씨는 9월5일 오지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자선공연을 갖고 수익금은 전액 제4회 사회참일꾼상 시상에 기탁했다. 사회참일꾼상은 한국연예협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올해는 교육부에서 추천한 오지 초등학교 교사 10명에게 시상했다. 이밖에도 이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충북 음성의 꽃동네를 위한 자선공연을 갖고 수익금과 위문품등 1억3천여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BBS 노조장 박명한씨

불교대구방송은 최근 노동조합 결성식을 갖고 보도국 박명한 기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노조 창립법회는 10월중순경 가질 계획이다. 불교방송 노조 대구지부에는 PD와 기자, 엔지니어 등 8명이 가입했으며 연말까지 10명선으로 조합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불교방송 노동조합은 부산, 청주에 이어 대구지부가 결성됐으며, 광주지부만 결성되지 않았다.



불교어린이 정보센터 '탄생'

어린이지도자련, 부산에 포교자료 수집…불서 · 시청각 시설도 갖춰

어린이 불교의 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보고 제공받을 수 있는 '불교어린이 정보센터(실장 박용하)'가 부산에서 문을 연다. 3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정보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불교어린이 정보센터여서 더욱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시대에 정보수집과 자료제공의 필요성에도 불구 이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 없음에 착안, 조계종 포교원의 후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사무국 옆 25평 규모로 마련될 이 센터는 불교는 물론 타종교, 기타 교양도서 및 불교영상물 등을 비치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자료를 보급하고 수집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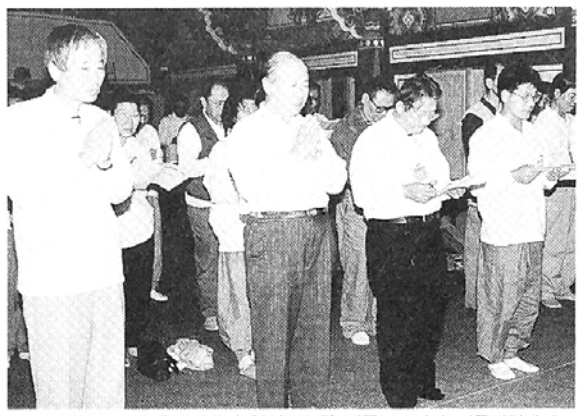
개소식을 앞두고 책자 후원을 받고 있으며 타종교 어린이 관련 서적을 비롯 책자구입,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설치 등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또한 현재 개설돼 있는 컴퓨터통신의 동호회방을 활용해 정보센터의 자료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열람실에 시청각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정보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적인 방향모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종교의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시해 어린이 포교부문에 있어서의 오류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정보센터는 활용도와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포교자료 확보, 아동교육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 맹인포교를 위한 점자 출력기 확보, 다양한 정보교육 방법연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보센터가 단순한 정보수집과 자료제공은 물론 다양한 불교관련 자료를 개발 제공해 각 사찰의 어린이불교학교의 활성화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051)808-4569

〈부산=천미희 기자〉



◇9월20, 21일 은해사에서 열린 제8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내가먼저 합장하기 △정기법회 참석 △한글의식 생활화 등을 실천키로 결의했다.

도갑사출토 문수동자상 조계종, 소유권 소송준비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3월 도갑사에서 출토돼 문화재관리국과 종단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제기됐던 청동문수동자상 등 성보문화재 소유권에 대해 법률자문을 도갑사 소유라는 법률자문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확인청구, 소유물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계종 자문 양영태 변호사는 "도갑사에서 출토된 성보문화재 일체는 도갑사가 사찰로서의 목적 구현을 위해 제작한 것인 만큼 도갑사 이외의 소유자가 있을 수 없다"며 소유권 내지 반환청구권이 도갑사에 있다는 법률해석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매장문화재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요구하기 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된다는 점 △도갑사 경내에서 발굴된 점 △사찰재산은 불상, 석물 등 불교의식행사 및 승려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동산 일체를 포함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도갑사의 소유임이 확실한 상태에서 정부의 성보문화재 반환거부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문화재를 국가소유로 귀속시키려는 행위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양 변호사의 견해.

"내가 먼저 합장하자" 대원회, 8차 대중결사

"21세기를 준비하는 싯점에서 불교지도자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수행을 통한 새로운 위상정립으로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한국불교 대원회(이사장 박윤흔)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영천 은해사에서 1백8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8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서 이같은 결의와 함께 실천지침으로 △내가먼저 합장하기 △한글의식의 생활화 △정기적 법회참석하기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은해사=김원우 기자〉

뉴스 & 뉴스

'감로' 상표등록 취소하라

녹차이름의 일반화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감로' '감로차'를 한 개인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 이를 취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한국차문화협회 등 차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차업계에서 보편적인 상표로 쓰이고 있는 '작설' '죽로' '옥로' '용정' '철관음차' '보이차' 등이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봉은사 문화축제 '보우제'

봉은사(주지 무상)는 5일부터 10일까지(6일간)허응당 보우대사의 순교 432주기를 맞아 문화축제 '보우제'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는 Δ4일 추모법회 Δ5일 봉은불자체육대회 Δ4~10일 환경사진전시회, 우리농산물 바자회 Δ9일 소년소녀가장돕기 Δ10일 신앙 및 포교 체험수기 시상식, 정대불사 및 보우제 회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창복지관 '최우수 평가'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은 부산 북구지역 최우수복지관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 북구청이 7월28일~8월19일 북구지역 7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 지역사회문제 예방·치료, 지역민 연대 매개체 역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우수평가를 받았다.

공창복지관은 최우수복지관 영예 외에도 98년 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비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불국사에 불 매장 전소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 불이문앞 기념품전시관매장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1시간만여에 전소됐다.

지난 9월22일 오후3시경 일어난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2.5평규모의 목조기와 건물을 완전히 태웠다.

10월2일은 '노인의 날'

올부터…교계 노인복지 · 포교 절실

정부가 올해 제정한 '제1회 한국 노인의 날'이 2일로 다가왔지만 교계와 사회적으로 인식이 없고 취지를 살리는 행사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포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날에 맞춰 1일 국군의 날로 하루늦춰 제정된 노인의 날은 금세기말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20년이상 늘어나면서 노령화가 20세기의 주요한 성과이면서 동시에 도전이라는 인식이 커가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교계에서도 소외계층인 노인복지에 관심을 집중하여 노인포교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계에서는 이와관련 4일 대구법왕사(주지 실상)가 제8회 백고좌법회 중간행사로 지역노인 5천여명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법회에 이어 유명 국악인과 연예인 법왕사신도들로 구성된 가무단등이 노인들을 위해 흥겨운 잔치한마당을 벌인다.

이에앞서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도 9월 26일 70세노인 1백60여명을 초청하여 천안 각원사와 독립기념관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불교전용 위성방송 검토중

불교TV, 조계종에 타진…본 · 말사 연계 가능

불교TV가 조계종 총무원에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조계종 전용TV' 건립을 타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계종 전용TV' 건립안은 불교TV의 방송제작 및 위성송출 장비를 활용해 총무원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전국 본말사에 직접 송출하는 첨단 통신기술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불교TV가 위성통신 서비스 가운데 위성 고정 비디오의 일부시간을 임차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또한 이 시스템이 실행되면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각종 지침을 비롯 홍보와 교육을 위성방송으로 실시, 종무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가된다는것.

이와 관련 불교TV 제안서는 일반 위성방송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초기 시설투자비용을 절감할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구 불교공선협 발족

12월18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에 교계 첫 공명선거협의체가 발족됐다.

대불청 대구지구, 대구불교산악회,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경북지부, 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 등 대구지역 5개 신행단체가 9월 23일 모임을 갖고 공명선거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북어린이 겨울나기' 100일 결사

북돕기불교추진위, 겨울용품 수집운동 전개

북녘어린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운동이 7일 오후 2시 백일결사에 들어간다.

북돕기불교추진위(위원장 지선스님)는 9월20일 확대집행위원회를 통해 2차 백일결사 기간을 '북녘어린이 겨울나기'로 결정, 추진키로 했다.

'북녘어린이 겨울나기' 운동은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결핍에 걸려있는 북녘어린이들에게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겨울용품 등을 보내자는 것.

이밖에 불교추진위는 1차 백일결사 기간동안 전개한 '의약품보내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가운데 Δ자비의 등달기 운동 Δ쌀 모으기 운동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월인석보등 고문서 50권 발견

불갑사 천왕문보수 때

월인석보를 비롯 경전, 불교의 식집 등 보물급 고문서 50권이 전남 영광 불갑사에서 발견됐다. 9월19일 천왕문 보수공사 도중 사천왕상(지방유형문화재 159호) 복장에서 발견된 고서(古書)는 조선 세조 때(1459년) 목판본으로 간행한 월인석보 2권(전체 25권 중 권21)과 지장보살 본원경(地藏菩薩 本願經) 십지경론(十地經論) 등 경전 35권 등 불교관련 제례의식집 13권.

이번에 발견된 고서는 발간연대가 가장 빠른 지장보살본원경(1453년刊)에서 가장 늦은 묘법연화경(1670년刊)까지 2백여년간에 걸쳐 간행된 것으로 조선초·중기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장기기증자 천도재

육신을 공양한 사후 기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천도재가 8일 예산 수덕사에서 개최된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94년 각막과 시신을 기증한 故김치언씨에서부터 96년 각막을 기증한 수견스님, 97년 7월 각막을 기증한 故이유기보살까지 13명의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

목탁소리

일제 둔갑 백제관음

윤 기 석 〈취재2부 기자〉

백제관음이 버젓이 일본에서 제작됐다는 안내문과 함께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구다라(백제)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 불상은 6~7세기 경 백제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옮겨진 것이나 아스카시대에 일본에 온 백제의 도래인이 제작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실 안내문에 "이와 비슷한 양식의 목조불상은 중국이나 한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일본제작이 확실하다"고 적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도 백제관음을 '일본 불교미술의 정수'라 소개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전시회라며 흥분하고 있다. 일본측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프 모닝 대외관계실장은 전시자체가 외교적 채널에 의한 것이며 루브르는 극동고미술전문 박물관이 아니다며 발뺌을 했다고 한다. 우리 문화경쟁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몇몇 민간단체들이 우리 문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에 비한다면 너무도 미약하다.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권이지만 일찍부터 해외 유명박물관에 독립된 자국전시관을 갖춰왔다. 반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해외소재 문화재의 반환만 요구했지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활용하는 데는 등한시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외박물관내 한국관에 관심을 기울여 유물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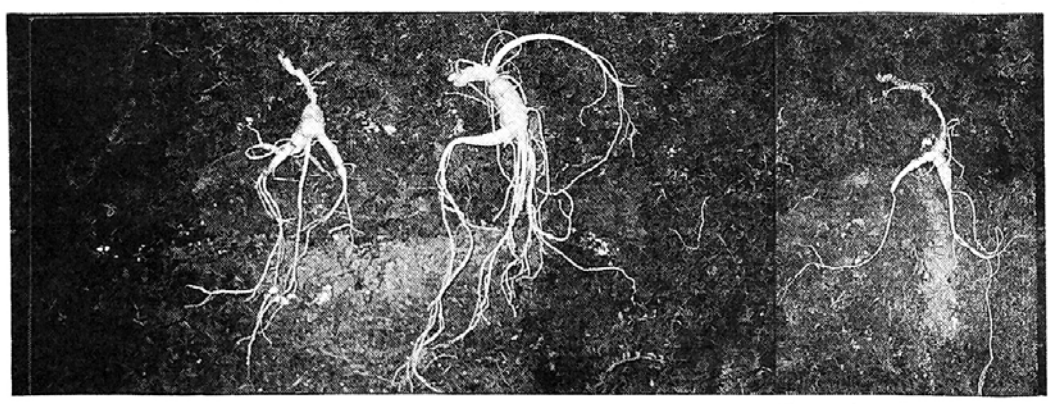
또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외박물관이나 종교·문화재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불교계는 서구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 때 불교문화를 홍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元·氣·回·復 (가을은 소진한 氣를 보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 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 별도상담 (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3뇌)
■ 자연산삼 문의상담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큰기술 PCS 016 세상-

PCS는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기업, 저 기업 통신에 발을 담급니다. 돈이 된다고 외형만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신만큼 전문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도 드뭅니다. PCS 016은 이 땅의 100년 통신역사를 이끌어온 한국통신을 대주주로, 각 업종의 1만 2천여 우량기업과 총 7만 8천명에 이르는 개인주주가 모인 국민기업이 만들었기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통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년을 이끌어온 통신전문가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누구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최고 PCS 016은 최고의 전문 기술과 최적의 통신망 설계로 가장 뛰어난 통화품질을 제공합니다.

최저 PCS 016은 10초당 19원으로 이동전화중 통화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無 PCS 016은 보증금이 없으며 실속있는 38가지 부가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고객상담 080-016-0000(수신자 요금부담) 서울 02)3277-0016 부산 051)4400-016 대구 053)4300-016 광주 062)5200-016 대전 042)2500-016

단체 고객 및 법인가입자 상담 02)3277-7000 •인터넷 www.pcs016.co.kr